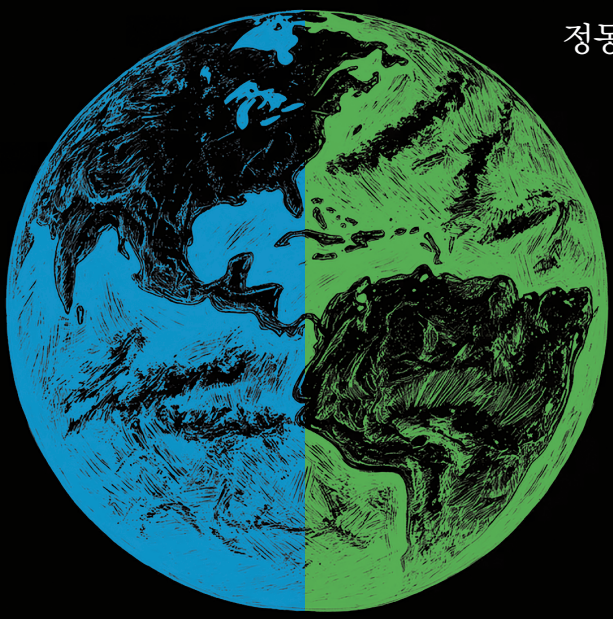
재창조는 없다

No Re-Creation

The Fallacy and Doctrinal Dangers of the Gap Theory

정동수 지음



간극 이론의 오류와
교리적 위험

그리스도예수안에

그리스도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재창조는 없다
간극 이론의 오류와 교리적 위험

지은이 / 정동수

Copyright ©

2026년 5월 15일 발행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12,000원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는 것 이상으로
무단으로 인쇄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No Re-Creation

The Fallacy and Doctrinal Dangers of the Gap Theory

— D. S. Jung —

Index

서문 5

1부: 간극 이론의 역사적 기원과 한계 9

2부: 간극 이론의 열한 가지 성경적 오류

문제 1: 창세기 1장 2절의 was는 became이 아니다 29
문제 2: 창세기 1장의 '그리고'(And)는 간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6
문제 3: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은 파괴를 뜻하지 않는다 48
문제 4: '창조하다', '만들다', '짓다' 혹은 '형성하다'는 동의어이다 54
문제 5: 창세기 1장 28절의 replenish는 '다시 채우라'가 아니다 58
문제 6: 이사야서 24장 1절과 45장 18절은 재창조와 아무 관련 없다 77
문제 7: 예레미야서 4장, 이사야서 34장은 추측 해석의 전형이다 84
문제 8: 시편 82편과 욥기 본문들은 간극의 증거가 아니다 95
문제 9: 에스겔서 28장의 에덴은 에덴동산이 아니다 101
문제 10: 베드로후서 3장은 루시퍼 홍수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이다 107
문제 11: 세 구절에 의해 간극 이론은 무너진다 117

3부: 간극 이론이 무너뜨리는 복음의 기초

첫 번째 모순: 창조에 대한 성경의 최초 서술 비중 약화 135
두 번째 모순: 노아의 홍수의 역사적·신학적 의미 훼손 138
세 번째 모순: 천사론과 인간론의 충돌 141
네 번째 모순: 죄와 사망의 기원 교리 훼손 144

결론: 재창조는 없다 150

참고 문헌 157

Introduction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논쟁, 이제는 끝냅시다

이 글은 논쟁을 즐기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서 쓴다.

오늘날 한국의 일부 교회 도서관 서가에는 재창조 간극 이론을 지지하는 책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책의 종류가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이론이 성경 해석 전체의 전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이 이론이 등장한다. 창세기는 물론이고, 욥기,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베드로후서,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펴도, 이 이론의 렌즈가 먼저 적용된다.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것 없이는 성경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린다.

더 나아가 이 이론은 단순한 해석 방법이 아니라 신앙의 척도로 격상되기에 이르렀다. "재창조는 팩트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진정한 성경 신자이다", "이 내용을 부정하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말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퍼져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성경을 모른다", "혹시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듣는 경우도 있

다. 하나의 성경 해석 가설이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 셈이다.

이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뿌리는 미국에 있으며, 미국에서도 수십 년째 동일한 상처가 반복되어 왔다. 그 진원지에는 피터 럭크만(Peter Ruckman, 1921–2016)이 있다. 그와 그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처음부터 간극 이론을 '이론'(theory)이 아니라 '갭 팩트'(Gap Fact)라고 부르며 가르쳤다. 그 결과 창세기 해석 문제를 넘어, 창조 기사 전체는 물론 종말론, 심지어 성경 전체를 읽는 기본 틀로 재창조 간극 이론을 전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재창조 간극을 부정하는 견해는 "성경을 곡해하는 행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태도" 등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근본주의 침례교 목사들 역시 '성경 불신자', '배교자'라는 정죄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결정적인 사실이 있다. 럭크만 자신이 이 이론을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교리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유추한 내용이라고 직접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그의 말을 따르면, 이는 확립된 팩트가 아니라 한 해석자의 추론이다. 그런데 그 추론이 "재창조는 팩트다", "이것을 모르면 성경 신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으로 변질되었다. 원래 제안한 사람조차 유추라고 했던 내용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사이에서 의심할 수 없는 진리로 굳어졌다.

럭크만이 세운 펜사콜라 성경 학교와 그의 출판 사역은 이 가르침을 조직적으로 전파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 학교에서 훈련받은 졸업생들이 미국 각지의 독립침례교회 목사가 되어 동일한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전했고,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것'과 '럭크만식 재창조 간극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상 한 묶음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킹제임스 성경을 동일하게 지지하면서도 간극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 목사와 성도들은 모호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성경 신자냐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의심과 공격을 감내해야 했으며, 교리 토론은 '신학적 논의'가 아니라 '진짜 신자 대 가짜 신자'의 전쟁으로 번져 갔다.

실제 지역 교회 안에서 빚어진 상처는 깊었다. 간극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

는 부교역자나 교사가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사임 압박을 받는 일들이 미국에서 확인되었다. 재창조 간극 이론에 관한 논쟁이 교회 안에서 장기화되면서 공동체가 둘로 갈라지는 일이 빈번해졌고, 성도들이 럭크만의 가르침에 깊이 빠져들면서 자신이 속한 교회의 목사를 '성경을 모르는 자'라고 공격하여 공동체 전체가 흔들린 사례들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일들을 겪은 목사들과 사역자들 가운데는, 재창조 간극 이론 자체보다도 '이 문제를 둘러싼 분열의 영'을 더 큰 상처로 회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럭크만파 교회' 혹은 '럭크만 추종자'라는 말만 들어도, 강한 분열성과 타 교회와의 단절,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끝없는 논쟁이 반복되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그 가르침이 번역과 출판을 통해 30여 년 전에 한국으로 흘러들어 왔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권위를 지키려는 선한 마음을 가진 한국의 성도들이, 번역과 출판이라는 통로를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창조 간극 이론 안으로 깊이 끌려 들어갔다. 그 결과 미국에서 이미 반복된 분열과 상처의 역사가, 시간차를 두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이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실로 가슴 아프다. 함께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이 문제 하나로 서로를 의심하고 갈라서게 된다. 함께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고 싸워 온 형제들이, 재창조 간극 이론 때문에 서로를 '성경 신자'와 '성경 불신자'로 나누게 된다. 어떤 이들은 미국의 사례처럼, 목회 현장에서 간극 이론 문제 때문에 교회를 잃기도 하고, 가족처럼 지내던 동역자와 등을 돌리기도 한다.

이 글은 그 성도들을 정죄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다. 진심으로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분들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인간적 가설'에 묶여 고통받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글이다. 미국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겪은 그 분열과 상처의 역사, 그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제 한국 교회 안

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 적어도 같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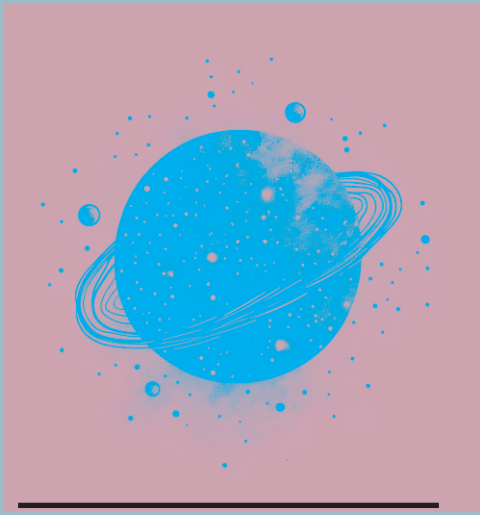
재창조 간극 이론을 받아들였던 많은 분들의 출발점이 "성경을 더 잘 믿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싶다."라는 선한 열심이었음을 안다. 그래서 더욱 간곡히 부탁드린다. 성경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한 사람의 추론, 한 학파의 체계, 한 학교의 노선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

성경은 재창조 간극 이론 없이도 충분히 아름답고 완전하다. 아니, 그 이론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창조의 장엄함과 복음의 단순함이 더욱 선명하게 빛난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뒤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이론의 도움 없이도 우리 마음에 그대로 들어온다. 그 단순하고 위대한 진리를 함께 회복하기를 바란다. 미국에서 반복되었던 상처와 분열의 길을 한국 교회가 다시 밟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으로 이 글을 쓴다.

2026년 5월 인천에서

정동수 목사

Part 1



간극 이론의 역사적 기원과 한계

Part 1

간극 이론의 역사적 기원과 한계

창조와 우주의 기원에 의문을 제기하고, 생명체의 기원을 탐구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비정상적이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탐구 정신으로, 성경 계시와 일반 계시(자연)를 함께 살피려는 시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태도이다. 참된 신앙은 질문과 탐구를 억누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역사 속에서 거듭 확인해 왔다.

그러나 탐구의 방향은 자세만큼이나 중요하다. 성경 계시를 출발점으로 삼아 자연을 해석하는 것과, 세속 과학의 결론을 먼저 받아들인 뒤 성경을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실제로 18세기 후반부터 균일론적 지질학이 부상하고, 19세기 중반 이후 진화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 두 방향의 차이는 기독교 신학 안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기 시작하였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연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질학이 전제하는 수억 년의 시간을 어떻게 논박해야 하는가"라는 압박이 점점 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의 '해법'으로 등장한 이론이 간극 이론(Gap Theory), 곧 '파괴 – 회복 – 재창조' 이론(ruin–restoration theory)이다. 이 이론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수억 년의 시간적 간격을 상정함으로써, 균일론적 지질학이 전제하는 '오래된 지구'도 수용하고 문자적 6일 창조도 지키는 타협안처럼 제시되었다. 처음에는 진지한 신학적 고민에서 출발한 제안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론은 성경 해석 전체를 지배하는 해석 틀로 확장되었고, 급기야 이 이론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가 진정한 성경 신자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변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1부에서는 세 가지 흐름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간극 이론이 어떤 역사적·사상적 배경 속에서 등장하였는지를 추적한다. 이어서 이 이론이 20세기 이후 어떻게 수용되고 확산되었으며, 끝내 쇠퇴하게 된 원인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서구에서 영향력을 잃어 가던 이 이론이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 교계에 유입되고 변형되었는지를 정리한다. 이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이해는, 이후 2부와 3부에서 이 이론의 성경적·교리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이룰 것이다.

19세기 이전: 전통적 6,000년 연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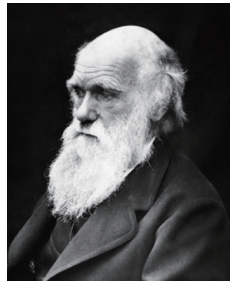
19세기 중반 진화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유대·기독교 전통에서는 창세기 족보와 연대에 근거하여 지구와 우주의 연령이 대략 6,000년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아일랜드의 대주교 제임스 어셔(James Ussher, 1581–1656)가 정리하여 완성한 연대기처럼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는 창세기 족보와 구약 성경의 역사적 기록을 면밀히 추적하여 창조 시점을 기원전 4004년으로 산출하였고, 이 계산은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신뢰를 받았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존 라이트풋(John Lightfoot, 1602–1675)도 독자적인 계산을 통해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구체적인

수치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 틀은 지구의 생성 연대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른바 '젊은 지구'(young earth) 관점이었으며, 이는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세계관이었다.

이 시기의 젊은 지구 관점은 단순히 신앙적 편견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당대의 지적 풍토에서 볼 때, 창세기의 역사적 기록을 문자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는 종교적 신념인 동시에 합리적 판단이기도 하였다. 고대 문명의 기록들, 곧 이집트, 바빌론, 그리스의 역사 문헌들도 인류의 역사를 수천 년 단위로 기술하고 있었으며, 수억 년의 지질학적 시간을 전제하는 사고방식은 등장하지 않았다. 성경의 연대기는 당시 알려진 모든 역사적 기록들과 대체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까지는 비신앙인들조차 '흙덩어리에서 생명이 우연히 나와 사람이 되었다'는 식의 진화론적 사고를 본격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자연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종은 변하지 않고 고정적이다."(Fixity of species)라는 견해가 거의 상식에 가까웠다.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Carl Linnaeus, 1707–1778)는 종의 분류 체계를 수립하면서 각 종이 창조된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을 전제로 삼았다. 프랑스의 자연사학자 뷔퐁(Comte de Buffon, 1707–1788)이 지층 연구를 통해 지구의 연령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고, 라마르크(Jean-Baptiste Lamarck, 1744–1829)가 용불용설[1]을 통해 종의 변화 가능성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학계의 주변부에 머물렀을 뿐 당시의 지적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였다.

라마르크


찰스 다윈

1. 표준국어대사전은 '용불용설'(用不用說)을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서 잘 발달하고, 그러지 못한 기관은 점점 퇴화하여 소실되어 간다는 학설로, 1809년에 라마르크가 제창하였으며 이러한 발달과 미발달은 자손에게 유전된다고 보는 이론"이라고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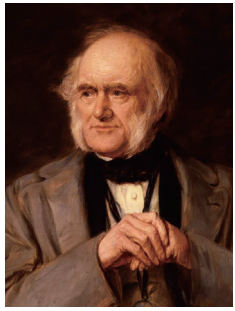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이 1859년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을 출판하기 이전까지, 젊은 지구와 종의 고정성은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가 공유하던 지적 공통분모였다. 간극 이론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 오랜 공통 인식을 무너뜨리는 외부 압력, 곧 균일론적 지질학과 진화론의 도전이 먼저 있어야 했다. 그 도전은 바로 19세기에 본격화되었다.

계몽주의, 균일론, 그리고 '수억 년'의 등장

18세기 후반부터 인본주의와 이성주의가 부상하고, 지질학과 천문학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오랫동안 유지되던 이러한 공통 인식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계몽주의의 물결은 단순히 철학과 정치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자연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으며, 성경의 역사적 기록을 자연 탐구의 전제로 삼던 오랜 관행은 점차 비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밀려났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계시가 자연 탐구의 출발점이 되던 시대에서 인간의 이성과 관찰이 모든 지식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어 가던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 흐름 속에서 지질학 분야에 가장 강력한 도전이 제기되었다. 제임스 허턴(James Hutton, 1726–1797)과 찰스 라이엘(Charles Lyell, 1797–1875) 등이 주장한 균일론(동일과정설, uniformitarianism)은 '현재 관찰되는, 서서히 진행되는 자연 과정들이 과거에도 항상 동일하게 작용하였다'는 전제를 세운 이론이다.

제임스 허턴


찰스 라이엘

허턴은 스코틀랜드의 지층을 연구하면서 암석의 퇴적과 침식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항상 진행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1788년

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의 역사에는 "시작의 흔적도, 끝의 전망도 없다."(No vestige of a beginning, no prospect of an end.)라고 선언하였다.

라이엘은 이 사상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1830년부터 1833년까지 여러 권으로 출판된 「지질학의 원리」(*Principles of Geology*)에서 체계화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거대한 지층과 산맥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수천만 년, 수억 년, 심지어 수십억 년의 시간 혹은 '가늠할 수 없는 긴 세월'(indefinitely long age)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전 지구적 홍수와 같은 대규모 사건을 통해 지층이 형성되었다는 이론인 격변론(catastrophism)은 이 새로운 지질학 앞에서 설 자리가 없어져 갔다. 균일론적 지질학은 처음부터 단순한 과학 이론이 아니라 철학적 세계관에 가까웠다. '모든 것이 항상 동일한 자연 법칙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는 전제는 초자연적 개입으로서의 창조와 홍수를 처음부터 부정하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라이엘이 창세기의 홍수 기록을 지질학적 설명에서 제거하려 하였음은 그의 서신과 저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균일론은 과학의 언어로 포장되었지만, 그 심층에는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을 해체하려는 세계관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

여기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더해지면서, 지구의 나이가 약 6,000년이라는 전통적 기독교 연대관은 '비과학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다윈은 비글호 항해에서 당시 라이엘의 「지질학의 원리」를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며 깊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균일론이 제시한 장구한 시간 개념은 그의 사고에 결정적인 토대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수억 년의 시간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은 성립할 수 없었다. 두 이론은 서로를 지탱하며 기독교적 세계관 전체에 강력한 도전을 가하였다.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초자연적 특별 창조, 아담의 역사성, 전 지구적 홍수와 같은 교리들은 정면으로 도전받기 시작하였다. 교육받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새로운 과학적 권위 앞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심각한 혼란과 동요가 일어났다.

베드로는 이미 이와 같은 시대적 현상을 예언하였다. 베드로후서 3장 3-4절은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같이 그대로 계속된다."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것은 정확히 균일론의 핵심 명제이다. 모든 것이 항상 동일하게 계속되어 왔다는 주장, 즉 초자연적 개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베드로가 경고한 마지막 때의 조롱하는 자들의 논리였다. 그런데 이제 그 균일론적 사고가 교회 안팎에서 동시에 힘을 얻게 되었다. 밖에서는 과학의 이름으로, 안에서는 타협과 적응의 이름으로 성경의 역사적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간극 이론은 바로 이 흔들림의 한가운데서 태어났다.

간극 이론: 오래된 지구와 문자적 6일 창조를 동시에 지키려는 시도

균일론적 지질학과 진화론의 충격 앞에서 19세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택한 대응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성경기록을 그대로 고수하며 새로운 과학 이론에 맞서는 길이었다. 둘째는 창세기의 역사적 기록을 신화나 상징으로 재해석하여 진화론과 완전히 타협하는 길이었다. 셋째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성경의 권위도 지키고 지질학의 요구도 수용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였다. 간극 이론은 이 세 번째 길에서 생겨났다.

토머스 찰머스

이 이론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안한 인물은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토머스 찰머스(Thomas Chalmers, 1780-1847)였다. 그는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가르치던 저명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였으며, 동시에 허턴과 라이엘의 지질학적 발견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지식인이었다. 찰머스는 1814년 강의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처음

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와 1장 2절의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사이에 광대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와 창세기 1장 2절 사이의 알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지질학적 시대들이 전개되었으며, 이후 하나님께서 혼돈 상태가 된 땅을 6일 동안 재창조 혹은 재정비하셨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지질학이 요구하는 수억 년의 시간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간극 속에 배치함으로써 문자적 6일 창조도 지키고 오래된 지구도 수용하는 일석이조의 해법처럼 보였다.

찰머스의 제안은 이후 여러 신학자가 다듬고 확장하였다. 특히 영국의 저술가 조지 펨버(George H. Pember, 1837–1910)는 1876년 출판한 「지구의 초기 시대들」(*Earth's Earliest Ages*)에서 이 이론을 성경 신학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펨버는 창세기 1장 2절의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가 단순한 미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며, 그 원인으로 사탄과 그를 따른 천사들의 반역을 제시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에서 사탄이 반역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창세기 1장 2절은 바로 그 심판 이후의 상태를 묘사한다는 것이다.

펨버는 더 나아가 창세기 1장 1절의 최초 창조 세계 안에 아담 이전의 종족, 즉 '선(先)아담 인류'(Pre-Adamic race)와 그들의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까지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선아담 시대의 존재들'은 루시퍼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육체를 잃게 되었고, 몸을 잃은 그 영들이 이후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 거처를 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 들림 현상이 바로 이 몸 없는 '선아담 영들'의 활동이라는 설명이 여기에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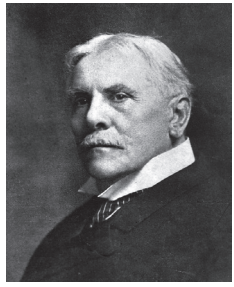
이 주장은 성경 어디에도 명시적 근거가 없는 순전한 추론이다. 그러나 바로 그 신비롭고 극적인 서사가 이 이론의 강력한 대중적 호소력의 원천이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짧은 간격이 루시퍼의 반역, 우주적 심판,

'선아담 문명'의 멸절,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마귀 들림의 기원을 한꺼번에 설명하는 거대한 이야기로 부풀려진 셈이다. 「지구의 초기 시대들」은 당시 복음주의 독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읽혔으며, 이야기로서의 풍부함과 신학적 형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간극 이론이 단순한 연대 조정 가설을 넘어 하나의 성경 해석 체계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찰머스가 제안하고 펨버가 신학적으로 다듬은 이 이론은, 이제 대서양을 건너 20세기 미국 근본주의 진영의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인물을 만나면서 수백만 성도들의 손에 들린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20세기 스코필드, 라킨, 그리고 보수 진영의 '표준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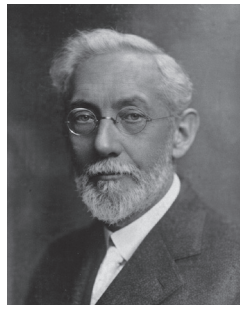
20세기 초에는 찰머스와 펨버가 뿌린 씨앗이 미국 근본주의 진영 전체로 퍼져 나가는 시대가 열렸다. 그 확산의 중심에는 두 인물과 그들의 저술이 있었다.


C. I. 스코필드

먼저 C. I. 스코필드(C. I. Scofield, 1843–1921)의 「스코필드 주석 성경」(*Scofield Reference Bible*, 1909)은 20세기 초 미국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널리 읽힌 성경이었다. 스코필드는 창세기 1장의 각주에서 간극 이론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창세기 1장 2절의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가 원래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 이후의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 성경 공부 모임에서 스코필드 성경이 펼쳐질 때마다 간극 이론은 그 각주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다.

별도의 논문이나 신학 서적을 접하지 않은 평범한 성도들도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간극 이론을 접하게 되었다. 스코필드 성경의 권위와 함

께, 간극 이론은 어느새 '성경을 진지하게 믿는 보수 신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해석'이라는 위상을 얻어 갔다.[2]


클라렌스 라킨

클라렌스 라킨(Clarence Larkin, 1850–1924)은 여기에 결정적인 시각적 설득력을 더하였다. 그는 「세대주의 진리」(*Dispensational Truth*, 1918)와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읽기」(*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1920)[3] 등의 저서에서 창세기를 '창조–파멸–재창조'의 구조로 설명하는 정교한 도표들을 제시하였다.

그의 도표들은 루시퍼의 타락과 우주적 심판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일어났고, 그 결과 지구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히브리어 'tohu wabohu') 상태가 되었다가 1장 3절 이하에서 다시 복구된다는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다. 복잡한 신학적 근거를 읽지 않아도, 도표 하나로 전체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단순명료한 시각적 호소력은 대단하였고, 라킨의 도표들은 이후 수십 년 동안 근본주의 진영의 강단과 교실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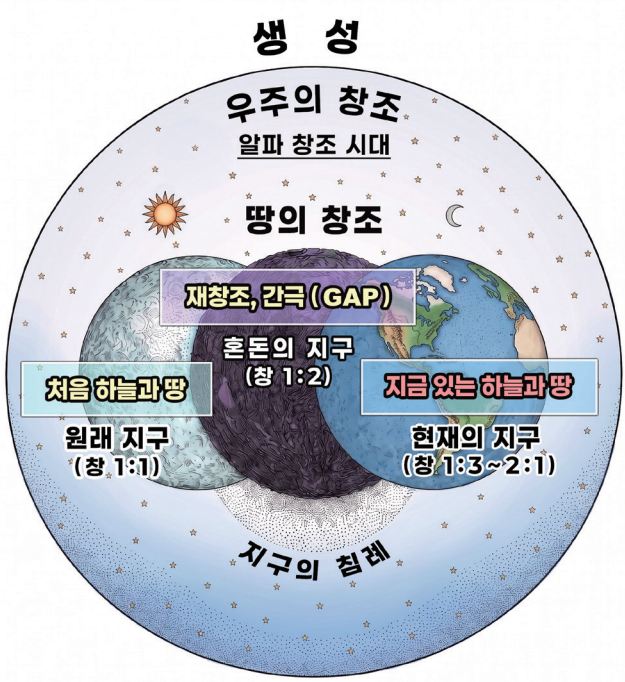
라킨의 체계에서 간극 이론은 단순한 연대 조정 가설의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이른바 '루시퍼 홍수'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선(先)아담 시대'의 우주

2.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개정판인 「뉴 스코필드 주석 성경」(*New Scofield Reference Bible*, 1967)은 원래 1909년판의 간극 이론 지지 각주를 상당 부분 후퇴시켰다.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각주에서 간극 이론을 확정적으로 지지하던 표현들이 약화되었고, 이 해석이 여러 가능한 견해 중 하나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다시 말해, 간극 이론을 대중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스코필드 주석 성경」 자체가 후대 개정 과정에서 그 입장을 스스로 완화하였다. 이 사실은 간극 이론이 킹제임스 성경 신앙의 불가분한 요소가 아니라, 수정되고 재검토될 수 있는 하나의 해석적 제안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3. 국내에서는 1998년 3월 「다시 보는 성경」(*Rightly Dividing the Word*)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나 이후 절판되었다. 2023년 5월 세대주의를 보완 설명하고, 조지 젤러(George Zeller)의 「세대주의 바로 알기」를 추가하여 「성경 바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재출간되었다(https://www.keepbible.com/Pds1-6/View/4S5).

적 문명과 그 심판, 마귀들이 몸을 잃은 영이 되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거처를 정하려 한다는 설명까지 덧붙여지면서, 간극 이론은 마귀론, 천사론, 우주론을 아우르는 거대한 신학 체계로 발전하였다.

〈그림〉 라킨의 재창조 도표(추측과 상상)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짧은 간극이 이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었다. 성경 어느 곳을 펴도 이 체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피터 럭크만(Peter Ruckman, 1921–2016)은 이 흐름의 직접적인 계승자였다. 그는 라킨과 스코필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간극 이론을 열정적으로 옹호하였으며,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KJV-onlyism)와 간극 이론, 그리고 극단적 세대주의를 하나의 묶음으로 결합하여 독특한 신학 체계를 세웠다. 럭크만의 특이한 점은 이 이론을 단순히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진정한 성경 신자의 판별 기준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피터 럭크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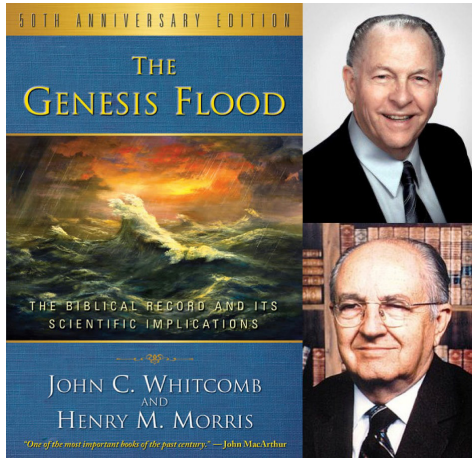
그 결과 간극 이론은 하나의 해석 제안에서 신앙의 판별 기준으로 굳어졌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이 폐해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근본주

의 진영 안에서 깊은 분열과 상처로 이어졌다.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많은 보수 복음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창조 – 간극 – 재창조'를 창세기의 기본 구조로 받아들였다. 창조과학이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성경을 수호하면서도 과학이 말하는 오래된 지구를 인정하는 가장 보수적인 해법'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 인식은 곧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창조과학의 부상과 간극 이론의 쇠퇴

1961년 존 휫컴(John C. Whitcomb, 1924–2020)과 헨리 모리스(Henry M. Morris, 1918–2006)가 「창세기 홍수」(*The Genesis Flood*)를 출간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이 책은 '지질학이 요구하는 오래된 지구'라는 전제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저자들은 수억 년의 지질학적 시간을 요구하는 균일론적 전제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적 가정임을 논증하며, 방대한 지질 자료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지구 대부분의 퇴적층과 화석이 수억 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전 지구적 홍수가 일어난 약 1년 동안 형성되었다는 홍수지질학(flood geology)이었다.



「창세기 홍수」와 공동 저자인 구약학자 존 휫컴(위), 미국 창조연구학회 설립자 헨리 모리스

이 책은 출간 즉시 근본주의 신학자들과 과학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후 수백만 부가 팔리면서 20세기 기독교 지성사에서 가장 영향

력 있는 저술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책을 계기로 현대 창조과학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3년에는 창조연구학회(Creation Research Society)가 설립되었고, 1970년대 이후에는 창조과학연구소(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가 체계적인 연구와 출판, 교육 사역을 통해 젊은 지구 창조론의 과학적·신학적 기반을 다져 나갔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근거들을 통해, 수억 년 지구라는 전제를 거부하는 '젊은 지구 창조론'(young-earth creationism)이 보수 진영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제 더 이상 오래된 지구를 수용하기 위해 성경을 재해석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오래된 지구라는 전제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맞추어 성경을 조정하려 했던' 중도 타협 이론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갔다. 대표적으로 '간극 이론'과 '날-시대 이론'(day-age theory)[4]은 창조과학의 부상과 함께 성경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라 19세기 세속 과학의 압력에 굴복한 타협의 산물로 재평가되기 시작하였다. 간극 이론을 지지했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이론이 성경 본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지질학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성경 본문을 끌어다 쓴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점차 늘어났다.

동시에 간극 이론의 성경 해석과 언어학적 전제들도 집중적인 비판에 직면하였다. 창세기 1장 2절의 히브리어 동사 해석, '토후 와보후'(tohu

4. '날-시대 이론'(day-age theory)은 창세기 1장의 '날'(day)을 문자적인 24시간이 아니라 수천만 년 혹은 수억 년에 걸친 긴 지질학적 시대로 해석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 역시 균일론적 지질학과 진화론이 요구하는 오래된 지구를 성경 안에 수용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타협안으로, 간극 이론과 그 동기는 같지만 방법이 다르다. 간극 이론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긴 시간을 집어넣는 방식을 택하였다면, '날-시대 이론'은 창세기 1장의 여섯 날 자체를 긴 시대로 늘리는 방식을 택하였다. 대표적 지지자로는 천문학자 휴 로스(Hugh Ross)가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 '욤'(yom)이 숫자와 함께 사용될 때는 예외 없이 문자적 하루를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이 안식일의 근거로 문자적 6일 창조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이 이론 역시 성경 본문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wabohu)의 의미, 'replenish'의 17세기 영어 용례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이론이 성경 본문 자체의 요구라기보다는 지질학 및 진화론과 타협하려는 신학적 동기에서 나온 가설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히브리어 문법학자들과 구약 성경 학자들의 연구는, 간극 이론이 전제하는 방식으로 창세기 1장 2절을 읽는 것이 문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이론의 핵심 언어학적 기둥들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이론 전체의 신빙성도 함께 흔들렸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근거는 이 책의 2부에서 본문별로 다룰 것이다.

그 결과 21세기에 들어서는 미국과 영국의 대부분의 근본주의·복음주의 창조론 진영에서 간극 이론은 사실상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한때 '성경을 지키면서도 과학(진화론이라는 거짓 과학)을 수용하는 가장 보수적인 해법'으로 여겨지던 이 이론은, 이제 균일론적 지질학이 강요한 압력 앞에서 성경을 지키려다 오히려 성경을 조정한 역사적 실패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주로 고령 세대나 피터 럭크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소수 집단 안에서만 부분적으로 유지되는 정도로 축소된 상태이다. 그러나 그 소수의 목소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는 소수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글을 쓰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간극 이론의 언어학적·본문적 전제 검토

창조과학 운동의 부상과 함께, 간극 이론이 근거로 삼아 온 언어학적·성경적 전제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이 이론의 핵심 주장들이 성경 본문 자체의 요구가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온 가정 위에 세워진 것임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첫 번째 문제는 창세기 1장 2절의 히브리어 문법이다. 간극 이론이 성립하려면 이 절의 동사 하야(hayah)를 '있었다'(was)가 아니라 '되었다'(became)

로 읽어야 하는데, 히브리어 문법학자들의 연구는 이 절이 상태를 묘사하는 명사절 구조임을 일관되게 보여 준다. 이 구조는 사건의 발생이 아니라 배경 상태를 서술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번역을 문법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제는 replenish의 역사적 의미이다. 여러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단어를 '다시 채우라'로 읽어 이전 인류의 존재를 주장하는 논거로 삼아 왔으나, 17세기 영어 용례와 히브리어 원문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 단어는 당시 "가득 채우다"를 의미하였음이 밝혀졌다. "다시 채우다"라는 의미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이 아니라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었다.

세 번째 문제는 바라(bara)와 아사(asah)의 인위적 구분이다. 간극 이론은 '창조하다'(bara)와 '만들다'(asah)를 절대적으로 다른 행위로 나누어, 출애굽기 20장 11절의 6일 창조 선언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최초 창조를 제외하려 하였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이 두 동사를 동일한 창조 사건 묘사에 자유롭게 교차 사용하며, 그 구분이 이 이론에서 요구하는 만큼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 언어학적 전제들이 흔들리면서, 간극 이론은 성경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라기보다 19세기 이후 과학 담론과의 타협 과정에서 형성된 가설이라는 평가가 점점 더 힘을 얻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본문별 상세 근거는 2부에서 다룬다.

한국 교계에서의 수입과 변형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피터 럭크만(Peter Ruckman)의 영향을 받은 일부 목회자와 출판 단체를 통하여, 간극 이론이 '정통 킹제임스 성경 신앙'의 필수 요소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말씀보존학회(바이블마스터)는 럭크만 주석 성경과 관련 번역서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의 replenish를 '다시 채우라'로 번역하여 간극 이론을 뒷받침하는 해석을 확

산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 번역은 성경 번역 역사 전체를 통틀어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킹제임스 성경을 포함하여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주요 언어의 성경 번역본 가운데 이 단어를 '다시 채우다'로 옮긴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번역상의 선택이라기보다 특정 이론을 전제한 해석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이 단체와 관련 인사들은 우주가 '창조 – 파멸 – 재창조'의 세 단계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재창조설, 곧 간극 이론(Gap Theory)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성경 신자가 아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등으로 비판하며 공격적·배타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극단적 언사와 이단·정통 여부에 대한 단정적 규정은 관련 논쟁을 심화시켰으며, 간극 이론이 한국의 여러 장로교 교단에서 이설 또는 이단적 성향의 견해로 규정되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영국 등지의 근본주의·창조론 진영에서는 20세기 말까지 간극 이론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약화되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번역과 출판을 통하여 시간차를 두고 유입된 이 이론이 오히려 새롭게 부각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한국창조과학회 등 젊은 지구 창조론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간극 이론이 성경 본문과 과학적 자료 모두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아의 전 지구적 홍수와 젊은 지구 모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왔다.

평가: 역사적 산물로서의 간극 이론

간극 이론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성경적 교리'가 아니라, 18–19세기에 걸쳐 등장한 오래된 지구 개념, 진화론, 균일론과 전통적인 문자적 6일 창조 이해를 동시에 유지해 보려는 신학적 타협 시도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이 이론은 한때 보수 진영에서 진화론과 맞서기 위한 일종의 임시방편으로 널리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창조과학 운동의 발전과 성경 언어 연구의 진전으로, 그 전제와 해석학적 기초가 약하다는 점이 점차 드러나면서 영향력을 잃어 갔다.

이 평가는 여러 분야의 연구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수렴된 결론이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히브리어 문법과 어휘, 곧 토후 와보후(tohu wabohu)에 대한 정밀한 분석, 그리고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의 말레(male')에 대한 역사적 용례 연구는 간극 이론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해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왔다. 킹제임스 성경 시대의 17세기 영어 용례 연구는 replenish가 '다시 채우다'가 아니라 단순히 '가득 채우다'를 의미하였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창조와 홍수에 대한 성경 전체의 일관된 증언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수억 년의 간극을 삽입할 어떤 여지도 남겨 두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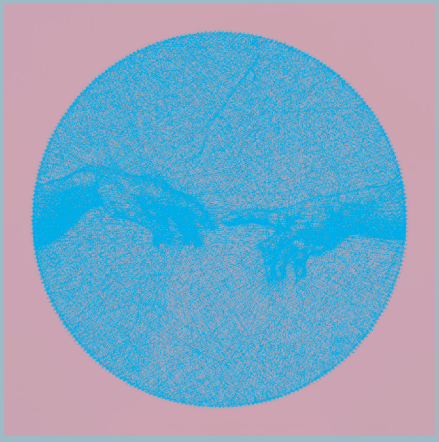
그리고 노아의 전 지구적 홍수와 젊은 지구를 지지하는 과학적 자료들에 대한 재검토는 오래된 지구를 수용하기 위해 성경을 조정할 필요 자체가 없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간극 이론은 '성경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라기보다 성경 본문 위에 후대의 과학 담론과 오해된 언어학 자

료를 덧입힌 가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 교계가 이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것은 클라렌스 라킨, 스코필드, 피터 럭크만 같은 특정 인물들에 대한 맹목적 추종도 아니고 감정적 비난도 아니다. 그 대신 히브리어·그리스어 성경 본문에 대한 정밀한 주해와 킹제임스 성경 시대의 역사적 언어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질학·천문학·생명 과학 자료에 대한 공정한 검토, 그리고 성경과 과학의 조화를 시도해 온 다양한 견해들의 역사적 배경과 한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도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접근을 취할 때 간극 이론은 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설득력을 상실한 하나의 과도기적 타협 모델로서 그 역사적 맥락 안에서 바르게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이 책의 2부에서는 간극 이론이 근거로 삼는 성경 본문들을 하나하나 직접 검토하면서, 그 주장들이 본문 자체의 요구인지 아닌지를 따져 볼 것이다. 3부에서는 간극 이론이 단순한 해석 문제를 넘어 죄와 사망의 기원, 그리스도의 속죄, 복음의 논리적 구조 전체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교리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Part 2



간극 이론의 열한 가지 성경적 오류

Part 2

간극 이론의 열한 가지 성경적 오류

1부에서는 간극 이론이 어떻게 탄생하였고, 어떤 경로를 통해 확산되었으며, 왜 과거 역사의 잘못된 산물로 평가받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2부에서는 역사적 논의를 넘어 성경 본문을 직접 대면하고자 한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대개 특정 성경 본문의 해석에서 출발한다. 창세기 1장 2절의 히브리어 동사, 창세기 1장 28절의 영어 단어, 그리고 이사야서·예레미야서·에스겔서 및 베드로후서의 몇몇 구절들이 이 이론을 떠받치는 성경적 기둥으로 제시된다. 과연 이 기둥들이 이론을 견고히 지탱하는지, 아니면 본문의 맥락과 문법을 벗어난 인위적 추가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2부의 목적이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성경의 모든 본문은 반드시 해당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의 용례를 기준으로, 영어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된 17세기의 언어 관습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특별한 기법이 아니라 건전한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이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살피면 간극 이론을 지탱하는 근거들이 얼마나 견

고한지 아닌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어지는 열한 가지 논의는 성경 본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설득력이 강화되는 순서로 배열하였다. 먼저 언어학적·문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이어서 본문의 실제 맥락을 살피며, 마지막으로 간극 이론을 결정적으로 반박하는 성경 본문들을 제시할 것이다.

《 재창조 간극 이론 문제 • 1 》

창세기 1장 2절의 was는 became이 아니다

간극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 있다. 창세기 1장 2절의 첫머리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에서 'was'를 'became'으로 번역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간극 이론의 전체 구조가 사실상 이 번역 하나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이어지는 2절에서는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로 묘사된다. 만일 이것이 단순히 최초 창조 직후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라면(was로 읽을 경우), 원래 완전했던 창조 세계가 루시퍼의 반역으로 황폐하게 되었다는 간극 이론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따라서 이 구절을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became)로 읽어야만, 완전했던 창조와 공허 사이에 심판과 파괴의 사건을 끼워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언어학적 근거나 성경 본문의 용례,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KJV)의 권위를 내세우는 입장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킹제임스 성경의 증언: 'was'는 'was'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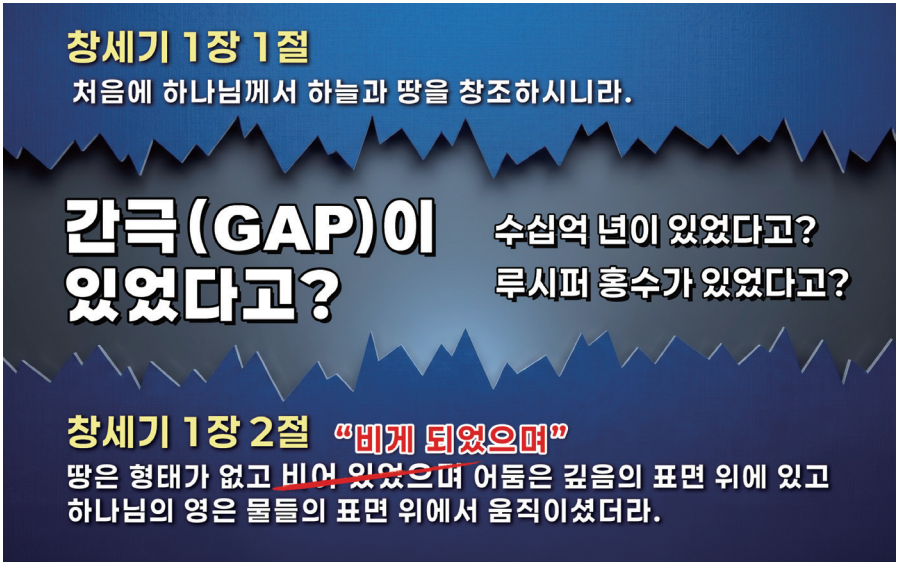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으면서도 간극 이론을 옹호하고자 그 번역

을 수정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을 분명히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라고 번역하였다. '되었다'(became)가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있었다'(was)이다.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동사 하야(hayah)를 정밀하게 다룰 줄 알았던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었다. 그들이 'became'이 아니라 'was'를 선택한 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문맥과 문법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의 결과이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에 맞서 히브리어 원문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창세기 19장 26절에서 "그[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와 같이 하야(hayah)가 'became'으로 번역된 사례를 들어, 창세기 1장 2절 역시 'became'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언어학의 기본 원칙에서 어긋나는 논리이다. 어떤 단어가 특정 문맥에서 특정 의미로 쓰인다는 사실이, 모든 문맥에서 동일하게 번역해야 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하야(hayah)가 어떤 문맥에서 '되었다'로 번역될 수는 있지만,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번역

〈그림〉 재창조의 간극과 루시퍼 홍수(추측과 상상)



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번역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문법적 증거가 뒤따라야 하지만, 실제 히브리어 문법은 간극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명사절과 동사절의 결정적 차이

문법 구조를 살피면 쟁점은 더욱 선명해진다. 간극 이론이 성립하려면 창세기 1장 2절은 시간의 흐름과 사건의 전개를 보여 주는 동사절(verbal clause)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창 1:3),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창 1:7) 같은 구절은 행동과 변화를 보여 주는 전형적인 동사절이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은 동사절이 아니라 명사절(noun clause)이다. 명사절은 주어와 명사 성격의 서술어로 구성되며, 사건의 발생이 아니라 상태를 보여줄 뿐이다. 예를 들어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심히 큰 죄인들이었더라."(창 13:13)는 그들이 어느 순간 악하게 '되었다'는 변화를 말하는 문장이 아니다. 그들의 원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기록이다.

창세기 1장 2절 역시 같은 구조로서 땅의 상태, 즉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는 상태를 서술할 뿐이다. 이는 어떤 변화나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문장이 아니다.

접속사 와우(waw)의 기능

더 결정적인 증거는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waw)에 있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를 '그다음에'라는 시간적 의미를 가진 '연속적 와우'(consecutive waw)로 이해한다. 1절의 사건 이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2절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의 와우(waw)는 '연속적 와우'가 아니다. '연속적 와우'는 동사에 직접 붙어 앞선 사건에 이어지는 다음 사건을 나타낸다. 반면 1장 2절의 와우(waw)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 곧 '땅'(eretz, 에

레츠)에 붙어 있다. 이는 시간의 흐름을 끊고 앞선 내용에 대한 보충 정보를 제공하는 '분리적 와우'(disjunctive waw)이다.

이 구조는 앞 절의 내용을 시간적으로 이어 가는 대신,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이나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히브리어 문법학자인 브루스 K. 월트키(Bruce K. Waltke, 1930-)를 비롯하여, 폴 조우온(Paul Joüon, 1881-1940)과 타카미츠 무라오카(Takamitsu Muraoka, 1938-) 등의 권위 있는 문법학자들 역시 이 구절을 배경 상태를 설명하는 절로 분석한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은 1절 이후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을 기술하는 문장이 아니라, 1절에서 창조된 땅의 초기 상태를 묘사하는 보충 설명이다. 이 문법적 사실 하나만으로도 'was'를 'became'으로 바꾸어 간극을 삽입하려는 시도는 본문 구조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웨스턴 W. 필즈(Weston W. Fields, 1945-)가 내린 결론은 간결하고 명확하다.

> "만일 창세기 1장 2절이 주동사와 동시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설명적 상황절 곧 명사절이라면, 그 구절을 주동사의 행동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건이나 변화를 묘사하는 절로 이해하기란 문법적으로 불가능하다."[1]

창세기 1장 2절이 1절 이후에 어떤 파멸이 일어났음을 기록한다고 보려면, 그 문장은 반드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사건을 전개하는 동사절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구조는 상태를 설명하는 명사절이다.

결국 창세기 1장 2절을 "그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읽어, 1절과 2절 사이에 장구한 시간과 우주적 심판을 삽입하려는 시도는 문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는 해석상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문장 구조 자체가 허용하지 않는 한계이다.

---

1. Weston W. Fields, 「Unformed and Unfilled: A Critique of the Gap Theory」(Collinsville, IL: Burgener Enterprises, 1976), pp. 85-86. 원문 강조.

성경 본문의 용례: '이접적 구절'[2]의 기능과 실례

문법 이론에 그치지 않고 성경 본문 자체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 근거는 더욱 견고해진다. 창세기 1장 2절과 동일한 구조인 이른바 '이접적 구절'(disjunctive clause, 배경 설명 문장)은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그 기능 또한 한결같다. 행동의 서술이 잠시 멈추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기 전, 관련 인물이나 장소의 상태를 독자에게 미리 알려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창세기 2장 11–13절을 보자.

11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니라. 그것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12 그 땅의 금은 좋고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 보석이 있느니라.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바로 그것은 에티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니라."라고 언급한 뒤 곧바로 둘째 강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한 절 반에 걸쳐 하윌라 땅의 금과 귀한 물질들에 대한 설명이 삽입된다. 이는 시간의 흐름을 이어 가는 사건 서술이 아니라, 독자에게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이접적 구절이다. 이러한 배경 설명이 끝난 뒤에야 둘째 강이 소개된다. 사무엘기상 4장 14–16절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나타난다.

14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소동하는 소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니 그 사람이 속히 들어와 엘리에게 고하니라.
15 그런데 엘리는 구십팔 세여서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더라.
16 그 사람이 엘리에게 이르되, 나는 군대에서 나온 자니이다. 내가 오늘 군대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매

2. 본래 히브리어 및 영어 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영어로는 'disjunctive clause'라 한다. 이야기의 흐름, 곧 사건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독자에게 관련 인물·장소·상황의 배경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쉽게 말해, "그런데 그때 ○○의 상태는 이러하였다."라는 형식의 삽입 설명문이다. 이 구절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접적 구절에 나오는 동사는 변화나 동작이 아닌, 당시의 상태를 나타낸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엘리에게 도달하기 직전, "그런데 엘리는 구십팔 세여서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다."라는 설명이 삽입된다. 이 구절은 엘리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어둡게 '되었다'는 변화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엘리의 신체 상태를 알려 주는 배경 설명이다.

요나서 3장 3-4절의 용례는 창세기 1장 2절과 더욱 직접적으로 대비된다.

3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는데 당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4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룻길을 다니기 시작하며 외쳐 이르되,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엎어지리라, 하니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한 뒤 도시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에 관한 설명이 이접적 구절로 삽입된다. 이때 "니느웨는… 심히 큰 도시더라(was)."에서 아무도 'was'를 'became'으로 읽지 않는다. 만약 "니느웨는 심히 큰 도시가 되었더라."라고 읽는다면 문맥상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2절도 동일한 구조이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was)."라는 진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째 날 명령을 시작하시기 전, 독자에게 그 땅의 초기 상태를 일러 주는 배경 설명이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예외적인 특수 구문이 아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구조는 일관되게 작용한다. 행동 서술이 잠시 멈추고 다음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나 상태 설명이 주어지며, 그 후 서술이 재개되는 방식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된 후, 2절에서 그 땅의 상태가 설명되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는 첫 번째 창조 명령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이 패턴과 정확히 일치한다.

결론: was를 became으로 바꾸는 것의 결과

언어는 임의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was'를 'became'으로 바꾸려 시도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번역 선호 이상의 문제가 담겨 있다. 이는 문법 구조를 무시하고, 성경 전체의 일관된 용례를 거스르며,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신중한 판단을 뒤집는 행위이다. 더 본질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본문에서 의미를 길어 올리는 '바른 해석'(exegesis, 주해)이 아니다. 이미 세워 둔 이론적 결론을 정당화하려 외부에서 만든 의미를 본문 안으로 밀어 넣는 '자의적 해석'(eisegesis, 억지 해석)일 뿐이다. 간극 이론은 성경에서 발견된 결과가 아니라, 성경 안에 인위적으로 심은 가설이다.

창세기 1장 2절은 문법과 구조, 그리고 성경 전체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창조 직후 땅의 초기 상태를 묘사하는 이접적 명사절, 즉 배경 설명 문장이다. 문법과 문맥에 충실한 이 명백한 읽기 방식을 거부하고 'became'을 도입하는 순간, 성경 본문이 말하지 않는 수억 년 혹은 수십억 년의 간격과 루시퍼의 반역, 전 지구적 파멸이 두 절 사이에 삽입된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절과 절을 따라 읽어야지, 절 사이의 빈 공간을 상상으로 채워 넣으며 읽어서는 안 된다. 성경기록은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고, 기록하지 않은 것에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두 절 사이에 어떤 거대한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명백한 본문적 근거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하고, 이어지는 2절에서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라고 그 배경 상태를 설명한다. 그 사이에 우주적 반역이나 심판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본문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상상으로 보충하는 순간, 우리는 주해가 아니라 추측을 하는 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석의 자유를 주지만, 상상의 자유까지 주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무줄이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대로 '있었다'(was)는 '있었다'(was)일 뿐이며, 결코 '되었다'(became)가 될 수 없다.

《 재창조 간극 이론 문제 • 2 》

창세기 1장의 '그리고'(And)는 간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And' 한 단어에서 간극을 찾으려는 시도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동원하는 뜻밖의 논거 중 하나는 창세기 1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접속사 'And'이다. 얼핏 보기에 단순한 연결어에 불과한 이 단어가 그들의 체계에서는 수억 년 혹은 수십억 년의 시간 간격을 떠받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그들의 논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창세기 1장은 2절부터 31절까지, 27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절이 'And'로 시작한다. 그들은 이 'And'를 앞선 사건에 이어 다음 사건이 시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전개됨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이해한다. 따라서 1절의 창조 행위에 'And'로 연결되는 2절은, 1절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전개된 새로운 상황을 서술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상황이란 곧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한 세계의 황폐화라고 주장하며, 1절과 2절 사이에 수억 년 혹은 수십억 년의 간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를 세운다.

근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일부 지지자는 더 나아가 한국어 흠정역 성경이 영어 KJV의 'And'를 매절마다 직역하지 않고, 권위체인 '~니라'의 문체로 처리함으로써, 독자들이 재창조의 연속적 흐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즉, 한국어 번역이 의도적으로 재창조의 단서를 희석시켰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해석상의 차이를 넘어 번역 자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닌다. 첫째는 영어 'And'가 지닌 의미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제한하여 해석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창세기 1장이 실제로 어떠한 문체적 구조와 서술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어 번역에 대한 비판 역시 원문의 문체적 성격과 히브리 서술 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2. 'And'는 시간적 순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And'가 오직 시간적 순서와 연속성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이 단어의 실제 용례를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이다. 영어 사전을 살피면 'And'는 문맥에 따라 매우 폭넓은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그 주요 기능을 범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 나열의 기능이다. 두 어구나 절을 병렬로 이으며 '~와, ~및, 그리고'의 의미를 나타낸다.

둘째, 동시성 또는 연속성을 표현하는 기능이다. 문맥에 따라 '~하면서', '~와 동시에', 혹은 '~하고 나서'의 의미를 지닌다.

셋째, 결과나 귀결을 나타내는 기능이다. '그러자', '그래서', '그 결과'라는 논리적 인과관계를 표현한다.

넷째, 강조나 부연의 기능이다. '더구나', '그뿐만 아니라'와 같이 내용을 덧붙인다.

다섯째, 반복과 점증을 나타내는 기능이다. '~한 위에 또', '~이고 더욱'과 같이 앞선 내용을 강화한다.

여섯째, 의외성이나 반어적 뉘앙스를 드러내는 기능이다.

일곱째, 조건적 연결을 형성하는 기능이다. 명령문 뒤에서 '그렇게 하면'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처럼 'And'는 단일한 의미로 고정된 기계적 기호가 아니며, 최종적인 의미는 항상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 다양한 용례 중 오직 시간적 전후 관계만을 선택하여 창세기 1장 전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창세기 1장의 서술 문맥에서 'And'를 결과적 의미로 이해함

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러자' 혹은 '그 결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고 읽는 것은 문법적으로나 문맥상으로도 자연스럽다. 이는 시간적 단절을 암시하는 서술이라기보다, 창조 직후의 상태를 설명하는 배경 진술로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한 단어가 지닌 여러 용례 중 하나만을 골라 모든 문맥에 강제로 적용하고, 그 위에서 신학적 결론을 도출함은 정당한 해석 방법이라 할 수 없다. 특정 용례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곧 그 용례를 해당 문맥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의미는 사전적 가능성이 아니라 문맥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마땅하다.

창세기 1장의 문맥은 시간적 단절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창조 사역이 질서 있고 단계적이며 연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And'는 그 흐름을 이어 주는 문체적 연결 장치일 뿐, 수억 년 혹은 수십억 년의 간극을 암시하는 비밀 기호가 아니다.

3. 창세기 1장의 'And' 반복은 폴리신데톤이다

창세기 1장의 문체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접속사의 반복은 단순한 연결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수사학적으로 이를 '폴리신데톤'(polysyndeton)이라 부른다. 폴리신데톤은 접속사를 의도적으로 반복 사용함으로써 서술에 장중함과 리듬을 부여하고, 각각의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통일된 흐름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문학적 장치이다.

창세기 1장에서 "And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And 하나님께서 보시니…", "And 저녁과 아침이…"라고 이어지는 반복 구조는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이는 창조의 각 단계가 독립적이거나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창조 사역 안에서 질서 있게 맞물려 있음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중요한 반문이 제기된다. 만약 'And'가 시간적 간격을 증명하는 장치라면, 창세기 1장에는 도대체 몇 개의 간격이 존재하겠는가? 2절부터 31

절까지 거의 모든 절이 'And'로 시작하는데 그 모든 절 사이마다 장구한 시간적 공백이 삽입되어야 마땅한가? 셋째 날과 넷째 날 사이에도,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사이에도 동일한 'And'가 사용되는데, 그 사이에도 수억 년 혹은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보아야 하는가?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오직 1절과 2절 사이의 'And'에만 특별한 시간적 단절의 의미를 부여할 뿐이다. 그러나 동일한 문체, 동일한 접속사, 동일한 구조 안에서 사용된 표현에 대해 유독 한 지점에서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행위는 언어적 근거가 아니라 해석자의 전제에 기초한 선택이다. 이는 본문에서 교리를 이끌어 내는 주석이 아니라, 미리 세워둔 교리를 유지하려 본문을 재해석하는 역주석에 가깝다. 언어 자체가 간극을 요구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간극을 가정한 해석이 언어를 그렇게 읽도록 이끄는 셈이다.

폴리신데톤의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1장의 반복되는 'And'는 단절의 신호가 아니라 연속성과 통일성의 증거이다. 이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이 하나의 장엄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문학적으로 증언한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에서 비로소 완결된다.

따라서 'And' 한 단어에서 수십억 년의 간극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문체적 성격과 문맥의 흐름을 무시한 채, 특정한 신학적 구조를 지탱하려 언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해석에 불과하다. 창세기 1장의 'And'는 간극의 증거가 아니라, 창조 서사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문학적 장치이다.

4. 창세기 1–2장을 흐름대로 읽으면: 간격은 없다

'And'의 의미를 문맥 속에서 바르게 파악한 뒤 창세기 1–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읽어 보면, 간극 이론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성경 본문은 단절을 암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창조 사역의 유기적이고 통일된 전개를 장엄하게 보여 줄 뿐이다.

창 1:1 –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한다. 여기에서 시간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시간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지구를 무(無)에서 유(有)로 창조하셨다. 이 절은 단순한 서론을 넘어 모든 창조의 실제적인 출발점이다.

여기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인 '셋째 하늘'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은 '하늘'을 단일한 하나의 공간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층적인 체계를 가진 개념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을,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우주 공간을,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를 뜻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언급한 '셋째 하늘'은 분명히 창조 세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처를 가리킨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은 '셋째 하늘'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창조자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할 때, 그 '하늘'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포함하는 창조 세계의 물리적 영역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히브리어 본문은 '하늘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며, 이는 단일한 한 영역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포괄하는 총칭적 표현이다.

히브리인들은 우주 전체를 나타낼 때 관용적으로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서로 대비되는 두 영역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 방식이다. 즉, 위에 있는 영역과 아래에 있는 영역, 공간과 물질 세계를 함께 말함으로써 창조된 모든 세계를 통칭한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자의 영원한 존재를 설명하기보다, 창조 세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선포하는 구절이다.

이 점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온 군대가 완성되니라."라고 기록함으로써,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이 단수적 개념이 아니라 복수적 범주를 포함한 '하늘들'을 의미함을 명확히 증명한다. 여기에서 '하늘들'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포함하는 창조된 공간 전체를 가리킨다.

결국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은 이미 존재하던 '셋째 하늘'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 '셋째 하늘', 곧 하나님의 처소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던 영역이며, 창조 세계에 속한 '창조된 공간'이 아니라 창조자가 영원부터 거하시는 초월적 영역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처소가 지닌 기원을 설명하지 않고, 창조자가 시간의 시작과 함께 물리적 우주 질서를 세우셨음을 선포할 뿐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 전체를 하나의 사실로 선포하는 선언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사건으로 읽어도 무방하다. 어느 독법을 택하든, 이 절이 수십억 년 뒤에 이어질 또 다른 별개의 서사를 위한 서막이라는 암시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성경 본문은 그러한 간극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창 1:2 –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절의 첫 단어 'And'를 시간적 단절의 표지로 읽는 것은 문맥을 벗어난 해석이다. 오히려 '그러자' 또는 '그 결과'라는 의미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결과 땅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비어 있었다는 서술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동사의 선택이다. 본문은 땅이 '있었다(was)'고 말한다. 한때 완벽했던 지구가 루시퍼의 반역으로 황폐해져서 '되었다(became)'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차이는 단순한 번역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문의 문법과 서술 의도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다.

창세기 1장 2절은 동사 중심의 사건 서술이 아니라, 상태를 묘사하는 명사절 구조를 가진 배경 진술이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형성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독자에게 창조 초기의 지구 상태를 설명해 주는 기록이다. 이 상태는 심판의 결과로 인한 황폐함이 아니다. 채워질 것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아 비어 있고, 아직 형태를 부여받기 전이라 형태가 없을 뿐이다. 이는 '미완성'의 상

태이지, 파괴된 상태가 아니다.

성경 본문이 말하지 않는 루시퍼의 반역과 전 지구적 심판을 이 절에 끼워 넣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창작이다. 구절 사이의 빈 공간을 상상으로 채우는 일은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방식이 아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 역시 마찬가지이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 어둠을 루시퍼의 반역과 연결된 영적·도덕적 타락과 연결하려 하나, 1장 5절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직접 '밤'이라 부르셨다고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창조 질서 안에 속한 정당한 요소임을 뜻한다. '밤'으로 명명된 어둠을 심판의 상징으로 보는 해석은 문맥상 부자연스럽다.

히브리 시간 개념에서 하루는 저녁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2절은 첫째 날의 밤 시간에 해당하는 상황을 묘사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들 위에서 움직이시는 장면은 심판의 잔해를 배경으로 한 음울한 그림이 아니라, 창조를 앞둔 장엄한 준비 과정이다. 하나님의 영은 혼돈을 수습하려 급히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질서 있게 전개하시기 위해 위엄 있게 임재하고 계신다.

창 1:3–5 – 빛의 창조와 첫째 날의 완결

창세기 1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 밤의 상태에서 아침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며 좋다고 선언하신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에 대해서만 '좋았다'고 하셨고 어둠에 대해서는 그러한 선언이 없다는 점을 들어 어둠이 부정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는 문맥을 벗어난 해석이다. 하나님께서 빛을 좋다고 하신 말씀은 방금 창조된 빛이 그분의 의도대로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지, 어둠이 악하다는 뜻은 아니다. 어둠은 창조 질서 안에서 낮과 밤의 리듬을 형성하는 필수 요소이다.

이로써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 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모든

사건은 첫째 날 안에서 자연스럽게 완결된다. 여기에 수십억 년의 시간 간격을 삽입할 자리는 없다.

창 1:6–8 – 궁창의 창조와 둘째 날

창세기 1장 6–8절에서 하나님께서 궁창(firmament)을 만드신다. 이는 물 위의 물과 물 아래의 물을 구분하는 구조로, 대기권과 우주 공간을 포함한다. 그러나 아직 그 안에 들어갈 광명체들이 창조되지 않았으므로 이날에는 '좋았다'라는 선언이 없다. 이는 결함의 표시가 아니라, 창조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구조적 특징이다. 둘째 날은 이렇게 완결된다.

창 1:9–13 – 육지와 식물의 창조와 셋째 날

창세기 1장 9–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마른 육지를 드러내신다.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들을 '바다'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좋다고 선언하신다. 이어서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도록 하신다. 그리고 이 역시 좋다고 선언하신다. 셋째 날은 형태가 갖추어지고 채워지는 과정의 일부로 완결된다.

창 1:14–19 – 광명체들의 창조와 넷째 날

창세기 1장 14–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만드신 궁창 안에 배치하신다. 여기에서 창조의 정교한 대응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날 빛이 창조되고, 넷째 날 그 빛을 담당하는 광명체들이 창조된다. 둘째 날 궁창이 형성되고, 다섯째 날 그 궁창을 채우는 새들과 바다 생물들이 창조된다. 셋째 날 육지와 식물이 준비되고, 여섯째 날 그 육지를 채우는 동물과 인간이 창조된다.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니다. 이는 '형태가 없고 비어 있던' 초기 상태에서 출발하여, 먼저 형태를 갖추고 다음에 채워지는 질서 있는 창조의 전개를 보여 준

다. 이 정교한 대응 구조 안에 수십억 년의 간격을 삽입하면, 전체 서사는 구조적으로 붕괴된다.

창 1:20-31 – 생물들과 인간의 창조와 다섯째,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0-31절에서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 생물과 공중의 날짐승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침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선언하신다. 이 선언의 무게를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만약 간극 이론이 옳다면, 이 세계는 이미 루시퍼의 반역으로 황폐화된 첫 창조의 잔해 위에 세워진 세계이며, 심판의 흔적이 남아 있는 폐허 위에 재건된 세계이다. 그런 세계를 두고 창조자가 "그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가? 반대로 문자적 육일 창조의 관점에서는 이 선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죄와 사망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완전한 세계에 대한 창조자의 전면적 승인이다.

창 2:1-4 – 안식과 창조의 완결

창세기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하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6일에 걸친 창조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구조를 예표로 보여 준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칠칠절, 일곱 명절 등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곱'의 구조는 이 창조 주간을 기초로 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창조하셨다면, 이러한 주간 구조와 안식의 신학적 의미는 근거를 잃는다.

창세기 2장 4절은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라고 요약한다. 여기에서 '창조하다'(bara)와 '만들다'(asah)가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로 함께 사용된다. 이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를 엿새 밖으로 분리시키려는 시도가 성경적 근거를 갖지 못함을 다시 한번 방증한다. 이처럼 창세기 1-2장을 흐름대로 읽어 보면, 하나의 통일된 창조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비어 있고 형태 없던 지구에서 출발하여 엿새에 걸쳐 그것을 가득 채우고 형태를 갖추게 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수십억 년의 간격을 삽입하는 것은 본문의 흐름을 따르는 독법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온 전제를 본문 사이에 끼워 넣는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성경은 절과 절을 이어 읽으라고 주어졌다. 절과 절 사이의 빈 공간을 상상으로 채우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다.

5. 한국어 번역은 재창조의 흐름을 은폐하지 않는다

한국어 흠정역 성경이 'And'를 매번 번역하지 않고 권위체인 '~니라'로 처리함으로써 재창조의 흐름을 독자가 파악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은 여러 면에서 근거가 없다. 이 비판은 언어와 번역의 성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

우선 이 주장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And'가 시간적 연속성과 간격을 나타내며, 그것이 곧 재창조의 증거라는 전제 위에서만 이 비판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충분한 근거로 제시한 바와 같이, 그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창세기 1장에서 'And'의 반복은 시간적 단절을 암시하는 표지가 아니라, '폴리신데톤' 문체의 일부로서 창조 사역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표현하는 장치이다. 만약 전제가 무너지면, 그 전제 위에 세워진 모든 비판도 함께 무너진다. 'And'가 간극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번역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 역시 간극의 근거와는 무관해진다.

다음으로, 가령 한국어 성경이 'And'를 매번 '그리고' 또는 '그러고 나서'로 직역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창세기 1장에서 간극 이론을 자연스럽게 도

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그러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라고 번역하더라도,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직후 지구의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히 자연스럽게 읽힌다. 여기에서 시간적 단절을 읽어 내려면 단순한 접속사의 차원이 아니라 동사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곧 'was'를 'became'으로 바꾸는 별도의 번역 조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And'의 번역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And'가 아니라 'was'와 'became'의 문제이며, 그것은 이미 앞에서 별도의 근거로 다룬 바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성경이 '~니라'라는 권위체 문체를 사용하는 것은 히브리어와 영어 원문의 장중한 서술 어조를 한국어의 어법과 문화에 맞게 자연스럽게 옮긴 번역학적 선택이다. 우리말에서 모든 문장을 '그리고'로 시작하면 문체는 단조롭고 유아적으로 들리며, 오히려 원문이 지닌 장엄함과 리듬을 훼손하게 된다. 히브리어의 서술 구조는 단순한 접속사의 반복이 아니라, 장중한 선언과 리듬을 형성하는 구조이다. 한국어 흠정역이 이를 '~니라'라는 권위체로 옮긴 것은 원문의 위엄을 살리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지, 재창조의 흐름을 은폐하려는 의도적 왜곡이 아니다.

번역을 의심하기 전에, 자신의 해석이 본문과 문맥에 충실한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 번역은 본문을 왜곡하는 수단이 아니라, 다른 언어권 독자에게 본문을 충실히 전달하는 수단이다. 번역을 문제 삼아 간극을 세우려는 시도는, 본문 자체에서 근거를 찾지 못할 때 나타나는 우회적 근거일 뿐이다.

6. 성경의 바른 해석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논쟁의 핵심에는 결국 성경 해석의 원칙 문제가 놓여 있다. 간극 이론이 창세기 1장의 'And'에서 시간적 간격의 근거를 찾으려 하는 시도는, 이미 간극이라는 결론을 세워 놓고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를 본문에서 찾으려는 전형적인 역주석의 패턴이다. 본문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바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자신의 이론을 말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마음의 전제를 내려놓지 않는 한, 어떤 문법적 근거나 문맥적 분석을 제시

해도 설득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해석의 방향이다.

올바른 성경 해석은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따른다.

첫째,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창세기 1장의 'And'는 창조 서사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사용되는 문체적 구조의 일부이며, 유독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서만 특별한 시간적 단절을 의미한다고 볼 문법적 이유가 없다.

둘째, 분문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지 않아야 한다.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수십억 년의 간격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간격은 본문 밖에서 가져온 가정이다. 성경은 절과 절 사이에 상상력을 끼워 넣으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다.

셋째, 모르는 부분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창조의 모든 과학적 세부 사항을 성경이 제공하지 않을 때, 그 공백을 어떤 이론으로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은 경계해야 한다. 성경이 명확히 말하는 바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영역까지 억지로 채우려는 강박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다.

예수님께서도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막 10:6)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인간의 창조가 어떤 재창조의 단계가 아니라 '창조의 시작'에 속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신 선언이다. 주님의 증언보다 더 권위 있는 해석은 존재할 수 없다.

결국 창세기 1–2장은 창조자가 무에서 유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엿새에 걸쳐 비어 있고 형태가 없던 것을 가득 채우고 형태를 갖추게 하셨으며,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장중하고 통일된 서사로 증언한다. 여기에 반복되는 'And'는 창조 사역 전체가 긴밀히 이어진 하나의 완결된 행위임을 선명하게 보여 주는 장치이다. 창세기 1장의 'And'는 간극 이론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간극 이론이 침범할 수 없는 창조 서사의 통일성과 완전성을 선언하는 문학적 증거이다.

《 재창조 간극 이론 문제 • 3 》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은 파괴를 뜻하지 않는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어둠'을 루시퍼의 반역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 해석한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 성경 전체에서 '어둠'은 악, 죄, 사망,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한다(요한복음 3장 19절, 에베소서 5장 11절, 골로새서 1장 13절).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다'는 묘사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루시퍼의 타락으로 인해 온 지구가 '영적 어둠' 아래 놓이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후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다."라고 하셨으나(창세기 1장 4절), '어둠'에 대해서는 그런 선언이 없다는 사실도 논거로 사용된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좋다고 하지 않으신 것은 그 어둠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것이 심판의 어둠임을 방증한다.

이 해석은 얼핏 듣기에는 성경적 일관성이 있는 듯하다. 성경이 어둠을 악과 연결 짓는 용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어둠이 악의 어둠은 아니라는 데 있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어둠 = 악'이라는 단순한 등식을 창세기 1장 2절에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성경이 어둠에 대해 가르치는 훨씬 풍성하고 다층적인 진리들을 놓치게 된다. 더 심각한 점은 이 오해가 단순한 해석상의 실수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성품에 관한 중요한 진리들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로 놓치는 진리: 하나님께서는 물리적 '어둠'의 창조자이시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을 루시퍼의 심판과 연결시킬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놓치는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 물리적 어둠의 창조자이시라는 사실이다.

이사야서 45장 7절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선언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해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다. 만약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이 루시퍼의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심판의 어둠'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의 창조자라고 선언하시는 말씀 자체가 매우 이상한 진술이 된다. 루시퍼의 반역이 낳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겠는가? 그러나 물리적 어둠, 곧 빛이 없는 상태로서의 어둠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라면, 이사야서 45장 7절의 선언은 완벽하게 자연스럽다.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시편 104편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주께서 어둠을 만드사 밤이 되게 하시니 숲의 모든 짐승들이 밤에 기어 나오나이다.

어둠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둠을 허용하시거나 방치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둠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어둠은 숲의 짐승들이 활동하는 자연스러운 시간,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일부이다. 시편 기자는 이를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신 창조 질서로 찬양한다.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으니 (시 104:24)

어둠이 심판의 결과라면, 이를 하나님의 지혜로운 창조 질서로 찬양하는 것은 모순이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의 신비를 물으시는 가운데,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빛이 거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또 어둠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의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어둠이 있는 '처소'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것을 창조 질서의 정당한 일부로 다루신다. 어둠이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한 타락의 산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둠의 처소를 창조 질서의 일환으로 언급하심이 적절하겠는가?

결국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을 악의 산물로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물리적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창조 질서의 일부로 운행하신다는 성경의 명확한 진리를 놓친다. 어둠 자체는 악하지 않다. 어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며, 빛과 함께 낮과 밤을 이루는 창조 질서의 아름다운 구성 요소이다.

두 번째로 놓치는 진리: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심판의 증거가 아니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창세기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어둠'에 대해서는 동일한 선언을 하지 않으신 점을 어둠이 악하다는 증거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논리는 성경적 서술 방식의 기본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좋다고 하신 까닭은, 그것이 이제 막 창조된 새로운 창조물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의 흐름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창조되고, 4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성되었음을 그분께서 확인하시는 흐름이다. 반면 어둠은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앞뒤 문맥이 새로 창조된 대상에 대해 "좋았다."라고 선언하시는 방식이므로, 이미 존재하던 대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좋았다."라고 선언하실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창세기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name)을 붙이신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성경에서 권위와 다스림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심으로써 두 가지 모두를

자신의 창조 질서 안에 정당하게 위치시키신다. 심판의 결과물에 이름을 붙여 창조 질서 안에 포함시키신다는 논리는 문맥상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둘째 날의 창조 기사를 보면, '궁창'의 창조 이후에도 "좋았다."라는 선언이 없다(창세기 1장 8절). 그러면 이것이 궁창의 창조가 불완전하거나 악하다는 증거인가? 아니다. 궁창은 아직 그 안을 채울 광명체들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의 선언이 유보되었다. 마찬가지로 어둠에 대해 "좋았다."라는 선언이 없다는 사실이 곧 어둠이 악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라는 최종 선언은 어둠을 포함한 모든 창조를 포괄한다. 어둠이 악하다면 이 최종 선언의 '모든 것'에서 어둠은 제외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런 예외를 두지 않는다.

세 번째로 놓치는 진리: '어둠'은 하나님의 위엄과 불가해성의 표상이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을 심판으로만 이해할 때 놓치는 더 깊고 풍성한 진리가 있다. 성경에서 어둠은 하나님의 위엄, 신비, 불가해성을 나타내는 표상으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다.

출애굽기 20장 21절은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가니라."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둠' 속에 계신다. 이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인간이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묘사한다. 신명기 4장 11절도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이 붙었고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덮였느니라."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내 산의 묘사에 어둠이 등장한다. 신명기 5장 22-23절에서도 동일하게 어둠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된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라고 말한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짙은 어둠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한다. 이는 하나님

의 임재가 인간의 지성으로 완전히 파악될 수 없는 신비 속에 있음을 나타낸다.

시편 18편 11절도 "그분께서 어둠을 자신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으니 곧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싼 그분의 천막이 되었으며"라고 말한다. 여기서 어둠은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로 묘사된다.

이 모든 구절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진리는 무엇인가? '어둠'은 악을 상징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신비롭고 위엄 있는 임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표상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라는 묘사를 다시 읽으면, 간극 이론 지지자들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난다. 이는 심판으로 황폐해진 세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창조 사역이 시작되는 장엄한 서막을 묘사한다. 어둠 속에서, 곧 그분의 신비로운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들 위에서 움직이시며 창조를 준비하신다. 이는 경외감을 자아내는 장면이지, 심판의 황폐한 잔해를 말하는 장면이 아니다.

결국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을 루시퍼 반역의 결과로 봄으로써, 성경이 어둠을 통해 표현하는 하나님의 장엄한 위엄과 불가해한 신비라는 풍성한 신학적 진리를 놓치게 된다. 창조의 서막에서 어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 전체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선포한다.

네 번째로 놓치는 진리: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을 심판으로 이해할 때 놓치는 또 하나의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가 있다. 성경적 '하루'는 저녁, 곧 어둠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1장 5절은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라고 말한다. 저녁이

먼저이고 아침이 나중이다. 이것이 성경적 하루의 구조이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금요일 해 질 무렵부터 시작하는 관례도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아직 빛이 없는 초기 상태가 묘사되며,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창조된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2절은 첫째 날의 저녁 시간, 곧 아직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밤 시간에 해당한다. 그러니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하루가 저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도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면,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을 루시퍼의 심판과 연결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창조의 첫째 날은 어둠으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신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있었던 사실은 루시퍼 반역의 증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순서를 정확하게 따른 결과이다.

결론: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오류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은 어렵지 않다. 이는 '빛'이 아직 창조되기 이전, 곧 첫째 날의 저녁 시간에 온 우주를 채우고 있던 자연적인 어둠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며 창조 질서의 일부로 삼으셨고, 그 어둠 안에서 그분의 영이 물들 위를 움직이시며 창조의 서막을 여셨다. 이는 심판의 잔해가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성경에서 어둠이 악과 연결되는 용례들을 창세기 1장 2절에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물리적 어둠의 창조자이시라는 진리,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곧 악의 증거가 아니라는 진리, 어둠이 하나님의 위엄과 신비의 표상으로도 사용된다는 풍성한 신학적 진리, 그리고 성경적 하루가 저녁으로 시작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모두 놓치게 된다. 그 결과 창조의 서막이 지닌 장엄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루시퍼의 반역이라는 어두운 이야기로 가려져 버린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공허 가운데 질서와 빛과 생명을 빚어 나

가시는 장엄한 창조의 서사이다. 간극 이론이 전제하는 루시퍼의 반역과 홍수 심판은 그 서사 어디에도 없다.

《 재창조 간극 이론 문제 • 4 》

‘창조하다’, ‘만들다’, ‘짓다’ 혹은 ‘형성하다’는 동의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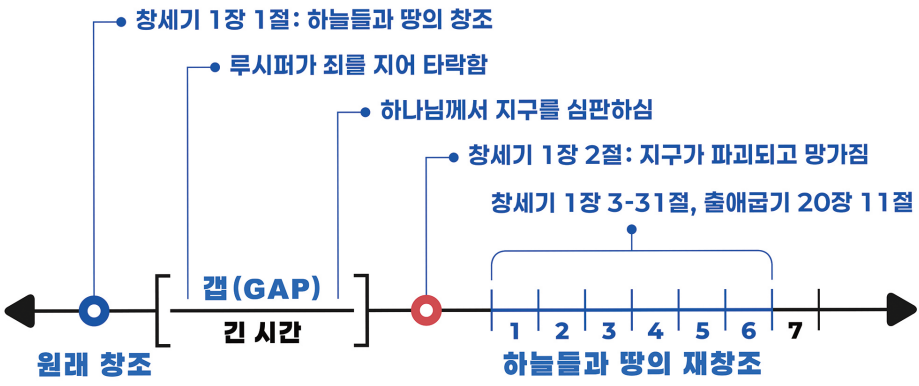
간극 이론이 성경적으로 성립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난관이 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11절의 존재이다. 이 구절은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 준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근거 설명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히브리어 asah) 일곱째 날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이 말씀은 6일 창조를 명백히 선언한다. 그 범위는 제한적이지 않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여, 우주 전체를 포괄한다. 이 선언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를 ‘6일 창조’ 이전의 별도 사건으로 분리하여 그 사이에 장구한 시간 간격을 삽입하려는 간극 이론의 핵심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동원한 논리가 바로 히브리어 동사 ‘창조하다’(바라, bara)와 ‘만들다’(아사, asah)의 엄격한 구분이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바라(bara)는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 곧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에만 사용되며, 아사(asah)는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형성하거나 재구성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사용된 아사(asah)는 창세기 1장 1절의 최초 창조인 바라(bara)를 포함하지 않으며, 엿새는 단지 재창조 또는 재정비의 기간일 뿐이



〈그림〉 재창조식 성경 해석(추측과 상상)

라는 해석이다.

이 구분이 유지되어야만 창세기 1장 1절을 엿새 창조 이전의 별개 사건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수십억 년의 간격과 루시퍼의 반역, 우주적 파멸을 삽입하는 간극 이론의 전체 구조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구분은 성경 본문이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이는 본문에서 도출된 결과가 아니라, 이론을 유지하기 위해 본문 위에 덧씌운 전제이다.

먼저 바라(bara)와 아사(asah)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성경 자체의 용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바라(bara)는 반드시 무로부터의 창조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아사(asah)는 기존 재료를 활용한 형성이나 재구성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창세기 1장 자체가 이 구분을 허문다.

창세기 1장 26–27절을 살펴보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asah)…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bara)

동일한 인간 창조 사건을 설명하는 단 두 절 안에서 바라(bara)와 아사(asah)가 나란히 사용된다. 만일 두 단어가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행위를

가리킨다면, 이 두 절은 서로 다른 두 사건을 말해야 한다. 그러나 문맥은 단 하나의 창조 사건만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한 번 창조하셨고, 성경은 그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두 단어를 자유롭게 교차 사용한다.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사야서 43장 7절은 다음과 같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를 창조하였고(bara) 그를 지었으며(yatsar)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asah).

여기에는 바라(bara), 야짜르(yatsar), 아사(asah) 세 동사가 모두 동원되어 동일한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서로 다른 창조 행위를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동일한 창조 행위를 문학적으로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사야서 45장 18절도 마찬가지이다.

하늘들을 창조하신(bara)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굳게 세웠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yatsar).

여기에서도 bara(영어 create)와 yatsar(영어 form)가 동의어로 사용된다. 느헤미야기 9장 6절도 이와 비슷하다.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온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asah)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구절에서도 asah는 우주 전체 창조를 포괄하는 동사로 사용된다.

이 모든 용례는 하나의 결론을 향한다. 바라(bara), 야짜르(yatsar), 아사

(asah)는 문맥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를 가질 수 있으나, 간극 이론이 요구하듯 철벽같이 분리된 신학적 구분을 가지는 단어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창조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어휘를 자유롭게 사용하신다. 이는 개념의 혼동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여러 단어로 강조하고 확장하는 히브리 문학 특유의 수사적 풍요로움이다.

더 나아가 창세기 1-2장에서 창조 활동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동사가 바라(bara)와 아사(asah) 둘뿐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인위적 구분이 얼마나 단순화된 것인지를 드러낸다. 창조 기사에는 여러 동사가 사용되며, 각각이 창조 사역의 다양한 측면을 표현한다. 만일 바라(bara)와 아사(asah)에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면, 나머지 동사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간극 이론은 그러한 체계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 구분은 오직 자신들의 이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두 단어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3]

특히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31장 17절, 창세기 2장 2-4절, 느헤미야기 9장 6절은 모두 아사(asah)를 사용하여 하늘과 땅을 포함한 전체 창조 사역을 요약한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asah)."라고 선언한다. 이보다 더 포괄적인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을 엿새 창조 범위 밖으로 밀어내려면, 이 구절을 재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재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구분을 억지로 유지하면 해석은 점점 왜곡된다. 셋째 날의 식물은 창조

---

3. Weston W. Fields,「Unformed and Unfilled: A Critique of the Gap Theory」(Collinsville, IL: Burgener Enterprises, 1976), 73 (표).
Henry M. Morris,「Scientific Creationism」, 2nd ed. (El Cajon, CA: Master Books, 1985), 237; Fields, 61-62.
John C. Whitcomb,「The Early Earth」, rev. ed.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6), 152;「Scofield Reference Bible」, 1917 ed., 4, note 3.
Whitcomb,「Early Earth」, 152;「New Scofield Reference Bible」, 2, note 2.

된 것이 아니라 씨앗이 다시 자라난 것이라고 해야 하고, 넷째 날의 태양과 달과 별들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름이 걷혀 보이게 된 것이라고 해야 하며, 여섯째 날의 짐승과 인간도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본래 창조된 존재들이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해석이 아니라, 이론을 지키기 위해 본문 위에 덧붙여진 가정들이다.

결국 논점은 이것으로 귀결된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여 엿새 동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전개한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그 사실을 다시 요약하며, 하늘과 땅을 6일 창조 범위 안에 명확히 포함시킨다. 이 일관된 성경의 증언을 유지하는 데에는 별도의 철학적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바라(bara)와 아사(asah)의 인위적 구분이라는 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장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언어를 사용하셨으며, 동일한 창조 사역을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동사를 자유롭게 선택하셨다. 그 언어적 다양성은 신학적 분열의 근거가 아니라 문학적 풍성함의 표현이다.

성경의 선언은 명확하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엿새 동안 만드셨다. 이 증언을 바꾸기 위해 단어의 의미를 인위적으로 고정시키는 행위는 본문에서 교리를 끌어내는 주석이 아니라, 이미 세운 교리를 본문에 강요하는 역주석이다.

《 재창조 간극 이론 문제 • 5 》

창세기 1장 28절의 replenish는 '다시 채우라'가 아니다

간극 이론을 지지하는 자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replenish the earth'이다. 그들은 이 표현이

'다시 채우라'라는 뜻이므로 아담 이전에 이미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일견 그럴듯하게 들려 많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심지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조차 간극 이론에 동조하는 빌미가 되어 왔다. 따라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성경적·언어적으로 밝히는 일은 단순한 어휘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역사적 사실성을 지키는 데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다.

1. 문제의 출발점

replenish는 '완전히 또는 풍부하게 채우다'라는 뜻의 고어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최초로 "땅을 가득 채우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의 초점은 이 땅을 처음 채우는 데 있다. 이 절의 '채우라'(replenish)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채우다, 가득 차게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밀루(mil'u)이다. 이 동사는 구약 전체에서 249회 사용되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다시 채우다'(refill)라는 의미, 곧 한 번 비워진 대상을 재차 채우는 개념으로 쓰이지 않는다.

간극 이론을 적극 옹호하는 학자 커스턴스(Arthur Custance)조차도, 히브리어 자체는 '다시 채우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지 않고 단순히 '채우다'(fill)를 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어 단어 replenish에 대한 역사적·어원적 연구는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어 단어에 붙는 라틴어 접두사의 의미, 예를 들어 're–'를 '다시'로 보는 해석은 대략 13세기 이후 약 5세기 동안 사전 정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 이것은 현대식 어원 분석처럼 're = 다시, plenus = 가득한'이라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학자들이 라틴어 접두사의 의미를 다시 영어 단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하기 시작한 시기는 그 이후의 일이다.

아담과 이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지구를 '가득 채우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었지, 간극 중에 쓸려 나간 이전 종족을 대체하라는 명령이 아니었다.

2. 영어 단어 replenish에 대하여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이 좋다는 평을 듣고, 많은 독자들이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을 펴서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만나면 민중서관, 동아출판사 등에서 나온 일반 영한사전을 꺼내거나, 네이버 사전이나 구글 번역에서 뜻을 찾아 구절을 해석한다. 이러한 방식은 일상적인 단어에는 대체로 무난하게 통용된다. 그러나 성경의 중요한 신학적 단어들, 특히 교리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어휘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순한 사전 의존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거나 심각한 오해를 낳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대 일반 사전은 현재의 용법을 기준으로 의미를 배열하므로, 17세기 영어의 용례를 반영하지 못하고 성경적·신학적 맥락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에센스 사전」(민중서관 출판)과 같은 일반적인 영한사전을 찾아보면 replenish의 첫 번째 뜻이 '채우다', 두 번째 뜻이 '다시 채우다'로 나온다. 문제는 학창 시절에 're-는 다시'라는 공식을 배운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첫 번째 정의인 '채우다'는 가볍게 지나치고 'replenish = 다시 채우다'가 옳다고 단정 짓는다는 점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채, replenish는 '다시 채우다'이니, '창세기 1장 28절은 이미 한 번 채워졌던 땅을 다시 채우라는 의미이다'라고 받아들인다. 이때 말씀보존학회 계열에서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같이 '다시 채우라'로 번역한 판본은 매우 자연스럽게 간극 이론과 연결되어, 마치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심판과 파괴가 있었고 이제 아담은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라는 논리를 떠받치는 근거로 사용된다.

이러한 독자들, 특히 말씀보존학회 등 특정 진영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거기에는 '다시'라는 말 대신 '가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역자들이 큰 실수를 했다."라고 판단할 것이다. 반면 '다시'라는 말을 넣은 다른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은 '참으로 바른 번역'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이 근거하는 바는 '20세기 영한사전'과 학교에서 배운 접두사 're-'의 단순 공식이

지, 17세기 킹제임스 영어의 실제 용례나 히브리어 본문 등의 역사적 사전 증거가 아니다.

3. 접두사 're-'의 강조적 용법

사실 라틴어 계통의 영어 단어들을 살펴보면, 접두사 're-'가 반드시 '다시'(again)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re-'가 '완전히, 충분히, 강하게'라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replete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단어는 '가득 찬, 충만한'을 뜻하며, '다시 채워진'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다. 이 단어는 라틴어 repletus에서 유래했으며, 're-'는 여기에서 '충분히, 완전히'라는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 resplendent 역시 마찬가지이다. '눈부시게 빛나는'을 뜻하는 이 단어에서 're-'는 '다시 빛나는'이 아니라 '매우 강하게 빛나는'이라는 강조를 나타낸다. revere는 '깊이 경외하다'를 뜻하며, 여기에서도 're-'는 '다시 공경하다'가 아니라 감정의 깊이와 강도를 강조한다. renowned는 '널리 알려진, 명성 있는'을 뜻하는데, '다시 알려진'이 아니라 '충분히, 널리 알려진'이라는 의미이다. resolute는 '단호한, 굳건한'을 뜻하며, 're-'는 여기에서 '다시'가 아니라 의지의 완전함과 확고함을 강조한다. recline은 '기대다, 눕다'를 뜻하며, '다시 눕다'가 아니라 몸을 완전히 뒤로(back) 기대는 동작 자체를 가리킨다. recess는 '깊이 들어간 공간, 휴식'을 뜻하는데, '다시 들어가다'가 아니라 완전히 뒤로(back) 물러나거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상태를 나타낸다.

이처럼 're-'를 언제나 '다시'로 해석하는 경향은 라틴어와 영어의 실제 용법을 단순화하는 오류이다.

더욱이 replenish 자체가 고대 프랑스어 replenir, 곧 라틴어 plenus(가득 찬)에서 온 단어로, 're-'는 여기에서 '다시'가 아니라 '완전히, 충분히, 가득히'라는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동일한 어원을 가진 replete(가득 찬, 충만한)와 정확히 같은 구조이다. 단어의 어원 자체가 '다시 채우다'가 아니

라 '완전히 채우다'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replenish의 're-' 역시 '다시'가 아니라 '완전히, 충분히'라는 강조의 의미로 보는 편이 역사적 용례에 더 부합한다.

4. 20세기 사전으로 17세기 성경을 읽는 오류

킹제임스 성경 독자들 가운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오류 중 하나는 '20세기 영어 사전으로 17세기 영어를 이해하려는 접근법'이다. 이 오류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나, 실제로는 성경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단어 하나의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창조론·종말론·교회론 등 여러 교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wheat'는 우리에게는 '밀' 또는 '밀가루'라는 개념으로 익숙하지만, 17세기 영어에서 이 단어의 1차적 용례는 '알곡'(grain)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his wheat'를 번역할 때, '자신의 알곡'으로 옮기는 것이 문맥상 정확하며, '자신의 밀'로 옮기면 의미가 좁혀져 오역이 된다.

이러한 사례는 "17세기 영어를 이해하려면 17세기 용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분명히 준다. 그렇다면 17세기 영어 단어의 용례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영어 사전들 가운데 가장 방대하고, 단어의 어근과 기원, 시대별 의미 변천과 용례를 가장 자세히 보여 주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 OED)을 활용해야 한다. 이 사전은 특정 신학이나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각 단어의 의미와 역사적 용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므로, 17세기 영어 단어를 이해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도구이다. 특히 OED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처음 문헌에 나타났는가?", "어느 시기에 어떤 의미가 새로 생겨났는가?"를 자세한 인용문과 함께 보여 준다. 단순히 뜻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뜻의 첫 용례 연도를 제시함으로써, "이 의미가 킹제임스 성경 번역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OED와 같은 역사 사전을 사용하지 않고, 20세기 일반 영어 사전만으로

1611년에 출판된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replenish와 같은 특정 구절에서 심각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간극 이론이 바로 그러한 오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5. OED에서 본 replenish의 역사적 의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replenish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OED는 replenish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범주, 곧 상태·조건을 나타내는 용법과 일반적인 타동사 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각 용법에 대해 그 의미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연도를 제시한다.

첫 번째 범주인 상태·조건을 나타내는 용법에서는, '물건이나 짐승이 충만히 차 있다'(Fully or abundantly stocked with things or animals)라는 뜻이 1340년부터, '어떤 성질이나 상태로 가득 차 있다'(Filled, fully imbued)라는 뜻이 1374년부터, '사물이나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Physically or materially filled)라는 뜻이 1490년부터, '충만한'(Full, made full)이라는 뜻이 1400년부터 나타남을 보여 준다.

두 번째 범주인 타동사 용법에서는, '가득 채우다'(To make full of, to fill, to stock)라는 뜻이 1386년부터, '거주민으로 채우다'(To occupy a place as inhabitants, to people)라는 뜻이 1400년부터, '음식 등으로 채우다'(To fill with food, to satisfy)라는 뜻이 1450년부터, '무엇인가로 채우다'(To fill a place or space with something)라는 뜻이 1477년부터 나타남을 보여 준다. 그리고 맨 마지막인 아홉 번째 뜻으로 '다시 채우다'(To fill up again, to restore to the former amount or condition)가 나오는데, 이 용례의 첫 등장 연도는 1612년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뜻이 그 단어의 근본 어의, 즉 기본 의미이다. OED는 replenish의 근본 어의가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임을 분명히 보여 주며, '다시 채우다'라는 의미는 1612년, 곧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1611년보다 1년 뒤에야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나는 후대

의 파생 의미일 뿐이다. 더욱이 1612년의 최초 용례마저 시(poetry)에서 나온 표현이며, 창세기 1장 28절은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한다.

6. 1828년 웹스터 사전으로 본 replenish

OED 다음으로 중요한 참고 자료로서 미국 영어 사전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웹스터 사전」을 살펴보자. 노아 웹스터(Noah Webster)는 매우 독실한 신자였고, 그가 1828년에 출간한 영어 사전 초판은 미국 영어의 기초를 이루었다. 킹제임스 성경 출간(1611년)으로부터 약 200년 후의 대표적인 사전이 replenish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28년 웹스터 사전에서 replenish는 타동사로 첫째 '채우다'(To fill; to stock with numbers or abundance)로 정의되고, 그 대표 예문으로 창세기 1장 28절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Gen. 1."을 직접 인용한다. 둘째 뜻으로는 '끝내다, 완성하다'(To finish; to complete)가 있으나 '지금은 쓰이지 않는 의미'라고 명시한다. 자동사로는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다'(To recover former fullness)가 있다.

여기에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창세기 1장 28절의 'replenish the earth'는 분명히 목적어(the earth)를 취하는 타동사 구조이다. 따라서 자동사 의미인 '이전 상태로 회복되다'를 이 구절에 적용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도, 사전 용례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웹스터 자신이 타동사 '채우다'의 대표 예문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인용했다는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 출간 후 2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영어권 학자들이 이 구절의 replenish를 '채우다'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 준다.

7. 1913년 웹스터 개정판과 의미 변천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사전에 실린 단어의 정의는 언제나 변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기존과 다른 의미로 한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 사전은 그 세대가 그 단어에 부여하는 의미를 반영하여 새로운 뜻을 추가한다.

replenish 역시 이러한 변천 과정을 겪었다. 간극 이론을 추종하는 한 분이 1913년에 출판된 웹스터 사전을 보여 주면서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뜻이 '다시 채우다'(To fill again after having been diminished or emptied; to stock anew; hence, to fill completely; to cause to abound)로 되어 있다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1828년에 출판된 웹스터 초판과 OED의 용례를 보면 그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913년경에는 이미 replenish라는 단어가 '다시 채우다'(fill again)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진화론이 보급되면서 일부 크리스천들이 창세기 1장 28절의 replenish를 '다시 채우다'로 해석하며 간극 이론을 발전시키고, 사회와 언어가 그 용법을 점차 수용해 나갔다. 결국 현대 영어와 현대 사전에서는 'to fill again'이 자연스러운 1차 정의로 자리 잡았고, 영한사전들 역시 '채우다'를 먼저 놓고 그다음에 '다시 채우다'의 의미를 덧붙이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9년판 메리엄-웹스터 사전조차도 replenish의 처음 정의(1a)를 '사람이나 동물로 채우다'(to fill with persons or animals: stock), 두 번째 정의(1b)를 '완전히 공급하다'(to supply fully: perfect, 이는 고어[archaic]로 표기됨)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다시 채우다'(to fill or build up again)는 그다음의 부차적 정의(2a)로 배치하고 있다. 이는 영어 사전학 자체가 replenish의 근본 의미가 '채우다'임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전을 통한 결론은 분명하다.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16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replenish는 결코 '다시 채우다'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채우다, 가득히 하다'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었다.

8. 다른 언어 성경들과 초기 영어 성경들의 증언

이 결론은 영어 사전의 증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611년 이전의 다른 영어

성경들과 다른 언어의 역사적 성경 번역들 역시 창세기 1장 28절을 한결같이 '채우다'에 해당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

영어 성경들을 먼저 살펴보면, 1380년대 「위클리프 성경」(*Wycliffe Bible*)은 'fille ye the erthe'로, 1530년 「틴데일 성경」(*Tyndale Bible*)은 'fyll the erth'로, 1535년 「커버데일 성경」(*Coverdale Bible*)은 'fyll the earth'로, 1560년 「제네바 성경」(*Geneva Bible*)은 'fill the earth'로 번역하였다. 「킹제임스 성경」 이전의 모든 영어 성경이 예외 없이 'fill'을 사용하였다.

다른 언어의 성경들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Lutherbibel*)은 이 구절을 'füllet die Erde', 곧 '땅을 채우라'로 번역하였다. füllet는 '채우다'(füllen)의 명령형으로, '다시 채우라'가 아니라 단순히 '채우라'이다.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라 성경」(*Reina-Valera Bible*) 역시 'llenad la tierra', 곧 '땅을 채우라'로 번역하였다. llenad는 '채우다'(llenar)의 명령형으로, '다시 채우다'라는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1535년에 출간된 프랑스어 「올리베탕 성경」(*Bible d'Olivétan*)은 'remplissez la terre'로 번역하였다. 프랑스어 remplir는 '채우다'를 뜻하는 동사로, 이 역시 '다시 채우다'라는 개념을 내포하지 않는다.

이 모든 번역들이 '채우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시 채우다'라는 해석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replenish를 사용한 까닭은, 당시 영어에서 이 단어가 fill과 동의어로 통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선택은 이전의 모든 번역 전통과 일치하였다. '다시 채우다'라는 해석은 이 방대한 번역 전통 전체를 부정해야만 성립하는 자의적 해석이다.

9. 히브리어 말레(male')의 구약 전체 용법

이제 영어 사전의 증거를 넘어 히브리어 본문을 살펴보겠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가득 채우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말레(male')이다. BDB(Brown-Driver-Briggs) 사전에 따르면, 이 동사는 '채우다, 가득 차

다'(to be full, to fill)를 기본 의미로 가지는 원시 동사(primitive root)이며, 구약 전체에서 249회 등장한다.

KJV 역자들이 이 동사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압도적인 번역은 fill(107회)이고, 그다음이 full(48회), fulfil(28회), consecrate(15회), accomplish(7회) 순이다. 반면 replenish로 번역된 경우는 전체 249회 중 7회에 불과하다. 그 7회는 창 1:28, 창 9:1, 사 2:6, 사 23:2, 렘 31:25, 겔 26:2, 겔 27:25인데, 이 구절들 역시 17세기 영어로 '채우다'를 의미하는 표현이지 '다시 채우다'가 아니다.

즉, KJV 역자들은 같은 히브리어 동사를 107회나 fill로 번역하면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7회 replenish를 사용한 경우도 17세기 영어에서 두 단어가 동의어였기 때문에 문체적 변형(stylistic variation)을 꾀한 데 지나지 않는다.

말레(male')는 구약 전체에서 매우 다양한 문맥에 나타나지만, 그 의미 범주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공간·장소를 채우다'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빈번한 용법이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 "바다들의 물들을 채우고"(fill the waters in the seas)와 1장 28절에서 "땅을 가득 채우라."(replenish the earth)가 대표적이며,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열왕기상 8장 10-11절에서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다", 이 모두가 해당 범주에 속한다.

둘째는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다'이다. 같은 동사가 긍정적인 내용물뿐 아니라 죄와 폭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창세기 6장 11, 13절에서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예레미야서 23장 10절에서 "그 땅에는 간음하는 자들이 가득하고", 에스겔서 7장 23절에서 "그 땅이 피를 흘리게 하는 범죄들로 가득하며" 등이 그 예이다.

셋째는 '기간·날수가 차다, 곧 완료되다'이다. 시간적 의미로 확장된 용법

으로, 창세기 25장 24절에서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창세기 29장 21절에서 "내 날들이 찼으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는 '영적·내면적으로 가득 채우다'이다.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준 모든 자",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히 채워", 미가서 3장 8절에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충만하여"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다섯째는 '손을 채우다', 곧 직무를 위임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독특한 관용 표현이다. 이 표현은 현대 독자들에게 다소 낯설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제물과 예물을 가득 쥐어 주셨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였다. 다시 말해, 손이 채워진다는 것은 곧 사명이 맡겨졌다는 뜻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손을 채우다'(male' yad)라는 표현은 제사장 임직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어로 자리 잡았고, 결국 '거룩히 구별하다', 즉 'consecrate'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실제로 영어 사전도 consecrate의 1차 의미를 '특정 의식이나 예식을 통해 일반적 용도에서 거룩한 용도로 분리하다'로 정의한다. 따라서 출애굽기 29장 9절의 "thou shalt consecrate Aaron and his sons."라는 표현을 이해할 때, 히브리어 원문은 문자 그대로 "그들의 손을 채우라."이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제사장 직무를 부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히 구별하는 데 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를 "consecrate"로 번역한 것은 바로 이 관용적 의미를 정확히 포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의미 범주를 아우르는 핵심은, 말레(male')가 어디에서든 시종일관 '채우다, 가득 차다, 완료되다'라는 의미 범주 안에서만 쓰인다는 사실이다. 're-(다시)'라는 개념은 히브리어 자체에 존재하지 않으며, 구약 249회 사용 중 단 한 차례도 '한 번 비워진 것을 다시 채우다'(refill)라는 의미로

쓰인 예가 없다.

10.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의 비교 – 성경의 '내장 사전'

영어 사전의 증거만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일종의 '내장 사전'(built-in dictionary)을 두셨다. 같은 저자·같은 문맥 안에서 동일한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비교해 보면, 사전이 없어도 그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게일 리플링거(Gail Riplinger)가 저술한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The Language of the KJB*)는 이 원리를 자세히 설명한다.

창세기 1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 And God blessed them, saying,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waters in the seas, and let fowl multiply in the earth.

이어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자.

>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 And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un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and subdue it: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fowl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th upon the earth.

이 두 구절은 같은 문맥 속에서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or replenish)…"라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22절과 28절 모두 "페루 우르부 우밀우"(peru urvu umil'u)라는 동사 연속 구조, 곧 "다산하고, 번성하고, (무엇을) 채우라."를 그대로 공유한다. 영어로는 22절에서 fill, 28절에서 replenish라고 번역했으나, 히브리어 동사는 완전히 동일한 형태이다.

이제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라. "22절의 fill은 창조(처음 채움)를 뜻하고, 28절의 replenish는 재창조(다시 채움)를 뜻한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문맥도 같고, 히브리어 단어도 같다. 영어 번역에서는 단어가 달라졌지만, 그 단어조차 17세기 용례로 보면 둘 다 '채우다'라는 의미 범주 안에 포함된다.

바로 이처럼 성경 자체의 내장 사전(built-in dictionary)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8절의 replenish가 1장 22절의 fill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킹제임스 성경만이 주는 내장 사전 기능이다.

11. KJV가 말레를 'fill'로 번역한 대표 구절

KJV 역자들이 히브리어 동사인 말레(male')를 대부분의 구절에서 fill 또는 full로 번역했다는 사실은, 그들 자신이 이 단어의 의미를 '채우다'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abernacle)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처음으로 임하신 장면이다. 이 구절에 쓰인 fill은 '다시 채우다'가 아니라 '가득 채우다'이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히 채워"(I have filled him with the spirit of God)는 하나님께서 브살레엘에게 지혜와 기술의 영을 부어 주신 말씀으로, 이 구절의 fill 역시 순수하게 '채우다'이다.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는 스랍들이 외치는 선언으로, 여기에서도 말레(male')가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에서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더라."(the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는 노아 시대의 타락을 묘사하며, 역대기하 5장 13-14절에서 "**주**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 찼으니"(the house of the LORD was filled with a cloud)는 솔로몬 성전 봉헌 장면을 묘사한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the earth sha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는 장래의 약속을 선언한다.

이 모든 구절에서 KJV 역자들은 말레(male')를 일관되게 fill 또는 full로 번역하였다. 107회의 fill과 48회의 full을 합하면 155회 이상이며, 이에 비해 replenish는 7회에 불과하다. 역자들이 이 단어의 기본 의미를 '채우다'로 분명히 알면서도, 문체적 다양성을 위해, 또는 '가득 채운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드물게 replenish(당시 '가득 채우다'의 뜻)를 사용했음이 분명하다.

12. 창세기 1장 28절 명령의 전체 맥락 – 네 가지 명령의 의미

앞에서 replenish의 언어학적 문제를 다룬 데 이어, 창세기 1장 28절 전체가 담고 있는 명령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영어를 함께 보면 네 가지 명령 동사가 뚜렷이 보인다.

첫째, "다산하라."(Be fruitful)는 생명을 생산하고 열매 맺는 존재가 되라는 명령으로, 생물학적 자녀 출산뿐 아니라 의와 거룩함과 선한 행실이라는 영적·도덕적 열매까지 포괄한다.

둘째, "번성하라."(Multiply)는 수적으로 늘어나라는 명령으로, 한 가정·한 민족 수준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땅의 구석구석까지 가득 차도록 증가해야 함을 뜻한다.

셋째, , "땅을 가득 채우라."(replenish the earth)는 앞에서 상세히 다룬 대로, 아직 비어 있는 땅을 인류가 골고루 점유하라는 뜻이며, 결코 '다시 채

우다'가 아니다.

넷째,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두 동사로 나뉘는데, "정복하라."(Subdue)는 자연 세계를 개발·관리 가능한 상태로 제압하는 행위이고, "지배하라."(Have dominion)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 위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통치하라는 뜻이다. '정복'이 땅 전체의 질서를 잡는 행위라면, '지배'는 하위 창조물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3. 하나님의 형상, 복, 그리고 청지기 사명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단순한 '생물학적 번식 지시'가 아니다. 1장 26-27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졌다. 이어지는 1장 28절에서 "다산·번성·충만·정복·지배"의 명령이 주어짐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 곧 질서, 통치, 선한 지배를 반영하는 '대리 통치자, 청지기' 역할을 맡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의 내용 속에 사명을 담으셨으므로, 이 명령은 인간을 억압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며 땅을 풍성하게 만드는 특권이자 은혜이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 바다 생물과 새에게도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의 물들을 채우라."라는 유사한 명령이 주어지지만, 사람에게만 "정복하라, 지배하라."라는 말씀이 추가로 주어졌으며, 무엇보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특별한 복과 직접적인 말씀을 받은 존재라는 점에서 그 지위는 다른 창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14. '채우다'의 창조 신학적 함의

"땅을 가득 채우라."라는 명령에서 '채우다'(말레, male')가 지닌 신학적 무게는 상당하다. 구약 전체를 보면, 말레(male')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채우는' 장면(출 40:34),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선언(사 6:3),

장차 땅이 주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찰' 약속(합 2:14)에 동일하게 사용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가득 채우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라는 물리적 지시를 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로 온 땅이 가득 차서, 마침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계심을 암시한다.

반대로, 창세기 6장 11절에서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으므로"라고 할 때도 같은 동사가 쓰인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 대신 죄와 폭력이 땅을 채운 비극적 역전을 보여 준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채우다'라는 동사에 담긴 창조 신학적 대립 구도, 곧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지느냐, 인간의 죄로 채워지느냐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15. 신·구약 전체에서의 연속성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성경 전체에서 여러 방식으로 반복·확장된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창 9:1, 7)라고 다시 말씀하시며,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 밀루(mil'u)를 사용하신다. KJV에서도 이 구절이 replenish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역시 '가득 채우다'를 의미한다. 노아 홍수로 인류가 여덟 명으로 줄었으므로 표면적으로는 '다시 채우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히브리어 동사 자체에는 '다시'라는 의미가 내장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땅을 가득 채우라"는 동일한 명령이 반복된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 곧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라."(창 22:17)와 "그분[**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말씀은 인구의 번성과 땅의 약속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는 측면에서 창세기 1장 28절과 직접 연결된다. 신약에서는 육적 번성보다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마 28:18-20)라는 대위임령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들로 땅을 채우는 방향으로 창조 명령이 승화된다.

16. '정복하라'는 말의 의미

창세기 1장 28절에는 replenish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잠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창세기 1장 28절의 또 다른 명령, 곧 "땅을 정복하라."에서도 간극의 흔적을 찾으려 한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카바쉬(kabash)가 저항하거나 적대적인 대상을 제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아담이 마주한 땅이 이미 루시퍼의 반역으로 황폐해진 상태였음을 이 단어가 암시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해석은 단어의 실제 용례를 무시한 것이다. 카바쉬는 구약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대상이 이전에 파괴된 상태였음을 전제하지 않는다. 단순히 그것을 자신의 권위 아래 두는 데 있다. 민수기 32장 22절의 "그 땅이 **주** 앞에서 정복될 때까지 전쟁하면"이라는 구절은 어떤 우주적 재앙으로 황폐해진 땅을 수습한다는 뜻이 아니다. 여호수아기 18장 1절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땅이 그들 앞에서 정복되었으나"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 땅이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복속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가서 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불법들을 짓밟으시리니"라고 할 때도, 그것은 어떤 전쟁의 잔해를 수습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억누르고 다스리신다는 뜻이다.

이처럼 카바쉬는 그 대상이 이전에 적대적 상태에 있었다는 전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단어의 핵심은 통치 질서의 확립이다. 어떤 대상을 자신의 권위 아래 두고 질서 있게 다스리는 행위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신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명령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 명령은 결코 과거를 향하지 않는다. 이미 일어난 파괴를 되돌리는 복구 작업을 지시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향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지구는 인간에 의해 완전히 개발되고 경작된 상태가 아니었다. 에덴동산은 아름다웠지만, 지구 전체가 인간의 문화와 질서 아래 놓여 있지는 않았다. 인간이 번성하고 온 땅에 퍼져 나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의 다스림이 지구 전역에 미치게 하라는 것, 그것이 이 명령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 명령은 나무를 심고, 밭을 일구며, 자연을 질서 있게 다루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경작하는 청지기의 사역을 가리킨다. 창세기 2장 15절의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라는 구절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경작하고 지키는 일은 파괴된 세계를 수습하는 행위가 아니라,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꾸고 돌보는 일이다.

이 점은 창세기 1장 31절과도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선언하셨다. 만일 간극 이론의 주장처럼 아담이 정복해야 할 세계가 이미 파괴와 혼돈을 겪은 적대적 세계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정복이 필요한 적대적 세계'와 '매우 좋은 세계'는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카바쉬를 미래를 향한 경작과 통치의 명령으로 이해하면, 두 선언은 자연스럽게 일치한다. 완전하고 좋은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채우고 다스려야 할 사명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또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정복하라."라는 명령은 "지배하라."와 함께 주어진다.

'지배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다(radah) 역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시편 72편이나 에스겔서 34장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도, 그 대상이 이전에 파괴를 겪었기 때문에 통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전혀 없다. 단순히 '권위 아래 두고 다스린다'는 뜻이다.

결국 창세기 1장 28절의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명령은 모두 미래를 향한 통치의 명령이지, 과거의 파괴를 수습하라는 지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 1:28)

17. 결론: 창세기 1장 28절은 간극의 증거가 아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간극 이론의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는 두 단어, 곧 replenish와 히브리어 카바쉬(kabash)에 집중된다. 그러나 두 단어 모두 간극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먼저 replenish는 권위 있는 영어 사전의 역사적 용례로 보나, 히브리어 말레(male')의 구약 249회 전체 용법으로 보나,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의 완전한 평행 구조로 보나, KJV 역자들이 같은 단어를 107회 fill로 번역한 통계로 보나, KJV 이전의 모든 영어 성경 및 루터 성경, 레이나 발레라 성경, 올리베탕 성경의 번역 전통으로 보나, 그 뜻이 '가득 채우다'(fully fill)임이 분명하다. '다시 채우다'라는 의미는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1611년보다 1년 뒤인 1612년에야 처음 문헌에 나타나는 후대의 파생 의미일 뿐이며, 히브리어 원문 자체에는 '다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카바쉬(kabash)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동사는 구약의 실제 용례 어디에서도 이전의 파괴나 황폐를 전제하지 않는다. 이 단어의 핵심은 통치 질서의 확립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신 명령은 과거의 파괴를 수습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아직 채워지지 않은 땅을 채우고 다스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의 통치가 지구 전역에 미치게 하라는 미래를 향한 사명이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선언하신 사실은, '정복이 필요한 적대적 세계'라는 간극 이론의 전제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결국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 곧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명령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질서와 문화를 세우라는 창조 사명의 선언이다. 이 구절에서 간극이나 이전 인류의 멸망 후 다시 채움이라는 개념을 읽어 내는 것은, 언어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없으며, 후대에 달라진 영어 단어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덧씌운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 재창조 간극 이론 문제 • 6 》

이사야서 24장 1절과 45장 18절은 재창조와 아무 관련 없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묘사된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지구의 상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약의 여러 본문을 동원한다. 그 가운데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 이사야서 24장 1절과 이사야서 45장 18절이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 역시 이 구절들을 창세기 1장 2절의 교차 참조 본문으로 제시한다. 그들이 이 본문들을 인용하는 논리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이사야서 24장 1절을 보자.

보라, **주**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고 피폐하게 하시며 뒤집어엎으시고 땅의 거주민들을 널리 흩으시나니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 구절이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 원래 완전했던 지구가 황폐해진 사건, 곧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사야서 45장 18절을 토대로 자신들의 논증을 제시한다.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굳게 세웠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 구절에 주목한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헛되이'(in vain)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토후(tohu)이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without form) 상태로 묘사될 때 사용된 단어 역시 동일한 tohu이다. 두 구절에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점을 근거로, 그들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하나님의 원래 창조 의도가 아니라,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 완전한 창조가 황폐해진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 땅을 tohu, 헛되이, 즉 '형태가 없게' 창조하지 않으셨다(사 45:18).
2)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땅은 tohu, 즉 '형태가 없는' 상태에 있다.
3)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은 원래 창조의 상태가 아니라, 창조된 이후의 어떤 재앙으로 인해 tohu 상태로 전락하였음을 묘사한다.

이 논리는 얼핏 그럴듯해 보이나,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곧 문맥을 살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주장이다. 이사야서 24장과 이사야서 45장을 전체 문맥 안에서 읽어 보면, 이 본문들이 창세기 1장 2절과 아무런 관련

이 없다는 사실이 즉시 드러난다. 더 나아가, tohu에 근거한 간극 이론의 논증은 언어의 기본적인 이치조차 거스르는 주장이다.

이사야서 24장의 문맥: 이는 환난기의 심판이다

이사야서 2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면, 이 장이 묘사하는 심판이 어느 시대,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이사야서 2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보라, **주**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고 피폐하게 하시며 뒤집어엎으시고 땅의 거주민들을 널리 흩으시나니

이어지는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일어나며 종과 그의 주인에게, 여종과 그녀의 여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그에게 이자를 주는 자에게 똑같이 일어나리라.

이는 심판을 받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계층을 망라하는 표현이다. 이 심판이 임하는 세상에는 제사장도 있고, 종과 주인도 있으며, 매매가 이루어지고, 채무 관계가 존재한다. 즉,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회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세계이다.

그러나 간극 이론이 말하는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한 최초 창조 이전의 심판에는 인간 사회도, 희생 제도도, 상업 활동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통적 간극 이론은 첫 번째 창조에 천사와 비슷한 존재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제사장과 상업과 채무 관계가 있는 문명사회를 상정하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 이사야서 2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런 까닭으로 저주가 땅을 삼켰기에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그런 까닭으로 땅의 거주민들이 불에 타서 남은 사람들이 적게 되었도다.

이사야서 24장에서 심판의 도구는 '불'이다. 반면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상정하는 루시퍼의 홍수, 곧 최초 창조의 황폐화는 '물'에 의한 재앙이다. 그들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이 지구를 덮고 있는 장면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불로 임하는 심판과 물로 임하는 심판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 심판의 도구가 다르다는 점은 묘사하는 사건이 다르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다.

따라서 이사야서 24장이 묘사하는 심판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절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이다.

이사야서 24장의 결정적 증거: '남아 있는 자'가 있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이사야서 24장을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할 때 드러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사야서 24장에 '남아 있는 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사야서 24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땅의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백성 가운데 있을 때에 올리브나무를 흔드는 것과 포도 수확이 끝난 뒤에 남아 있는 포도를 줍는 것 같은 일이 있으리라.

심판 이후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마치 올리브나무를 흔든 뒤에도 가지에 열매가 남아 있고, 포도를 다 거둔 뒤에도 밭에 남아 있는 포도가 있듯이, 이 심판에서도 생존자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간극 이론이 상정하는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한 최초 창조의 소멸은 어떠한가? 그 격변은 살아남은 자가 없는 완전한 소멸이다. 간극 이론에 따르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첫 번째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된 결과이며, 그 폐허 위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 그렇다

면 '남아 있는 자'는 존재할 수 없다.

이사야서 24장은 심판 이후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반면에 간극 이론은 완전한 소멸을 전제한다. 두 그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24장은 간극 이론이 말하는 창조 이전의 소멸 사건을 묘사하지 않는다.

이사야서 45장 18절의 문맥: 이는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이다

이사야서 45장 18절을 살펴보자.

>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굳게 세웠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 구절을 창세기 1장 2절 해석의 핵심 열쇠로 사용한다. 이 구절이 과연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이사야서 45장의 전체 문맥부터 살펴야 한다.

이사야서 45장은 고레스 왕을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을 예언하면서 시작한다. 그 예언은 단순히 바빌론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넘어, 더 큰 종말론적 회복을 향해 나아간다.

이사야서 4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수치를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영존하는 구원'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시적 귀환을 넘어서는 선언이다. 따라서 18절은 창조의 세부 과정을 설명하려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헛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다.

논리 구조는 분명하다.

1) 하나님께서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
2)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3)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

이사야서 45장 18절은 창조의 세부 과정에 대한 주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목적의 확실성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을 확증하는 말씀이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 문맥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논하는 본문 속에서 창조에 관한 일부 구절을 떼어 내어 창세기 1장 2절 해석의 도구로 삼는다. 이는 본문의 흐름을 거스르는 처사이다.

tohu 논증의 논리적·언어적 오류

이제 간극 이론의 tohu(형태가 없다) 논증 자체를 살펴보자.

간극 이론 지지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tohu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셨다(사 45:18).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땅은 tohu 상태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의 tohu 상태는 최초 창조 직후의 모습이 아니라, 이후에 발생한 심판으로 인해 전락한 상태이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이사야서 45장 18절의 선언과 창세기 1장 2절의 묘사가 동일한 시점을 가리킨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창조의 상태와 창조 과정 중의 한 단계를 동일선상에 놓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상식에 어긋난다.

집을 짓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집을 짓는 자의 최종 목적은 완성된 집이다. 공사 초기에는 땅이 파헤쳐지고 골조만 세워져 있을 수 있다. 그 상태를 보고 "건축주는 골조만 있는 상태의 집을 지으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상태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창조도 마찬가지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된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초기 상태가 묘사된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엿새에 걸쳐 채워지고 형성된다.

여섯째 날 끝에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라는 완성의 선언이 나온다.

이 전체 과정의 최종 결과가 바로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된 땅'이다(사 45:18).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tohu 상태에 있는 것은 창조 의도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창조 과정의 출발점이다. 무언가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까지는 형태가 없을 수 있다. 이것은 언어의 기본적인 이치이다.

tohu의 다양한 용례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tohu가 반드시 심판이나 악의 결과로 인한 황폐함을 의미한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구약에서 tohu는 약 18회 사용되며, 그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다양하다.

욥기 26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여기에서 tohu는 '빈 곳'을 의미한다. 이는 심판이 아니라 우주의 빈 공간을 묘사한다.

이사야서 40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기시며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여기에서 tohu도 '헛된 것'을 뜻한다.

이사야서 40장 23절 역시 tohu를 '헛된 것'의 의미로 사용한다.

[그분께서는] 통치자들을 없애시고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나니

이러한 용례들은 tohu가 반드시 심판의 결과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님을 보여 준다. tohu는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 비어 있는 상태, 무질서한 상태'를 폭넓게 묘사하는 단어이다. 이 단어의 뜻이 '심판의 결과'인지, 단순한 '미완성의 상태'인지는 문맥이 결정한다.

창세기 1장 2절의 문맥은 심판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 단계를 묘사한다. 그러므로 이를 심판의 결과로 읽어야 할 근거는 본문 어디에도 없다.

《 재창조 간극 이론 문제 • 7 》

예레미야서 4장, 이사야서 34장은 추측 해석의 전형이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창세기 1장 2절의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지구 상태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원하는 또 다른 본문 중 하나는 예레미야서 4장 23-26절이다.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tohu wabohu)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이 떨고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으며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고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으며 내가 보니, 보라, 많은 열매를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고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의 얼굴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렘 4:23-26)

여기에는 창세기 1장 2절과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인 tohu wabohu(토후와보후,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가 등장한다. 본문에는 빛이 없고, 사람도 없고, 새도 없으며, 도시들이 무너지는 장면이 묘사된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것이 바로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 첫 번째 창조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 곧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을 예언자가 환상 가운데 목격한 장면이라고 주장한

다. 즉, 창세기 1장 2절의 tohu wabohu 상태는 본래 아름다웠던 창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해진 결과이며, 예레미야서 4장이 바로 그 심판의 장면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이 두 본문에 모두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장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해석이 얼마나 추측에 의존하며, 근거 없는 가정 위에 서 있고,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서 4장의 심판은 과거 창조 이전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 곧 대환난 기간에 성취될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간극 이론 지지자들의 적용은 시간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완전히 빗나간 해석이다.

같은 단어, 다른 의미: 언어는 문맥이 결정한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예레미야서 4장 논증에서 범하는 첫 번째 오류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으므로 동일한 사건을 가리킨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언어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곧 단어의 의미는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치를 무시하는 논리이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말에서 '죽다'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된다. "꽃이 죽었다."라고 할 때의 죽음,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의 죽음, "불이 죽었다."라고 할 때의 죽음은 모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현실을 가리킨다. 이처럼 동일한 단어가 등장한다고 해서 동일한 사건을 가리킨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tohu wabohu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 2절과 예레미야서 4장 23절 두 곳에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두 구절이 동일한 사건을 가리킨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두 구절이 각각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로 구약에서 tohu와 wabohu가 사용된 다른 경우들을 보면, 이 표현이 반드시 심판의 결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tohu는 욥기 26장 7절에서 우주의 빈 공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이사야서 40장

1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들이 '없는 것보다 더 못한 헛된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며, 이사야서 40장 23절에서는 세상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처럼 tohu는 단순히 '비어 있음', '미개발 상태', '무의미함'을 가리키는 폭넓은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이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심판으로 인한 황폐함을 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모든 문맥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예레미야서 4장 23절의 tohu wabohu가 심판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창세기 1장 2절의 tohu wabohu도 심판의 결과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논리의 순서를 뒤집은 격이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 tohu wabohu가 심판의 결과를 묘사하는 것은 그 단어 자체의 고정된 의미 때문이 아니라, 그 구절이 속한 문맥이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동일한 표현이 심판의 결과를 가리킨다고 보려면, 창세기 1장 2절의 문맥 자체가 그것을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의 문맥은 심판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 단계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 4장 23절을 근거로 창세기 1장 2절을 해석하는 것은, 더 넓은 예언 문맥을 가진 본문으로 더 직접적인 창조 문맥을 가진 본문을 재해석하려는 역주석에 해당한다. 이는 본문이 말하는 바를 따라가는 해석이 아니라, 이미 세워 둔 가설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본문을 동원하는 방식일 뿐이다.

예레미야서 4장의 문맥: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다

예레미야서 4장 23-26절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구절들이 속한 더 넓은 문맥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레미야서 4장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레미야서 4장의 배경은 분명하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3절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로 시작하며, 4절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해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라고 기록한다. 이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선언으로 이어진다. 5절부터는 나팔 소리, 시온을 향해 세워지는 깃발, 사자처럼 달려오는 멸망시키는 자 등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펼쳐진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원인을 22절에서 분명히 밝히신다.

>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식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렘 4:22)

여기에서 결정적인 표현인 '내 백성'이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대상은 이스라엘이다. 창조 이전 루시퍼의 반역과 그로 인한 격변을 묘사하는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아담도 아직 창조되지 않았고, 이브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민족 역시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의 '내 백성'은 예레미야서 전체 문맥에서 볼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이 배경에서 23-26절이 등장한다. 예레미야는 환상 가운데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빛이 없고,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이 없고, 하늘의 새도 없으며, 도시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 장면이 루시퍼의 홍수 이후 황폐해진 지구를 묘사한다고 주장하지만,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보는 시점은 22절에서 '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선포된 직후이다. 즉,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언자가 미리 목격하는 장면이다.

이는 창조 이전 사건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의 예언적 환상이다.

결정적 증거 1: '내 백성'이 있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예레미야서 4장 23-26절을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시키려 할 때, 극복할 수 없는 첫 번째 장벽은 바로 '내 백성'의 존재이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백성이 어리석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내 백성'은 직전 문맥과 예레미야서 전체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의심의 여지 없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예레미야서에서 '내 백성(ammî, 암미)'이라는 표현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언약적 표현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 표현은 창조 이전 사건을 묘사하는 문맥에서 등장할 수 없다. 창조 이전에는 어떤 인간도, 어떤 민족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 난점을 피하기 위해 23-26절이 22절의 '내 백성'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사건, 곧 창조 이전의 황폐함을 묘사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예레미야가 자신이 전개하고 있는 문맥과 아무 관련 없는 장면을 갑자기 삽입하였다가 다시 본래의 주제로 돌아온다는 뜻이나 다름없으므로, 정상적인 예언 서술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본문을 자연스럽게 읽으면, 22절의 '내 백성'의 어리석음이 23-26절의 심판 장면으로 이어지고,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내가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라고 하신 선언으로 마무리된다. 이것이 하나의 일관된 서사 구조이다.

결정적 증거 2: 남은 자가 있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예레미야서 4장 23-26절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두 번째 장벽은 27절의 말씀이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내가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렘 4:27)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심판 이후에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레미야서 전체의 문맥에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는 언약적 약속이다.

그러나 간극 이론이 상정하는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한 최초 창조의 소멸은 어떠한가? 그것은 살아남는 자가 없는 완전한 파괴이다. 전통적인 간극 이론에 따르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첫 번째 창조에 속한 모든 생명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지구가 물로 뒤덮인 황폐한 상태이다.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 따라서 남은 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4장 27절은 분명히 완전한 멸절이 아님을 선언한다. 이는 간극 이론이 묘사하는 전면적 소멸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림이다. 예레미야서 4장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사건이지, 모든 것을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우주적 파괴가 아니다.

결정적 증거 3: 도시들이 있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예레미야서 4장 23-26절을 창세기 1장 2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세 번째 장벽은, 본문에 도시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예레미야서 4장 26절은 "많은 열매를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고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의 얼굴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라고 말한다. 또한 29절은 "말 탄 자들과 활 쏘는 자들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온 도시가 도망하여"라고 기록한다. 도시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적군의 소리를 듣고 도망하여 수풀로 들어가거나 바위 위로 피신한다.

창조 이전의 황폐한 지구에는 도시가 존재할 수 없다. 간극 이론이 상정하는 루시퍼 반역 이전의 세계에 도시 문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견해가 없지 않으나,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상상일 뿐이다. 반면 예레

미야서 4장이 묘사하는 배경에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역사 속 인간 문명이 존재하는 상황임이 확실하다.

더 나아가 29절에서 사람들이 적군의 소리를 '듣고' 도망한다는 표현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을 묘사한다. 듣는 주체가 있고, 위험을 인식하는 판단이 있으며, 피신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있다. 이러한 세부 묘사들은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임할 심판을 가리킨다.

결정적 증거 4: 배경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다

예레미야서 4장의 지리적 배경 역시 간극 이론의 해석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이 장에서 심판을 받는 땅이 어디인지는 문맥 속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레미야서 4장 5절은 "유다에서 밝히 알리며 예루살렘에서 널리 알려 이르기를"이라고 말한다. 10절은 "주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라고 기록하며, 11절은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향한 *말이 있어*"라고 말한다. 14절에서는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사악함을 씻어 버리라."라고 직접 예루살렘이 호명된다. 16절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널리 알리기를, 순찰자들이 먼 나라에서 와서 유다의 도시들을 대적하여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한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예레미야서 4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 23-26절은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그 심판의 처참한 모습을 미리 목격하는 장면이다. 예레미야는 마치 그 심판이 이미 임한 것처럼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의 모습을 본다. 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창조 초기의 미완성 상태를 묘사하는 언어인 tohu wabohu를 사용한다. 이는 예언 문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사적 장치로서, 심판으로 인한 황폐함의 극한을 강조하기 위해 창조 초기의 미완성 상태를 연상시키는 언어를 차용한 것이다. 이는 결코 창조 이전의 실제 사건을 서술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을 담은 장에서 돌연 창조 이전의 루시퍼 반

역으로 인한 지구의 황폐함이 등장한다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이는 문맥의 흐름과 완전히 어긋나는 해석이다.

예레미야서 4장의 시점: 환난기 심판을 가리키는 예언이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서 4장 23-26절이 묘사하는 심판의 시점은 언제인가? 본문의 직접적인 문맥과 성경 전체의 예언 구조를 함께 고려할 때, 이 구절은 다니엘의 70번째 이레, 곧 7년 환난기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판은 전례가 없는 수준의 규모이다. 예레미야서 4장 23-26절은 단순한 전쟁 피해나 지역적 침공을 넘어, 온 땅이 tohu wabohu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전면적 황폐함을 묘사한다. 성경에서 이러한 규모의 심판은 종말론적 환난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둘째, 27절의 선언이다. "그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내가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라는 말씀은 환난 기간 중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선언과 조화를 이룬다(렘 30:7; 슥 13:8-9; 계 12:17). 심판은 참혹하지만, 이스라엘의 완전한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셋째,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통해 임한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종말론적 심판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전쟁을 넘어 하나님의 직접적 진노가 임하는 시기를 가리킨다.

물론 이 구절의 일차적 역사적 배경은 바빌론의 침공일 수 있다. 성경의 예언은 종종 근접 성취와 원거리 성취를 함께 담는다. 바빌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멸이 일차적 성취라면, 대환난 기간에 있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원거리 성취일 수 있다.

어느 쪽으로 보든, 이 본문은 역사 속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지, 창조 이전의 황폐함에 대한 기술이 아니다.

이사야서 34장의 동일한 표현의 문맥: 에돔과 민족들을 향한 심판

예레미야서 4장에 대한 반박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여기에 이사야서 34장 11절을 추가로 동원하여 자신들의 논증을 보강하려 한다. tohu wabohu가 성경에 세 번만 등장하는데, 예레미야서 4장 23절과 이사야서 34장 11절이 모두 심판 문맥에서 사용되므로, 창세기 1장 2절 역시 심판을 묘사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제 이사야서 34장 11절을 직접 살펴보자.

먼저 이사야서 34장의 문맥은 분명하다. 이 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에돔과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 1절은 "민족들아, 너희는 가까이 와서 들으라. 백성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시작하며, 5절은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보라, 그것이 이두매아에 내려오고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내려와 심판하리라."라고 하여 심판의 대상이 명확히 제시된다. 이 장 전체는 종말론적 심판의 선언이다.

11절은 그 심판의 결과를 묘사한다. "그분께서 그 위에 혼돈(tohu)의 줄과 공허(bohu)의 돌들을 팽팽히 드리우시리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진 땅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 그 땅이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고, 가시와 잡초가 무성하며, 온갖 부정한 존재들의 서식지가 되는 모습이 계속 묘사된다. 이는 에돔(이두매아)에 임할 심판의 결과를 그린 것이지, 창조 이전에 있었던 어떤 우주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논증의 방향이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사야서 34장과 예레미야서 4장을 근거로 창세기 1장 2절을 해석하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방향 오류가 있다. 왜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 표현을 사용했는가?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언어가 이미 독자들에게 익숙했기 때문이다. 두 대언자는 장차 임할 심판의 극한을 표현하기 위해, 창세기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이 점을 바로 이해하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창세기 1장 2절의 표현을 빌려 심판을 묘사했다는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이 심

판을 묘사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표현의 원형이 창세기에 있음을 보여 준다. 차용된 본문이 원형 본문의 의미를 결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차용이 가능하려면, 독자들이 이미 창세기 1장 2절을 창조 초기의 상태로 이해하고 있었어야 한다.

수사적 장치를 사실 기술로 오해하는 오류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범하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오류는, 예언 문학에서 사용되는 수사적 장치를 문자적 역사 기술로 오해하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사용한 tohu wabohu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차용하여, 임박한 심판의 처참함을 독자들에게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이다. 이는 오늘날의 작가가 어떤 거대한 파괴를 묘사하면서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표현이 실제로 우주 종말에 대한 기술이 아니듯이, 예레미야의 tohu wabohu 역시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을 재현하려는 표현이 아니다.

히브리 예언 문학에서는 이전 성경의 언어와 이미지를 차용하여 새로운 상황을 묘사하는 방식이 흔하다. 이러한 방식을 두 본문이 동일한 사건을 다룬다는 증거로 삼는 해석은, 현대 작가가 "우리 팀의 패배는 타이타닉의 침몰만큼 충격적이었다."라고 썼을 때 그것이 실제 타이타닉 사건의 기록이라고 해석하는 오류와 같다. 예레미야가 tohu wabohu를 사용한 목적은 창세기 1장 2절을 해석하려는 데 있지 않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질 이스라엘 땅의 상태를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적 언어로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수사적 의도를 무시한 채 표현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두 구절이 동일한 사건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문학적 읽기의 기본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헨리 모리스의 결론과 그 의미

헨리 모리스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심판은 유사한 수사 표현 외에는 창세기 1장 2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말은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 모리스는 두 본문 사이에 수사적 유사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수사적 유사성이 곧 사건의 동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언어적 표현의 유사성과 역사적 사건의 동일성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 구분을 무시하거나 혼동함으로써, 수사적 유사성에서 신학적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론: 추측과 가정 위에 세워진 해석

예레미야서 4장 23-26절과 이사야서 34장 11절을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시키는 간극 이론 지지자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 가지 가정 위에 세워져 있다.

첫째, tohu wabohu라는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세 본문이 동일한 사건을 가리킨다는 가정.

둘째,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묘사가 수사적 표현이나 예언적 환상이 아니라 문자적 우주 역사 기술이라는 가정.

셋째, 세 본문이 각각 주변 문맥과 독립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가정.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정 가운데 어느 하나도 본문의 지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본문 자체가 이를 반박한다. 이사야서 34장은 에돔을 향한 심판을, 예레미야서 4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각각 선명한 역사적·지리적 문맥 속에서 선언한다.

이제 세 본문을 함께 정리해 보자. tohu wabohu의 의미는 문맥이 결정한다. 예레미야서 4장과 이사야서 34장에서는 심판으로 인한 황폐함을 나타내

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창조 초기의 미완성 상태를 나타낸다. 더 중요한 점은, 두 대언자가 창세기의 언어를 차용하여 심판의 처참함을 표현했다는 사실 자체가, 창세기 1장 2절이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출발 상태를 묘사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 세 본문의 관계를 거꾸로 읽고 있다. 예레미야서 4장 23-26절과 이사야서 34장 11절은 간극 이론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창세기 1장 2절이 창조 초기의 미완성 상태를 묘사한다는 결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본문들이다. 두 대언자는 창세기의 언어를 빌려 심판의 철저함을 선언한 것이지, 창세기 1장 2절이 루시퍼의 심판으로 인한 황폐함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증언하지 않는다.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 그것이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이다.

《 재창조 간극 이론 문제 • 8 》

시편 82편과 욥기 본문들은 간극의 증거가 아니다

시편 82편 5절과 욥기의 여러 구절들도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빠뜨리지 않고 인용하는 본문들이다. 시편 82편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서 걷나니 땅의 모든 기초들이 궤도를 벗어나 있도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땅의 모든 기초들이 궤도를 벗어나 있도다'라는 표현에서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한 우주적 파괴의 흔적을 찾으려 한다. 지구의 물리적 기초가 흔들렸다는 표현이 창세기 1장 2절 이전의 격변을 가리킨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해석은 시편 82편 전체의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

된다. 시편 82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한 재판과 통치의 문제를 다룬다. 1절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라고 선언하고, 2절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들을 편파적으로 편들려 하느냐?"라고 책망한다. 이어지는 3-4절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호하라는 명령이다. 이처럼 시편의 흐름은 창조 질서가 아니라 정의와 통치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5절의 '땅의 모든 기초들이 궤도를 벗어나 있도다'라는 표현은 지구의 물리적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 통치자들이 정의를 버릴 때 사회적·도덕적 질서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시적으로 선언한 말이다. 이는 시편 11편 3절의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오?"와 유사한 표현으로, 둘 다 지질학적 구조가 아니라 도덕 질서의 붕괴를 가리킨다.

욥기에도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본문들이 있다. 대표적인 구절은 다음 네 곳이다.

> 그분께서 땅을 흔드사 그것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니 땅의 기둥들이 떠는도다. (욥 9:6)

>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 38:4)

> …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니라. (욥 22:16)

>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욥 26:5)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 구절들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땅의 기초'라는 표현을 지구의 물리적 파괴로 연결하고, 욥기 22장의 홍수를 노아의 홍수가 아닌 창세기 이전의 '루시퍼 홍수'로 본다. 또한 욥기 26장의 '죽은 것들'을 아담 이전 생명체의 흔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각 본문의 문맥과 장르를 동시에 무시한 것이다.

욥기 9장 6절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욥의 고백이며, 욥기 38장 4절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시는 장면이다. 두 본문 모두 파괴 이후의 재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시적으로 표현한다.

욥기 22장 15-16절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경고하기 위해 과거 심판 사례를 언급하는 장면이다. 이 자리에 언급되는 사건은 청중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어야 한다. 성경 전체에서 홍수 심판의 대표적 사례는 노아의 홍수뿐이다.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 역시 동일하게 노아의 홍수만을 역사적 선례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 구절을 '루시퍼 홍수'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욥기 26장 5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욥기 25장에서부터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욥기 25장은 빌닷의 마지막 발언이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직 하늘의 영역에 국한시켜 말한다. "통치권과 두려움이 그분께 있으므로 그분께서는 자신의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분의 군대에 무슨 수효가 있느냐? 그분의 빛이 떠올라 닿지 않는 자가 누구냐?"(욥 25:2-3). 이어서 그는 달도 밝지 않고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 순수하지 않다고 말한다(욥 25:5). 빌닷이 그리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분, 수없는 천군을 거느리시는 분, 달과 별들조차 그 앞에서 빛을 잃는 분이시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위만 향하고 있다. 하늘 아래, 땅 아래,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빌닷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다.

욥은 26장에서 빌닷의 이 좁은 시각을 넘어선다. 욥기 26장 1-4절에서 욥은 빌닷의 말이 얼마나 무익한 위로였는지를 지적한 뒤, 5절부터 빌닷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펼쳐 보인다. 빌닷이 위만 보았다면, 욥은 가장 아래에서부터 시작한다. 5-6절에서 지옥에 있는 죽은 자들의 세계, 7절에서 허공에 매달린 땅과 북쪽 하늘, 8-9절에서 구름과 하나님의 왕좌, 10-11절에서 바다의 경계와 하늘의 기둥들, 12-13절에서 바다를 가

르시는 권능과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는 데까지 올라가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음을 선포한다. 즉, 욥의 찬양은 빌닷이 말하지 못한 가장 어두운 곳, 사람이 볼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빌닷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찾았다면, 욥은 그 정반대편인 지옥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으로 응답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 욥기 26장 5절을 보자.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형성되었다'(formed)는 단어에 주목하여, 물들 아래에서 무언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루시퍼 홍수로 멸절된 아담 이전의 생명체들이 화석으로 남아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formed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면 이러한 해석은 성립하지 않는다. form의 기본 의미는 '형태를 이루다', '모습을 갖추다', '일정한 상태를 이루다'이다. 이 의미대로 읽으면, 이 구절은 물들 아래의 죽은 것들이 그 아래에서 '일정한 형태와 자리를 갖춘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are formed)을 말한다. 이 구절은 아담 이전 생명체가 물들 아래에서 형성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물들 아래에 죽은 자들의 세계가 일정한 형태와 자리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다.

이어지는 6절이 이 의미를 분명히 확정한다.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도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형태와 자리를 가지고 물들 아래에 존재하는 그 지옥의 세계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겨져 있다. 5절과 6절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이 구절의 핵심은 물들 아래에서 무엇이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지 않다. 죽음의 세계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

혀 감추어질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논점이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 점은 더욱 선명해진다. 히브리 시 문학은 영어 시와 달리 운율이 아니라 대구(對句), 곧 평행법을 기본 구조로 삼는다. 평행법은 앞 행과 뒤 행이 서로 대응하거나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욥기 26장 5절과 6절이 바로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5절의 '죽은 것들'은 6절의 '지옥'과 대응하고, 5절의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은 6절의 '멸망'과 대응한다. 이 두 절은 동일한 영역, 곧 죽은 자들의 세계를 두 가지 표현으로 반복하여 선언하는 히브리식 동의적 평행법이다. 이 대응 구조 안에서 5절의 '죽은 것들과 그 거주민들'이 가리키는 것은 지옥과 멸망, 곧 죽은 자들의 세계임이 본문 자체의 구조로 확정된다.

이 평행법 구조는 간극 이론의 해석을 차단한다. 만약 5절의 '죽은 것들'이 루시퍼 홍수로 멸절된 아담 이전 생명체들의 화석이라면, 그것과 대응하는 6절의 '지옥'도 같은 의미여야 한다. 그러나 그 해석은 성립하지 않는다. 히브리 시 문학의 평행법은 두 행이 같은 실재를 가리키도록 구성되기 때문이다. 5절이 지옥을 말하고, 6절도 지옥을 말한다. 5절과 6절은 하나의 선언이다. 그 선언의 핵심은 6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도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물들 아래 형태를 갖추고 자리 잡은 그 죽음의 세계, 지옥과 멸망의 영역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겨져 있다. 화석이 아니라 지옥이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표현 자체가 해석을 결정한다. 욥기 26장 5절은 '죽은 것들'만 언급하고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라는 말이 이어진다. 이것이 결정적이다. 화석에는 거주민이 없다. 화석은 한때 살았으나 이제는 죽어 돌이 된 것이다. 거기에 거주하는 자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거주민이 있다고 말한다. 거주민이 있다는 것은 그 영역이 지금도 실재하며 거기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뜻한다. 이는 사자의 세계, 곧 죽은 자들의 혼이 거하는 지옥을 가리킬 뿐, 과거에 멸절된 생명

체들이 화석으로 쌓여 있는 지질층을 가리키지 않는다.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라는 한 표현이 간극 이론의 화석 해석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14절에서 욥은 이 모든 장엄한 선언을 이렇게 마무리한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분의 길들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느니라.… (욥 26:14)

욥이 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아담 이전 생명체의 화석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5절도 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욥기 26장은 지질학적 설명이 아니다. 빌닷이 하늘에서만 찾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욥이 가장 깊은 지옥에서부터 가장 높은 하늘까지 전 영역에 걸쳐 선포하는 찬양이며, 그 찬양조차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극히 작은 일부임을 고백하는 경배이다.

욥기 26장 5절은 물들 밑에서 아담 이전의 생명체가 형성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물들 아래에 형태를 갖추고 자리 잡은 죽은 자들의 세계와 거기 거주하는 자들조차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수 없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 선언마저도 하나님의 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 시편 82편과 욥기 본문들은 재창조의 증거가 아니다

시편 82편 5절은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한 지구의 물리적 파괴를 묘사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불의한 통치자들이 정의를 저버릴 때 사회적·도덕적 질서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시적으로 선언한 말씀이다. 시편 전체의 문맥은 창조 질서가 아니라 정의와 통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땅의 기초들'은 지질학적 구조가 아니라 도덕 질서를 가리킨다.

욥기의 본문들도 마찬가지이다. 욥기 9장 6절과 38장 4절은 재창조가 아니라 창조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을 시적으로 표현한다. 욥기 22장 16절의 홍수는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노아의 홍수 외에 다른 해석이 성립하지 않는

다. 그리고 욥기 26장 5절은 아담 이전 생명체의 화석 기록이 아니라, 물들 아래에 형태를 갖추고 자리 잡은 죽은 자들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수 없다는 선언이다. 히브리 평행법 구조와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라는 표현이 이 결론을 본문 자체의 구조로 확정한다.

간극 이론은 이 본문들에서 '홍수', '기초', '죽은 것들'과 같은 단어만을 떼어 내어 자신들의 이론에 맞게 재배치한다. 그러나 단어는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시적 표현을 지질학적 사건으로 전환하는 순간,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은 무너진다. 시편 82편과 욥기의 이 본문들은 간극 이론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시적으로 찬양하는 말씀이다.

《 재창조 간극 이론 문제 • 9 》

에스겔서 28장의 에덴은 에덴동산이 아니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동원하는 또 다른 본문은 에스겔서 28장 13-14절이다. 그들은 이 구절이 루시퍼가 창조 초기 지구에 실제로 존재했던 에덴동산에 거주하였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으며…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겔 28:13-14)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루시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최초의 완전한 지구, 곧 원래의 에덴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렸다.

2)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범죄하였고(겔 28:15–17),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 아름다운 지구는 황폐해졌다.
3) 그 결과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던'(tohu wabohu) 상태이다.

이때 그들은 에스겔서 28장의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과 동일한 장소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이 전제는 맞지 않다. 창세기 2장의 에덴은 아담이 창조된 이후 인간의 거처로 준비된 공간이지, 루시퍼가 아담 이전에 거주하던 공간으로 묘사된 적이 없다. 에덴이라는 단어가 두 본문에 공통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 두 본문이 동일한 장소를 가리킨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은, 앞서 예레미야서 4장을 다룰 때 확인한 원칙과 같다. 단어가 같다고 해서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만일 에스겔서 28장의 에덴이 지구상의 실제 동산이라면, 루시퍼는 지구를 다스리던 존재가 되고, 그의 타락이 창세기 1장 2절의 황폐함을 야기했다는 간극 이론의 핵심 구조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에스겔서 28장을 전체 문맥 안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이 장은 지구의 에덴을 다루는 본문이 아니다. 오히려 하늘의 위계질서와 하나님의 왕좌를 중심으로 한 묘사 속에서 루시퍼의 지위와 타락을 드러내는 본문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근거 1: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처소를 가리킨다

에스겔서 28장 14절은 루시퍼가 있었던 장소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말한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곳을 지구상의 에덴동산으로 해석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산' 또는 '거룩한 산'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지리적 산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이 드러나는 장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에스겔서 28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라.

그리고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지고

이 본문은 이동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다. 그는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 '땅'으로 던져진다.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이는 그의 원래 거처가 땅이 아니라 더 높은 영역,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역이었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이 사실을 직접 말씀해 주신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은 '하늘로부터' 떨어진다. 지구의 동산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는 그의 원래 위치가 하늘의 영역이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또한 '덮는 그룹'이라는 표현도 중요하다. 그룹은 단순한 동산 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통치를 상징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그룹들이 날개로 긍휼의 자리를 덮듯이, '덮는 그룹'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밀접하게 연결된 위치를 암시한다. 이는 지구의 에덴동산에서의 사역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왕좌와 관련된 하늘에서의 사역에 더 부합한다.

따라서 에스겔서 28장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지구상의 에덴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본문의 흐름에 어긋나는 해석이다.

근거 2: 에스겔서 28장의 에덴은 보석의 영광으로 묘사된다

에스겔서 28장 13절은 그가 있었던 에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으며…

이 묘사는 식물과 강과 흙과 경작이 중심이 되는 창세기의 에덴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띤다. 창세기 2장에서는 나무들이 자라고, 강이 흘러가며, 사람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동산이 묘사된다. 반면 에스겔서 28장의 에덴은 보석의 찬란함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차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가 아니다. 장소의 성격 자체가 다르게 그려진다. 창세기의 에덴은 인간이 거주하고 경작하는 생태적 동산이지만, 에스겔서 28장의 에덴은 영광과 보석과 아름다움으로 단장된 초월적 공간으로 묘사된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묘사된 새 예루살렘에 비추어 보면, 에스겔서 28장의 보석 묘사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연상하게 한다. 보석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에덴의 묘사는, 에스겔서 28장의 중심 주제가 지구의 동산이 아니라 하늘의 위계질서 속에서의 지위와 추락임을 뒷받침한다.

근거 3: 에스겔서 28장의 주제는 지구 통치가 아니라 하늘 위계 속 지위이다

에스겔서 28장은 표면적으로는 두로 왕을 향한 말씀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12절 이후의 묘사는 단순히 한 인간 왕의 역사적 경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표현들을 담고 있다.

네가 창조되던 날에 (겔 28:13)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겔 28:15)

이 표현들은 두로의 인간 왕만을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두로 왕의 교만을 책망하면서 동시에 그 배후의 영적 실체, 곧 사탄의 교만과 타락을 함께 드러내는 이중적 서술이라고 본다.

그렇게 보더라도, 에스겔서 28장의 중심 주제는 "루시퍼가 지구의 에덴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지위를 가졌고, 어떻게 그 지위에서

추락했는가"임이 분명하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으로서 지혜가 충만하며 빼어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였다.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겨나 땅으로 던져졌다.

이 전체 서사는 지구의 동산 관리자의 이야기라기보다, 하늘의 위계질서상 최고 지위에 있던 존재의 추락 이야기로 읽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

근거 4: 이사야서 14장이 증언하는 루시퍼의 타락 장소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에스겔서 28장과 함께 이사야서 14장 12–15절을 루시퍼의 반역에 대한 또 하나의 핵심 본문으로 인용한다.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사 14:12–15)

이 구절이 루시퍼의 반역을 묘사하는 본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여기에서 도출하는 결론, 곧 루시퍼의 반역이 지구상에서 일어났으며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황폐함을 야기했다는 주장은 본문이 실제로 말하는 내용과 다르다.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루시퍼의 반역이 일어난 장소와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가 탐한 것은 '하나님의 별들 위'였고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이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는 것'이었다.

이 모든 표현은 그의 원래 거처와 야망이 하늘의 영역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하늘로 올라가'라는 말은 그의 야망의 방향을 나타낼 뿐, 그의 원래 거

처가 하늘 아래였다는 뜻이 아니다. 결국 그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루시퍼의 타락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다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로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진 사건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라고 말씀하시며 이 방향을 정확히 확인해 주신다.

결론: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은 간극 이론의 지지 본문이 아니다

에스겔서 28장은 루시퍼가 지구상의 에덴에 거주했다는 확정적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장은 그가 하나님의 왕좌와 관련된 하늘의 영역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다가 교만으로 인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던져진 사건을 묘사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겔 28:14)은 천상의 영역을 가리키는 표현이며 그가 쫓겨나는 방향은 하늘에서 땅으로 향하는 하강이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눅 10:18)라고 친히 증언하셨고, 본문의 보석의 영광은 지상의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좌 주변의 천상적 영광에 부합한다. 이 모든 정황은 에스겔서 28장이 창세기 1장 2절 이전의 지구 황폐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이 아니라 천상에서 일어난 루시퍼의 추락을 묘사하는 본문임을 일관되게 가리킨다.

따라서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은 간극 이론을 세워 주는 본문이 아니라, 서로를 확증하는 두 증인으로서 루시퍼의 반역이 지구가 아닌 하늘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일관되게 증언한다.

귀스타브 도레 〈루시퍼의 타락〉

《 재창조 간극 이론 문제 • 10 》

베드로후서 3장은 루시퍼 홍수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이다

베드로후서 3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베드로의 말을 담고 있다.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라.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벧후 3:3-7)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6절의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라는 구절이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지구가 물로 뒤덮이게 된 루시퍼의 홍수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6절에서 세상이 물로 멸망하였다고 하는데,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 여덟 명이 살아남았으므로 세상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다.
2) 반면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루시퍼의 홍수는 모든 생명체가 완전히 소멸된 전면적 멸망이었으므로,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멸망하였으나'라는 표현에 더 적합하다.
3) 5절의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다."라는 묘사는 창세기 1장 2절의 물로 뒤덮인 지구 상태를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6절의 홍수는 그 상태 이전에 있었던 루시퍼의 홍수이다.

그러나 이 해석은 베드로후서 3장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성립되지 않는다. 베드로의 논증은 아담 이전의 지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창조와 노아의 홍수라는 본문 안에 이미 확립된 두 사건을 토대로 장차 있을 불의 심판을 논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거 1: 예수님께서는 오직 노아의 홍수만 말씀하셨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이 루시퍼의 홍수를 가리킨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24장 38-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7절도 동일한 사건을 가리킨다.

>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역사적 선례로 오직 노아의 홍수만을 언급하신다. 루시퍼의 홍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홍수가 노아의 홍수인지 루시퍼의 홍수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을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역사적 홍수 심판의 사례를 드셨는데, 그것은 일관되게 노아의 홍수였다. 만약 루시퍼의 홍수라는 사건이 성경이 증언하는 실재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노아의 홍수만을 심판의 유형으로 사용하셨다고 보기 어렵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청중이 이미 아는 역사적 사실로 전제하시고,

그것을 마지막 때의 심판과 비교하신다. 이는 노아의 홍수가 심판의 역사적 모범으로서 성경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건임을 보여 준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근거하여 베드로후서 3장을 기록하였다.

근거 2: '카타클뤼스모스'는 오직 노아의 홍수만을 가리킨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의 해석에 대한 두 번째 강력한 반론은 언어적 차원의 문제이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세상을 덮은 홍수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단어는 카타클뤼스모스(kataklysmós)이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 카타클뤼스모스(kataklysmós)는 네 번 등장한다.

- 마태복음 24장 38–39절 – 노아 시대의 홍수
- 누가복음 17장 27절 – 동일한 사건
- 베드로후서 2장 5절 – 동일한 사건
- 베드로후서 3장 6절 – 동일한 사건

즉,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예외 없이 노아의 홍수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단 한 번도 다른 홍수나 다른 사건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적이 없다.

언어는 용례로 해석된다. 만약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카타클뤼스모스(kataklysmós)가 루시퍼의 홍수를 가리킨다면, 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의 유일한 예외적 용례가 된다. 그러나 특별한 문맥적 이유 없이 확립된 용례를 벗어나 해석하는 것은 정당한 주석 방법이 아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같은 서신 안에서 노아를 직접 언급하며 동일 어근의 단어를 사용한다.

>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벧후 2:5)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3장 6절은 같은 서신 안에서 같은 어근의 단어를 사용하여 같은 사건, 곧 노아의 홍수를 가리킨다. 두 구절을 분리하여 3장 6절을 별개의 홍수로 보는 것은 서신의 내적 일관성을 허무는 해석이다.

근거 3: '그때 있던 세상'과 '옛 세상'은 단수이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의 주장에 대한 세 번째 반론은 어법상의 문제이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은 '그때 있던 세상'(the world that then wa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옛 세상'(the old world)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두 표현 모두 단수이다.

간극 이론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미 루시퍼의 홍수로 인해 첫 세상이 멸망했던 셈이 된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세상이 물로 멸망한 두 번째 사건이 된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베드로가 '그때의 세상'이나 '옛 세상'이라고 단수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물로 망한 세상이 두 개라면 '그때 있던 세상들'(worlds) 혹은 '옛 세상들'이라는 복수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관되게 단수를 사용한다. 이는 베드로가 물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단 한 번, 곧 노아의 홍수로만 알고 있음을 보여 준다. 베드로는 루시퍼의 홍수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다.

만약 루시퍼의 홍수가 성경이 증언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면, 이 사실을 베드로가 완전히 무시하고 단수로만 표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베드로가 아는 홍수 심판은 단 하나, 곧 노아의 홍수이다.

근거 4: 간극 이론의 내부 모순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라는 표현을 노아의 홍수에 적용할 수 없다는 간극 이론 지지자들의 주장 역시 심각한 내부 모순을 지닌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 여덟 명이 살아남았

으므로 세상이 완전히 '멸절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멸망하였으나'라는 표현은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완전히 파괴된 루시퍼 이전 세계의 홍수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극 이론이 가르치는 다른 주장들을 함께 놓고 보면 문제가 드러난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 가운데 다수는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며 그들이 인간 여성들과 결합하여 네피림(nephilim)을 낳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은 루시퍼의 반역과 그에 따른 심판 이전부터 존재하던 영적 존재들이며, 그 심판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고 활동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모순이다. 루시퍼의 홍수가 모든 생명을 완전히 소멸시킨 사건이라면, 그 세계에 속해 있던 존재들이 어떻게 그 심판 이후에도 살아남아 창세기 6장에 다시 등장할 수 있는가? 재창조론자들이 루시퍼의 홍수의 '완전한 멸망'을 노아의 홍수의 '불완전한 멸망'과 대조시키는 논리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루시퍼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존재들이 인류 역사에 개입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멸망하였으나'라는 표현은 존재의 절대적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상 질서와 문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의미로 이해하면 노아의 여덟 식구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라는 표현과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노아의 홍수는 단지 일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 홍수 이전의 세상 질서 전체가 종결된 사건이다. 그 세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며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셨다(창 9:1–17). 이것이 바로 세상의 '멸망'과 '새 시작'의 성경적 의미이다.

근거 5: 베드로후서 3장의 논증 구조 자체가 노아의 홍수를 가리킨다

베드로후서 3장의 전체 논증 구조를 살펴보면, 베드로의 신학적 논증은 루시퍼의 홍수와는 무관하며 오직 창조와 노아의 홍수, 그리고 장차 있을 불

의 심판이라는 세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벧후 3:3-4).

그들의 조롱에 맞서 베드로는 두 가지 역사적 선례를 제시한다.

첫째, 창조이다.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근거이다.

둘째, 노아의 홍수이다. 6절에서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심판을 실행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7절에서 베드로는 이 두 사건을 근거로 장차 있을 불의 심판을 선언한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벧후 3:7)

이 논증의 흐름은 분명하다.

1)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를 이루었다 →
2)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 심판을 이루었다 →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불의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이는 완결된 논리적 흐름이다. 여기에 루시퍼의 홍수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만약 6절이 루시퍼의 홍수를 가리킨다면, 노아의 홍수는 이 논증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심판의 유형으로 사용하셨고, 베드로는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동일한 구조로 논증을 전개한다.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은 함께 읽혀야 한다. 2장 5절에서 노아의 홍수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적 선례로 제시되었고, 3장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다시 언급된다. 같은 저자가 같은 서신 안에서 일관되게 노아의 홍수를 심판의 사례로 사용하고 있다.

근거 6: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의 천사들은 루시퍼의 반역을 가리키지 않는다

더 나아가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주 동원하는 또 다른 본문들이 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이다. 이 두 본문은 죄를 지어 심판을 받은 천사들에 대해 말한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 중 얼마는 이것이 창세기 1장 이전에 있었던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의 반역을 가리키며, 그 사건이 창세기 1장 2절의 황폐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유다서 6절은 다음과 같다.

>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그러나 이 본문들을 간극 이론과 연결하는 해석은 세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베드로후서 2장의 문맥이다.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베드로는 세 가지 심판 사례를 나란히 제시한다. 죄지은 천사들(4절), 노아 시대의 홍수(5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6–8절)이다. 이 세 사건은 모두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노아의 홍수는 아담의 후손들이 부패한 시대의 사건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시대의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 둘과 나란히 제시된 '죄지은 천사들' 역시 동일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베드로는 이 사건들을 통해 "주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구출할 줄 아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신다."(9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 예들은 독자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어야 한다. 창세기 1장 이전의 알려지지 않은 우주적 사건을 이 자리에 끼워 넣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는다.

둘째, '죄지은 천사들'의 정체이다.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 천사들은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인간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 거인들을 낳은 존재들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초대 교회 이후 오랜 해석 전통이 지지해 온 견해이기도 하다. 유다서 6절의 '자기들의 거처를 떠났다'는 표현이 이를 더욱 분명히 보여 준다. 천사들에게 주어진 본래의 영역은 영적 영역인데, 그들이 이를 벗어나 인간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유다서 7절이 소돔과 고모라를 '같은 방식으로'라고 연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유 7)

두 사건 모두 창조 질서의 경계를 넘어선 죄라는 점에서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이것은 루시퍼의 교만한 반역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건이다.

셋째, 결박된 천사들과 현재 활동하는 사탄의 문제이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죄지은 천사들이 이미 어둠의 사슬에 결박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

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벧후 2:4). 만일 이들이 루시퍼와 그의 무리 전체라면, 그들은 지금 활동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증언한다(벧전 5:8; 엡 6:12). 사탄의 최종적인 결박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이다. 따라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천사들은 현재 활동 중인 사탄과 그의 무리가 아니라, 특정한 범죄로 인해 별도로 결박된 집단(창세기 6장의 타락한 천사들)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은 분명하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은 창세기 1장 이전의 루시퍼 반역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 본문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창조 질서를 벗어난 특정 천사들의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말한다(창세기 6장).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 본문들의 문맥과 논증 구조를 무시한 채, '천사들의 범죄'라는 요소만을 떼어 내어 자신들의 이론에 맞게 재구성한다.

이는 본문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이론에 본문을 끼워 맞춘 해석에 불과하다.

간극 이론 논증들의 공통된 한계

베드로후서 3장에 대한 논의는 간극 이론의 논증 방식이 지닌 전반적 한계를 드러내는 데로 이어진다. 간극 이론의 여러 귀납적 논증들은 겉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있었다'가 '되었다'로 번역될 수 있다, tohu wabohu가 심판의 결과를 나타낸다, 이사야서 34장이 창세기 1장 2절을 묘사한다, 에스겔서 28장이 지구의 에덴에서의 루시퍼를 증언한다는 주장 등은 각각 따로 놓으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논증들은 두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첫째, 본문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오류이다. 본문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끌어내어, 문맥 밖의 체계를 본문 위에 덧씌우는 방식이다.

둘째, 본문이 실제로 말하는 바와 반대되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더 심각한 오류이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노아의 홍수가 아닌 루시퍼의 홍수로 해석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카타클뤼스모스(kataklysmós)의 일관된 용례, 예수님의 직접적 증언, 베드로 서신의 내적 일관성, 그리고 논증 구조와 충돌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제들이 받아들여질 경우, 죄와 사망의 기원, 노아의 홍수의 위치, 에덴의 저주의 의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등 여러 핵심 주제들이 함께 흔들리게 된다.

또한 간극 이론의 논증 방식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각각의 논증은 개별적으로는 취약하지만, 여러 본문에서 끌어온 논거들을 겹쳐 쌓음으로써 마치 성경 전체가 간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누적된 약한 논증들은 하나의 강한 논증이 되지 못한다. 각각의 본문을 문맥대로 읽으면 하나하나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귀납적 논증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이미 세워진 결론에 본문을 끼워 맞추는 방식, 곧 주석(exegesis)이 아니라 자의적 해석(eisegesis)이다. 그리고 이 방법론의 문제는 단순히 창세기 해석에 머물지 않는다. 간극 이론의 전제들이 받아들여질 경우 성경 신학 전

노아의 홍수와 방주

체의 구조가 함께 흔들리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결론: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말한다

베드로후서 3장은 간극 이론의 증거 본문이 아니다. 베드로는 창조와 노아의 홍수라는 두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장차 있을 불의 심판을 논증한다.

카타클뤼스모스의 일관된 용례, 예수님께서 심판의 유형으로 오직 노아의 홍수만을 사용하신 사실, 단수 표현인 '그때 있던 세상'과 '옛 세상', 그리고 간극 이론 자체의 내부 모순이 모두 같은 결론을 지지한다.

성경을 문맥대로 읽으면, 베드로후서 3장은 명확한 흐름을 보인다.

1)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2)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홍수로 그 세상을 심판하셨으며,
3)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 사건을 연결하는 베드로의 논증에 루시퍼의 홍수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그것은 베드로의 가르침이 아니라, 간극 이론이 필요에 따라 구성한 서사일 뿐이다.

《 재창조 간극 이론 문제 · 11 》

세 구절에 의해 간극 이론은 무너진다

이 글에서 우리는 간극 이론이 성경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여러 각도에서 논증하였다. 언어학적으로는 창세기 1장 2절의 '있었다'(was)가 '되었다'(became)'로 번역될 수 없음을 밝혔고, 문법적으로는 명사절의 이접적 기능이 시간적 간격을 함의하지 않음을 논증하였다. 신학적으로는 간극 이론이 죄와 사망의 기원, 노아의 홍수의 중요성, 속죄의 근거, 에덴의 저주의 의미

등 핵심 교리들과 충돌함을 밝혔다.

또한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사야서 24장, 45장, 예레미야서 4장, 에스겔서 28장, 베드로후서 3장 등의 본문들이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음을 하나하나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논증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간극 이론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세 구절이 있다. 이 구절들은 고도의 신학적 훈련이나 원어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표현이 단순하고 의미가 명확하여,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성경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즉시 이해할 수 있다.

세 구절과 그 명확한 의미

첫 번째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11절이다.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선언이다. 십계명의 네 번째 명령, 곧 안식일 준수 명령의 근거로 주어진 이 말씀에는 어떠한 모호성도 없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보다 더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창조 선언은 없다.

두 번째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6절이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창조가 '창조의 시작부터'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재창조가 아니라 최초의 창조였다는 점을 주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신다.

세 번째 구절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구절은 현시대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에 관한 선언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의 처음이자 마지막 교체이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이 구절들을 다루는 방식

이 세 구절의 의미는 누가 읽어도 분명하다. 그러나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 구절들을 그 단순하고 명확한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이 이 구절들을 다루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 이론이 성경 본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절로 드러난다.

1. 출애굽기 20장 11절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대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들의 주장은 언어적 구분에 근거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된 '창조하다'(bara)와 창세기 1장 각 날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만들다'(asah)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며,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만들다'(asah)는 최초 창조가 아니라 재정비 혹은 재구성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다가 파괴된 세계를 다시 '정돈'하셨다는 주장이다. 엿새는 최초 창조의 기간이 아니라, 루시퍼의 홍수 이후 황폐해진 지구를 하나님이 복구하신 기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은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문맥과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성립되지 않는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 구절은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 준수 명령의 근거로 주어진 하나님의 직접적 선언이다. 이는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율법의 기초를 이루는 신학적 토대이다. 하나님께서 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만들다'(asah)라는 동사가 아니라 그 목적어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표현은 창조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선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 이는 창조된 실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제외되는 항목이 없다.

만일 간극 이론이 옳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고 그 안의 모든 것 역시 최초 창조에 포함되었어야 한다. 별들이 만들어졌고, 지구가 형성되었으며,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그 세계 안에 거하였어야 한다. 이것이 간극 이론이 요구하는 전제이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선언하셨다. 이 표현은 물질적 창조 세계 전체를 빠짐없이 포함한다. 그렇다면 간극 이론이 주장하는 '수십억 년 전의 최초 창조', 곧 창세기 1장 1절의 물질적 창조 역시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이 범주 밖에 있는가?

당연히 안에 들어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셨으니, 최초에 만들어진 하늘과 땅도 여기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런데 간극 이론은 그 최초 창조가 엿새 이전에, 수십억 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본문의 선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 지점에서 슬며시 범위를 축소한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의 '하늘과 땅'은 재정비된 지구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재창조된 생물들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재해석한다. 그

러나 그러한 제한은 본문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물질적 창조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완전한 표현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단서도, 특정 부분을 따로 떼어 내는 주석도 없다. 표현 그대로, 전부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 두어야 할 점이 있다.

욥기 38장 4-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은 천사들이 지구 창조 현장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천사들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 혹은 적어도 엿새 창조 주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점이 간극 이론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11절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물질적 창조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은 이 물질적 범주와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 없다. 간극 이론의 요지는 물질적 지구가 수십억 년의 역사를 가진다는 것이며, 출애굽기 20장 11절은 바로 그 물질적 세계의 창조가 엿새 안에 모두 이루어졌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천사들의 창조 시점 문제는 간극 이론의 논거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생각해 보라. 만일 하나님께서 엿새 이전에 이미 별도의 최초 창조가 있었음을 알리고자 하셨다면, 바로 이 구절이 그것을 밝히실 자리였다. "엿새 동안에 주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최초 창조는 제외'라고 단서를 붙이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창조 세계 전체를 남김없이 포괄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엿새 안에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처 말씀하지 못하셔서 생략된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명확한 진술이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최초 창조를 암묵적으로 제외하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한 포괄적 범위를 가진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은 물질적 창조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총칭이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역시 동일한 범주를 사용한다. 만일 창세기 1장 1절이 수십억 년 전의 완전한 최초 창조를 가리킨다면, 출애굽기 20장 11절은 그 사건을 엿새 안에 포함시키는 셈이다. 동일한 범주를 동일한 표현으로 선언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구절은 '엿새 동안에'라는 시간적 한계를 분명히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기간이 엿새임을 선언한다. 이는 창조의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구절이다. 만일 최초 창조가 수십억 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 구절은 창조의 핵심 사건을 완전히 생략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안식일 준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자신의 창조 행위에 두신다. 하나님의 창조 주간이 인간의 노동 주간의 원형이다.

만일 엿새가 단지 '재정비 기간'이라면, 인간의 노동 주간 역시 '재정비'를 본뜬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식일 준수 명령의 논리는 창조의 모방에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도 엿새 동안 일한다는 것이다. 간극 이론은 이 논리를 약화시킨다. 창조의 핵심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엿새는 단지 재정비 기간이라면, 안식일 준수 명령의 신학적 기초가 흔들린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 행위는 엿새와 무관하게 되고, 엿새는 단지 정리 작업으로 전락한다.

또한 asah(만들다)와 bara(창조하다)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시도는 과장된 주장이다. 성경은 이 두 동사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창세기 1장 안에서도 두 동사는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된다. 어떤 날에는 bara가, 다른 날에는 asah가 사용되지만, 두 경우 모두 동일한 창조 활동을 가리킨다. 성경은 asah를 단순한 재구성 동사로 한정하지 않는다.

간극 이론은 본문이 말하지 않는 구분을 본문에 끌어들인다. 이는 본문에서 의미를 끌어내는 해석(exegesis)이 아니라, 밖에서 만들어진 의미를 본문 안으로 집어넣는 자의적 해석(eisegesis)이다. 먼저 '최초 창조'(혹은 원창조)와 '재창조'라는 이중 구조를 이론적으로 설정한 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그 구조에 맞추어 재해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분은 본문 안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본문에 강요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모세의 해석이나 시편 기자의 시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선언이다. 그 선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행위를 엿새에 귀속시키신다. 만일 최초 창조가 수십억 년 전에 이루어졌고 엿새는 단지 복구 기간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실을 숨기신 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엿새에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가? 이는 단순한 생략이 아니다. 이 구절은 창조의 범위를 직접 정의한다.

결국 문제는 이렇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그대로 읽으면, 물질적 창조는 엿새 안에 완결된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6일 창조에 속한다. 간극 이론을 유지하려면 이 구절의 범위를 제한해야 하고, 동사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하며,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에서 최초 창조를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출애굽기 20장 11절은 단순한 보조 구절이 아니라, 간극 이론 전체 구조와 직접 충돌하는 핵심 구절이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선언하셨다면, 그 선언 속에 수십억 년 전의 별도의 최초 창조를 삽입하는 것은 본문의 자연스러운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다. 본문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물질적 창조는 엿새 안에 속하며, 예외는 없다.

2. 마가복음 10장 6절

마가복음 10장 6절은 간극 이론과 관련하여 특히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 말씀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논쟁 속에서 주어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결혼 제도만을 논하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규정하시며, 그 시점을 '창조의 시작부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창조의 시작'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막연하게 '옛날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창조라는 역사적 사건이 시작된 바로 그 출발점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가 그 출발점에 속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신다. 인간은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던 바로 그때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인간의 창조는 수십억 년의 지구 역사가 흐른 뒤에야 비로소 등장한 후발 사건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 그 자체에 속한 사건이다.

그런데 간극 이론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발생한다.

간극 이론에 따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창조 세계는 수십억 년의 역사를 가졌고, 그 안에서 루시퍼의 타락과 심판이 있었으며, 그 결과 지구는 완전히 황폐해졌다. 그 후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그 파괴된 세계를 다시 정비하셨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이 체계 안에서 인간은 '창조의 시작'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순서가 된다.

첫 번째 창조의 시작 → 수십억 년의 역사 → 루시퍼의 타락과 심판 → 전면적 파괴 → 재창조의 여섯째 날 → 인간 창조

이 구조를 따르면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시작과는 수십억 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라고 말씀하신 표현

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 지점에서 해석을 자의적으로 조정한다. 그들은 '창조의 시작'을 '재창조의 시작'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는 최초 창조가 아니라, 루시퍼의 홍수 이후에 시작된 재정비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재창조'라는 개념을 언급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 창조'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단지 '창조의 시작부터'라고 하셨다. 그 말씀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신 그 시점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재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의도로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명확히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단서는 전혀 없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 전체를 전제로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처음부터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하도록 계획되고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4-5절에서도 하셨다.

>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여기에서 '처음'이라는 표현 역시 막연한 과거를 가리키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시작하신 바로 그 시점을 가리킨다. 동일한 내용이 두 복음서에 걸쳐 반복된다는 점은, 이것이 우연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창조의 시점을 규정하신 말씀임을 보여 준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결혼 제도를 창조 질서에 근거하여 말씀하신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창조 질서의 근본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시적이거나 후대에 삽

입된 구조가 아니라 창조의 기초에 놓인 질서이다.

그런데 간극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창조는 이미 한 번의 우주적 붕괴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창조는 창조 질서의 기초가 아니라, 붕괴 이후의 복구 단계에 속한 사건이 된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의 시작부터' 존재한 존재로 규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창조의 시간적 범위를 규정하는 말이다. 인간은 창조 역사의 후반부에 등장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의 기초 구조 안에 포함된 존재이다.

또한 '창조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우주적 범위를 가진다. 이는 인간 창조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창조를 포함하는 전체 창조 사건을 가리킨다. 만약 최초 창조와 재창조가 분리된 두 사건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느 창조를 가리키시는지 명확히 구분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은 본문에 없다.

간극 이론은 예수님의 이 단순한 선언에 거대한 시간적 간격을 삽입한다. 수십억 년의 역사와 전면적 우주 파괴를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삽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창조의 시작부터'라는 표현은 직선적이고 단순하며, 창조의 시작과 인간 창조를 분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권위는 중요하다. 이 말씀은 단순한 사도적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 증언이다. 창조의 역사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신 분은 창조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이 인간의 창조 시점을 '창조의 시작'으로 규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간극 이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재해석해야 한다. '창조의 시작'이라는 말을 '재창조의 시작'으로 고쳐 읽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본문에 없는 전제, 즉 두 번의 창조가 있었다는 가정을 먼저 세워야 한다. 이는 본문에서 교리를 끌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교리를 본문에 덧씌우는 방식이다.

결국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론에 맞추어 재해

석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부터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졌다. 이 선언 안에는 수십억 년의 간격도, 우주적 붕괴도, 두 번째 창조도 없다.

그 말씀에 거대한 시간적 공백을 삽입하는 것은 단순한 해석의 차이가 아니다. 이는 주님의 증언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마가복음 10장 6절 말씀은 간극 이론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만일 간극 이론이 옳다면, 인간은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 창조의 재창조 이후에야 등장한 존재가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인간은 창조의 시작부터 존재하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직접적 창조물이다.

이 선언은 수십억 년의 간격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여기에서 '처음'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전의'라는 뜻이 아니다. 한국어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이 말은 시간적·순서적 의미를 가지며, 곧 '첫 번째'를 뜻한다. 문맥상 '처음'은 순번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곧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을 의미한다.

이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자체의 문제이다. '처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순서상 맨 앞을 가리킨다. 만일 두 번째가 이미 존재했다면, 그것을 '처음'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어 문장 구조에서 '처음'은 반드시 '첫 번째'를 의미

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구조는 단순하다.

첫 번째 하늘과 땅 → 사라짐 →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는 두 번째 하늘과 땅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런데 간극 이론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이미 두 번째 것이다. 그들의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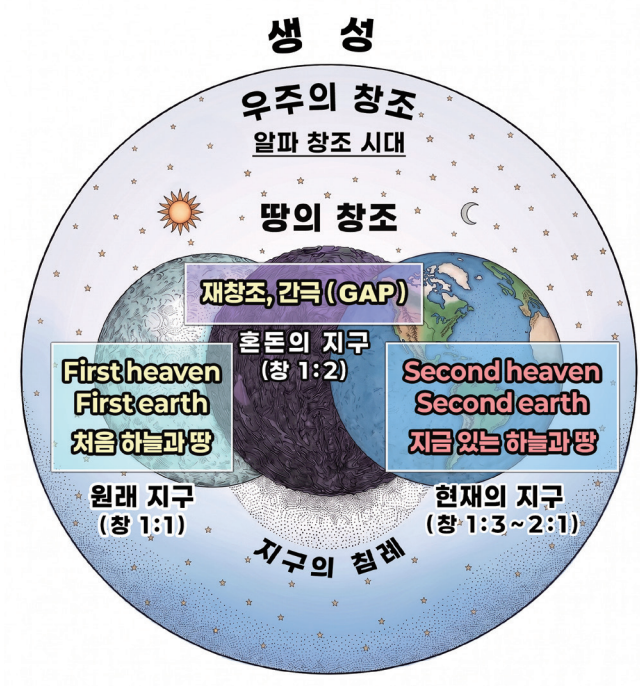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 → 루시퍼의 홍수로 완전 소멸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 → 창세기 1장 2절 이후의 재창조
세 번째 하늘과 세 번째 땅 →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창조

이 체계를 따르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이 사라졌고(오른쪽 페이지 그림 참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처음(첫 번째) 하늘과 처음(첫 번째) 땅'이라고 말한다.
만일 간극 이론이 옳다면, 사도 요한이 순서를 잘못 기록한 셈이 된다. 그러나 성경은 순서를 혼동하지 않는다. 성경은 창조를 '처음'이라고 부르고, 종말의 새 창조를 그 '처음'에 대한 대조로 제시한다.
또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요한계시록 21장

〈그림〉 라킨의 재창조 도표
(지금 하늘과 땅은 두 번째 것들이라는 추측과 상상)



의 새 창조가 서로 대응한다. 처음 창조와 최종 갱신의 대응이다. 이 두 사건은 성경의 시작과 끝을 형성한다. 만약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완전한 창조와 완전한 우주적 소멸이 있었다면, 그 이후의 창조를 '처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순서 개념을 분명히 한다.

> 첫 번째 창조 세계가 사라지고, 그 후에 새 창조 세계가 등장한다.

이는 두 번의 창조와 두 번의 우주적 소멸이 아니라, 하나의 창조와 하나의 최종 교체를 전제한다. 또한 '사라졌다'는 표현은 일시적 황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창조 질서의 종결과 갱신을 의미한다. 현재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 갱신은 종말에 일어난다. 이미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다음 사실을 명확히 한다.

1)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곧 '첫 번째' 것이다.
2) 이것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새' 것이 온다.

이 점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간극 이론과 양립할 수 없다. 성경의 마지막 장은 창조를 하나의 연속적 역사로 제시한다. 처음 창조가 있고, 그 창조 세계가 역사 속에서 지속되며, 마지막에 사라지고, 그다음에 새 창조가 온다.

성경은 두 번의 처음을 말하지 않는다. 단 하나의 '처음', 곧 '첫 번째'를 말할 뿐이다.

명확한 구절로 모호한 구절을 해석하는 원칙

성경 해석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 어떤 구절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는 같은 주제를 다루는 더 명확한 구절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건전한 신학 전통에서 인정하는 원칙이자, 성경 신자들이 설교와 교리 형성에서 실제로 적용해 온 방법이다.

창세기 1장 2절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같은 주제 곧 창조에 대해 더 명확하게 말하는 구절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세 구절 안에 그 답이 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창조의 범위와 기간에 대해 명확히 말한다.

마가복음 10장 6절은 인간 창조의 시점에 대해 명확히 말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현재 지구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말한다.

이 세 구절을 함께 놓고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 그 안에 수십억 년의 간

격과 루시퍼의 홍수를 삽입하는 해석은 근거를 잃는다.

그런데 간극 이론 지지자들 가운데 다수는 스스로를 성경 신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바로 이 원칙을 창세기의 간격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적용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마가복음 10장 6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같이 명확한 구절들이 있음에도, 그들은 더 모호하고 간접적인 구절들을 통해 창세기 1장 2절을 해석하려 한다.

성경 신자임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이론에 불리한 경우에만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을 외면하는 태도는 일관된 해석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재창조 간극 이론: 성경적 교리로 성립할 수 없는 이론

어떤 교리가 성경적으로 건전하다고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그 교리를 지지하는 명확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그 교리가 성경의 다른 명확한 진술들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간극 이론은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먼저 첫째 조건부터 살펴보면, 간극 이론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명확한 성경 구절은 전혀 없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제시하는 모든 본문을 면밀히 검토하면, 그 본문이 간극 이론과 무관하거나, 전혀 다른 사건을 가리키고 있음이 드러난다.

더 나아가 그 구절들은 간극 이론이라는 전제를 먼저 가지고 접근해야만 비로소 간극의 근거로 읽힌다. 이는 본문에서 교리를 도출하는 주석이 아니라, 교리로 본문을 재해석하는 자의적 해석이다.

또한 간극 이론은 출애굽기 20장 11절, 마가복음 10장 6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같이 단순하고 명확한 성경의 선언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1)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선언
2)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하신 말씀
3)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증언

이 세 가지는 간극 이론과 양립할 수 없다.

이처럼 명확한 성경 구절들을 비틀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교리라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간극 이론은 '오래된 지구'라는 진화론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 외부의 요구에 따라 성경 안으로 끼워 넣은 해석 체계일 뿐, 성경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읽을 때, 창세기 1장은 간극 이론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하나의 완결된 창조 서사이다.

Part 3

간극 이론이 무너뜨리는 복음의 기초

Part 3

간극 이론이 무너뜨리는 복음의 기초

2부에서 우리는 간극 이론이 근거로 삼는 성경 본문들을 하나하나 직접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이론이 의지하는 언어학적 전제들은 히브리어 문법과 어휘 앞에서 무너졌고, 이 이론이 동원하는 본문들은 문맥 안에서 읽을 때 이 이론과 전혀 무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었다. 성경 본문 차원에서 간극 이론의 근거는 이미 허물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성경 본문 해석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기술적인 문제이다. 히브리어 문법을 더 정밀하게 연구하고 17세기 영어 용례를 더 꼼꼼하게 확인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3부에서 다루려는 문제는 그런 기술적 차원을 넘어선다. 간극 이론이 전제하는 세계관이 죄와 사망의 기원, 그리스도의 속죄, 창조의 선함, 천사론과 인간론 등 성경의 핵심 교리 전반에 걸쳐 복음의 구조 자체와 근본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간극 이론이 성경적으로 타당하다면, 기원·죄·구속·천사론·인간론 등 여러 핵심 교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해 보면, 간극 이론은 성경의 주요 교리들과 적어도 네 가지 심각한 충돌

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충돌들은 개별적으로도 이 이론에 치명적이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간극 이론이 성경 신학 전체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 문제들은 창조론 논쟁의 경계를 넘어선다. 간극 이론을 고수할수록 복음의 논리적 구조가 흔들린다. 왜 죄가 문제인지, 왜 사망이 심판인지, 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지, 왜 새 창조가 소망인지를 설명하는 성경의 일관된 서사가 이 이론 앞에서 뒤틀린다. 이것이 3부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핵심 문제이다.

첫 번째 모순:
창조에 대한 성경의 최초 서술 비중 약화

간극 이론의 첫 번째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가 성경 전체에서 단 하나의 절(창 1:1)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창조는 실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계였다. 거기에는 모든 형태의 생물이 있었고, 일부 지지자들은 선 아담 종족 같은 인간형 존재들과 그들의 문명까지 포함시킨다. 이 세계는 수백만, 혹은 수십억 년에 걸쳐 번성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토록 방대하고 중요한 창조에 관한 서술이 고작 한 절로 끝난다는 것은 성경의 서술 방식과 맞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사건일수록 자세하게 기록된다. 이는 성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서술 원리이다. 노아의 홍수 사건만 해도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걸쳐 네 장이 할애된다. 방주의 치수와 재료, 짐승들의 종류와 수, 홍수의 진행 과정, 물이 줄어드는 날짜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막 건축에는 출애굽기의 여러 장이 사용되었으며, 그 재료 하나하나, 치수 하나하나가 반복하여 상세히 묘사된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도 열왕기상 두 장이 배정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조차 여러 절에 걸쳐 정밀하게 묘사된다. 이러한 성경의 서술 원리를 감안할 때, 간극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십억 년에 걸친 최초의 완벽한 창조와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킨 전 우주적 격변이 단 두 절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주장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 세계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중대한 사건을 단 한 절에 압축하신 것인가? 성경의 서술 분량은 결코 자의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 특정 사건에 할애하시는 서술의 분량은 그 사건의 신학적 중요성 및 구속사적 의미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간극 이론이 상정하는 최초의 창조와 그 파멸이 성경 서술의 이 기본 원리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이론의 성경적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스스로 드러낸다.

존 휫컴(John C. Whitcomb)이 수사적으로 묻듯이,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1장 2절 이전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 균일론적·진화론적 지질학자들에게 의존해야 하는가?" 이는 성경의 침묵을 진회론이라 불리는 거짓 과학으로 채우는 행위로서, 성경의 자기 충족성(self-sufficiency)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하기에 충분하며, 외부의 판단에 기댈 필요가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이 선언하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므로" 그 자체로 완전하다. 성경 이외의 지질학적 연대 측정이 성경 해석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발상은, 결국 성경의 권위를 인간의 과학 아래에 놓는 것이다. 간극 이론은 표면적으로는 성경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법론의 근저에는 불신자들의 세속 과학의 연대를 성경에 수용하려는 타협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타협은 창세기의 권위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경 전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또한 창세기 1장 31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최종 선언은 간극 이론에 또 다른 난제를 던진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매우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단순한 기능적 적합성을 넘어서 도덕적·존재론적 완전성을 함의한다. 즉, 이 선언

〈그림〉 간극 이론으로 본 지구의 변화(추측과 상상)

은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평가이다.

간극 이론이 옳다면, 이 선언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언이 단순히 틀렸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선언의 범위를 창세기 1장 3-30절의 재창조 부분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창조의 요소들이 죄의 심판으로 폐허가 된 첫 번째 창조의 잔해 위에 세워졌다면, 그 세계를 "매우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사탄이 이미 타락하여 그 땅을 점유하고 있고, 이전의 격변으로 인한 혼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세계, 거대한 죽음과 멸종의 화석층 위에 세워진 세계를 "매우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문자적 6일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창세기 1장 31절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단 하나의 창조에 대한 완벽하고 일관된 평가이다. 이 세계에는 처음부터 이전의 죽음도, 폐허의 흔적도, 심판의 잔재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드신 모든 것은 그분의 완전한 설계 그대로였고, "그것이 매우 좋다."라고 하신 선언은 바로 그 세계 전체를 향한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평가였다.

죽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비로소 세상에 들어온다. 이것이야말로 창조에서 타락으로, 타락에서 구속으로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해석이다. 간극 이론은 진화론의 연대를 수용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을지 모르나, 그로 인해 치르는 대가는 너무나 크다. 성경의 서술 일관성, 하나님의 선언의 신실성, 그리고 구속론의 기초까지 흔들리게 된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에 따라 살펴보면, 간극 이론이 요구하는 공간은 창세기 본문 어디에도 없다.

두 번째 모순: 노아의 홍수의 역사적·신학적 의미 훼손

간극 이론의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노아의 홍수가 지닌 역사적·신학적 중요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이다. 전통적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지구의 화석 기록과 지질학적 형성물들이 아담 이전의 루시퍼의 홍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입장은 노아의 홍수가 지질학적으로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일부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노아의 홍수를 지역적이고 제한적인 사건으로 격하한다. 그들에게 노아의 홍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국한된 하나의 자연재해에 불과하며,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은 사건이 된다. 이는 세속 지질학의 연대 체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홍수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하는 왜곡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 전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성경은 노아의 홍수를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치므로 온 하늘 아래 있던 모든 높은 산들이 덮였고"(창 7:19-20) 공기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죽은(창 7:21-23) 전 지구적 사건으로 명확히 기술한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사용된 표현들은 그 어떠한 제한적 해석도 허용하지 않는다. '땅(지면)'이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보편적 범위를 가리킬 때 일관되게 사용되며, '하늘 아래 있던 모든 높은 산들이 덮였다'는 서술은 지역적 홍수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규모를 명시한다. 만약 홍수가 단순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국한되었다면,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이유도, 모든 종류의 짐승을 방주에 실을 이유도 없었다. 그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주셨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으며, 성경은 그 홍수가 전 지구를 덮었다고 반복하여 증언한다.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홍수를 미래의 심판에 대한 역사적 사례로 직접 인용하셨다(마 24:38-39; 눅 17:27). 주님의 비교 논리는 명확하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와서 모든 사람을 멸하였듯이,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신다. 만약 노아의 홍수가 지역적이고 제한적인 사건이었다면, 장차 있을 보편적 심판의 유효한 유형이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홍수의 심판은 반드시 보편적이고 전 지구적인 사건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을 장차 모든 인류에게 임할 심판의 사례로 제시하시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베드로도 이 홍수를 창조 당시의 세계가 실제로 소멸된 사건으로 묘사하며(벧후 3:6), 이를 장차 있을 불의 심판의 유형으로 제시한다. 베드로후서 3장 5-7절의 논증 구조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가 있었고, 둘째, 그 세계가 홍수로 멸망하였으며, 셋째, 현재의 세계는 불로 심판받을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논증에서 노아의 홍수가 지역적·제한적 사건으로 격하된다면, 베드로의 삼중 평행 논증 전체가 그 설득력을 잃는다.

간극 이론에 기반하여 노아의 홍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는 신학적 연쇄 효과를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노아의 홍수가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었다면 하나님의 보편적 심판의 역사적 사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무지개 언약(창 9:11-15)도 그 의미를 상실한다. 그 이후 역사 속에서 발생한 수많은 지역적 홍수들은 이 언약을 이미 수없이 어긴 것이 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체가 의문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홍수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단순히 지질학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실재성, 언약의 신실성,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성경의 증언 전체를 흔드는 신학적 연쇄 붕괴로 이어진다.

한편 간극 이론자들이 과학적이라고 즐겨 인용하는 주장들, 즉 석탄과 석

유의 형성에 수백만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현대 과학에 의해서도 반박되고 있다. 쓰레기와 거름에 고압과 고열을 가하면 불과 20여 분 만에 인공적으로 석유가 생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1]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Mount St. Helens)의 화산 폭발은 단 한 차례의 격변적 사건으로 약 200미터에 달하는 지층이 형성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는 지질학적 균일론의 핵심 전제, 즉 현재의 느린 과정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작용했다는 가정을 정면으로 뒤흔든 사건이었다.

미국 세인트 헬렌스 산의 폭발 모습(1980)

이 사실들은 전 지구적 노아의 홍수가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화석 기록과 지질학적 구조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전 지구적 홍수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수십억의 죽은 생물들이 지층 속에 빠른 속도로 매몰된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화석 기록은 정확히 그것을 보여 준다. 즉, 성경 기록은 영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과학적 영역에서도 충분하며, 인간이 당장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신뢰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간극 이론은 성경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진화론의 연대를 수용하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과정에서 성경이 명확하게 증언하는 노아의 홍수의 역사적 실재성과 신학적 의미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

1. Brian Appel 외, 체인징 월드 테크놀로지스(Changing World Technologies, Inc.)와 미국 농무부(USDA)의 공동 연구(2004)에 따르면, 유기성 폐기물에 약 250°C의 온도와 40기압의 압력을 가하면 15-20분 이내에 경질 원유와 유사한 물질로 전환된다. 이 열적 해중합(thermal depolymerization) 공정은 미주리 주 카터빌에 상업 시설로 건설되기도 하였다.

세 번째 모순:
천사론과 인간론의 충돌

간극 이론이 성경과 충돌하는 세 번째 영역은 천사론과 인간론이다. 간극 이론은 최초의 지구가 루시퍼와 천사들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이들이 그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가졌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이 지배권은 루시퍼의 반역과 그에 따른 심판 이후의 재창조에도 계속 유지되었다고 한다. 즉, 간극 이론의 틀 안에서는 천사적 존재들, 특히 루시퍼가 이 지구의 원래 주인이었으며, 인간은 이미 천사들의 지배 질서가 확립된 세계 안으로 뒤늦게 등장한 존재라는 주장이다. 이 전제는 창조의 목적과 인간의 위치에 관한 성경적 이해의 근본을 허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 질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창세기 1장의 서술 구조 전체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이며, 창조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존재임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창세기 1장의 날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점진적으로 더 복잡하고 고귀한 존재를 향해 나아가며, 그 절정에 인간의 창조가 위치한다. 이는 우연한 서술 순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배열하신 신학적 구조이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창 1:26)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창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대리 통치권이 어떠한 천사의 선행적 지배와도 무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졌음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위임의 직접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중간 단계도, 어떠한 선후 지배 질서 간 이양도 없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직접 이 지배권을 부여하셨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창조 세계 사이에서 독보적이고 유일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시편

8편은 천사보다 조금 낮게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지배권이 주어진 경이로움을 노래한다. 시편 기자는 광대한 우주 앞에서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고백하면서도, 바로 그 인간에게 창조 세계의 통치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찬양한다. 또한 히브리서 2장 6-8절은 이 시편을 인용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의 위임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을 보여 준다. 이처럼 성경 전체의 증언은 일관된다. 창조 세계에 대한 지배권은 처음부터 인간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어떠한 천사의 선행적 지배에도 의존하지 않았다.

그런데 간극 이론은 이 질서를 뒤집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탄은 아담의 등장보다 훨씬 이전부터 지구의 지배자로 군림하였고, 그 지배권은 아담의 창조 이후에도 유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자주 제기하는 논거가 있다. 먼저 관련 사실부터 살펴보자. 창세기 3장에는 사탄이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직후에, 사탄이 에덴동산에 나타난다. 이 사실을 근거로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이 처음 창조되었다면, 사탄은 어디서 왔는가? 이처럼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곧바로 등장한다는 사실이, 창세기 1장 이전에 이미 루시퍼의 반역과 우주적 심판이 있었음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부 지지자들은 누가복음 10장 18절, 곧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일어난 루시퍼의 추방을 회고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사탄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문맥을 보자. 이 말씀은 일흔 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라고 보고하는 장면에서 주어졌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상황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씀

하셨다. 이는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음을 선언하신 말씀이지, 수십억 년 전의 사건을 회상하신 말씀이 아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라고 하셨다. 사탄의 패배와 추방은 십자가와 복음 선포에 연결된 현재적·진행적 사건이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7-9절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을 미래의 사건으로 묘사한다. 그의 최종적인 추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사탄이 지금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 활동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증언한다. 욥기 1장 6-7절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나타나 주 앞에 서며, 이리저리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말한다. 이는 그가 하늘과 땅을 오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그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소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사탄의 최종적인 결박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야 이루어진다.

따라서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창세기 1장 이전에 수십억 년의 간극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아니다. 창조 직후에도 사탄이 에덴 동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구의 원래 지배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최종적으로 결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에덴의 사탄은 간극 이론 없이도 충분히 설명된다.

결국 간극 이론의 논리 안에서 아담은 처음부터 사탄의 지배 구조 안으로 들어온 셈이 되며,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 질서를 근본에서 뒤엎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사탄이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 주며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눅 4:6)라고 한 말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획득된 지배권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본래 사탄에게 속했던 것을 의미하게 된다. 성경적 관점에서 사탄의 이 주장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획득된, 이른바 '찬탈된 지배권'에 관한 것이다. 아담이 범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을 상실함으로써 사탄

이 이 세상의 신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고후 4:4; 요 12:31). 그러나 간극 이론 안에서는 사탄의 세상 지배가 아담의 범죄 이전부터 기정사실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결과로서의 사탄의 지배라는 성경적 인과 구조가 해체된다.

이뿐만 아니라 간극 이론은 구속론의 핵심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회복하는 것은 아담이 상실한 무엇인가이어야 한다. 로마서 5장 12-21절의 '아담-그리스도 평행 구조'가 이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이 회복된다. 이 구속의 논리는 상실과 회복의 대칭 구조 위에 성립한다. 그런데 간극 이론에서는 사탄의 지배가 아담의 범죄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회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해진다. 아담이 상실한 것이 불분명해지면,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것도 불분명해진다. 성경의 구속사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의 일관된 흐름 위에 전개되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간극 이론은 그 첫 페이지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또 하나의 창조와 타락과 심판을 삽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무엇을 회복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명쾌한 답변을 흐린다. 그 결과 이후의 모든 페이지에 걸쳐 누적되는 신학적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네 번째 모순:
죄와 사망의 기원 교리 훼손

아마도 간극 이론이 성경과 충돌하는 가장 치명적인 지점은 죄와 사망의 기원 교리일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신학적 해석의 차이를 넘어,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구조 자체를 흔드는 문제이다. 창조론 논쟁에서 흔히 제기되는 다른 문제들은 어느 정도 신학적 조율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기원 문제는 그렇지 않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성취하는가,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 이 질문들과 직결되어 있기 때

문이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흔들리면 기독교 신앙의 전체 구조가 흔들린다.

간극 이론의 모든 버전은 공통적으로 다음을 가르친다.

1) 첫 번째 창조 중에, 혹은 그 이후에, 루시퍼와 천사들의 반역이 발생하였다.
2) 이 반역으로 지구가 대격변의 심판을 받아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되었다.

이는 곧 아담의 존재 이전에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와 있었으며, 더 나아가 전통적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주장하듯이 방대한 지질학적 연대 동안 질병과 부패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계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화석 기록이 보여 주는 수십억의 죽은 생물들, 동물들이 서로를 잡아먹은 흔적들, 암과 같은 질병의 흔적들이 모두 아담의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간극 이론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축소하지만, 이 전제를 일관되게 따라가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죽음이 아담의 죄 이전에 이미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라고 선언한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물론 아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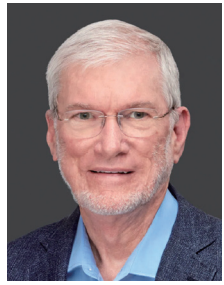
바울의 논증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죄가 먼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다. 이 인과 관계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아담 이전에 죄가 없었다면 사망도 없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담 이전에 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일부가 되고 만다.

그런데 간극 이론은 이 둘을 동시에 주장하는 모순에 빠진다. 아담의 죄로 사망이 들어왔다는 성경의 선언을 받아들이면서도, 아담 이전에 이미 수십억 년에 걸친 죽음의 세계가 존재했다는 세속 지질학의 연대를 동시에 수용하

려 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도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라고 말하며, 육체적 사망의 기원이 아담의 범죄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단지 영적 사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생물학적 사망 자체를 가리키는데, 창세기 1장 29-30절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씨 맺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음식물로 주셨다는 이 기록은, 최초의 창조 세계에는 포식도 죽음도 없었음을 보여 준다. 죽음이 없는 세계가 최초의 창조 질서였으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 세계의 본래 모습이다.

젊은 지구 창조론을 주장하는 단체 AiG(Answers in Genesis)의 설립자 켄 햄(Ken Ham)이 지적하듯이, 이 문제는 단순히 창조 기사 해석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라고 선언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응답으로 사망과 피 흘림을 도입하셨으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죄를 해결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창 3:21)은 죄를 가리기 위해 최초의 피 흘림이 발생했음을 보여 주며, 이는 훗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될 속죄의 예표이다. 즉, 사망은 죄의 결과요 그 대가이며, 그렇기 때문에 죄 없이 죽으신 그리스도가 죄 있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이다.


켄 햄

속죄의 논리는 완벽한 대칭 구조를 가진다. 죄가 사망을 가져왔으므로, 죄 없는 자의 사망이 죄 있는 자를 사망에서 건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사망이 처음부터 창조 질서의 일부였다면, 이 대칭 구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망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면, 사망으로써 죄를 해결한다는 논리는 그 근거를 잃는다.

헨리 모리스(Henry Morris)가 지적했듯이, 만일 사망이 아담 이전에 수십

억 년 동안 이미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사망은 더 이상 죄의 삯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본래부터 심어 놓으신 요소가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처음부터 죽음과 고통과 부패를 그 본질적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의 삯인 사망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이라는 자연 현상에 대한 극복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사망 자체를 이기신 승리의 선포이다. 그러나 간극 이론 앞에서는 바로 이 복음의 논리 구조가 그 근거를 잃고 만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사망을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라고 부른다. 사망은 하나님의 원래 설계가 아니라 죄로 인해 침입한 낯선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원수로 정복하시는 것이다. 간극 이론은 사망을 창조 질서의 일부로 만들어 버린다. 더 나아가 그 사망의 세계를 친히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실 '마지막 원수'마저 결국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창조물이 되고 만다. 이는 성경의 사망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신학적 오류이다. 이로써 간극 이론은 단지 창조론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속죄론과 구원론을 그 뿌리에서부터 위협하는 이론임이 드러난다.

이뿐만이 아니다. 간극 이론은 에덴동산의 저주(창 3:17–19)의 신학적 의미를 근본적으로 허문다. 아담과 이브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이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창조 세계 전체에 새롭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너로 인해'라는 표현은 이 저주의 원인이 아담의 범죄임을 명확히 한다. 저주는 아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담의 불순종이 그것을 불러왔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22절에서 재확인하면서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한다. 즉, 창조 세계의 현재 상태, 곧 질병과 부패와 사망과 고통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들어온 것이다. 로마서 8장 20–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 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롬 8:20-21)

이처럼 이 모든 진술은 창조 세계의 현재 상태가 원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변질된 상태임을 전제한다.

그러나 간극 이론이 옳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아담 이전의 세계에 존재했던 것들이며, 에덴동산의 저주는 이미 저주받아 있던 세계에 또다시 저주를 더하는 불필요한 행위가 된다. 더 나아가, 창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해방'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지도 불분명해진다. 만약 부패와 사망이 처음부터 창조 질서의 일부였다면, 그로부터의 해방은 창조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물의 해방을 창조 자체의 부정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 훼손된 창조의 회복으로 제시한다.

반면 문자적 6일 창조 안에서 이 저주는 온전히 의미를 가진다. 죄가 없었던 완전한 세계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처음으로 저주가 임하였으며,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 저주를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선언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저주를 제거하신다는 이 속죄의 논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저주가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전제 위에서만 온전한 의미를 가진다.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에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계 22:3)라는 선언은 바로 이 저주의 완전한 제거를 가리킨다. 창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새 창조에서 완성된다. 저주 없는 에덴동산이 저주 없는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가 그리는 구속사의 궁극적 목표이다.

간극 이론은 이 웅장한 구속사의 서사에서 그 출발점을 흐리게 함으로써, 결국 그 종착점의 의미마저 손상시킨다. 간극 이론이 치르는 대가는 단순히

창세기 몇 절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의 논리 그 자체임을 직시해야 한다.

결론적 평가

간극 이론의 이 네 가지 신학적 모순들은 서로 독립된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신학적 구조 속에 있다. 원래 창조의 비중 문제는 성경의 자족성(self-sufficiency) 원칙을 훼손하고, 노아의 홍수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적 실재성을 약화시키며, 천사론과 인간론의 충돌은 창조 질서와 구속의 목표를 왜곡하고,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기원 문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근거 자체를 흔든다.

간극 이론은 진화론의 '오래된 지구'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초자연적 창조를 보존하려는 신학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 크다. 창조 기사의 왜곡에 그치지 않고, 죄론, 구속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성경 신학의 핵심 교리들이 연쇄적으로 손상을 입는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히 선한 세계를 창조하셨으며, 인간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 결과 창조 전체가 고통 아래 놓이게 되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임을 일관되게 증언한다. 이 위대한 구속의 서사는 죄와 사망이 아담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간극 이론의 전제 위에서는 결코 온전히 설 수 없다.

결론: 재창조는 없다

이 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고 싶다. 이 책은 특정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간극 이론을 붙들고 있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그분들의 신앙을 의심하기 위해 쓴 것도 아니다.

이 글을 쓰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성경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 믿으려는 열심으로 오히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성경의 핵심처럼 붙들고 있는 현실 때문이었다.

이 글은 그 무거움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무거움을 함께 내려놓자는 간곡한 부탁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책의 목적은 논쟁에서 이기려는 데 있지 않다. 논증이 날카로울수록, 반박이 정밀할수록,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모든 논증은 결국 하나의 방향만을 향한다.

성경 본문 앞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론 앞이 아니라, 사람 앞이 아니라, 성경 본문 앞으로 함께 돌아가자는 부탁이다. 그것이 이 글을 쓴 이유이고, 지금 이 결론을 쓰는 이유이다.

역사가 가르쳐 준 교훈

1부에서 우리는 간극 이론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였다. 이 이론은 하늘에서 떨어진 성경 교리가 아니다. 18세기 균일론적 지질학과 19세기 진화론이 기독교 세계관을 강하게 압박하던 시대에, 성경의 권위를 지키면서도 세속 과학의 요구에 응답하려는 고민 속에서 형성된 신학적 타협안이었다.

토머스 찰머스가 제안하고, 조지 펨버가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스코필드와 라킨이 대중화하고, 피터 럭크만이 '성경 신자의 기준'처럼 격상시킨 이 이론은, 탄생의 순간부터 성경 본문 자체의 요구라기보다 외부 압력에 대한 신학적 반응에 가까웠다.

역사는 냉정하다. 이 이론은 세속 과학의 압력에 맞서 성경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속 과학의 전제를 성경 해석 안으로 끌어들였다. 수억 년의 지질학적 시간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오래된 지구'라는 전제를 해석의 틀 속에 수용한 것이다. 성경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성경의 토대를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

1960년대 이후 창조과학 운동이 부상하면서, 오래된 지구라는 전제를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도 점점 분명해졌다. 서구 근본주의 진영에서 이미 영향력을 상당 부분 잃은 이 이론이 한국 교계에 들어와 오히려 더 강한 확신으로 자리 잡은 현실은, 우리가 역사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미국에서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된 분열과 상처의 역사가, 시간차를 두고 한국 교회 안에서 재현되고 있다.

간과하면 안 될 점은, 럭크만 자신도 이 이론을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교리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자신도 이 이론이 성경에서 유추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그 유추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창조는 사실이다", "이것을 모르면 성경 신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으로 굳어졌다.

처음에는 하나의 추론이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의심할 수 없는 기준처럼 자리 잡았다. 제안자는 가능성으로 말했는데, 수용자는 절대성으로 받아들였다. 이 역설이야말로 바로 간극 이론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이다.

본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2부에서 우리는 간극 이론이 근거로 제시하는 열한 가지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직접 검토하였다. 결론은 일관되었다. 이 이론이 의지하는 구절들은 그 문법과 문맥과 역사적 용례에 따라 읽을 때,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의 히브리어 동사는 '되었다'(became)가 아니라 '있었다'(was)로 읽는 것이 문법적으로 자연스럽다. 이 구절은 사건의 발생을 서술하는 문장이 아니라 배경 상태를 묘사하는 구조이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동일한 문장 구조는 일관되게 배경 설명으로 사용된다. 이는 간극을 암시하는 전환 구문이 아니다.

replenish라는 단어 역시 17세기 영어에서 단순히 '가득 채우다'를 의미하였다. 이 단어를 '다시 채우다'로 이해할 언어적 근거가 없다. 킹제임스 성경 이전의 위클리프, 틴데일, 커버데일, 제네바 역본 모두 '채우다'로 번역하였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도, 레이나-발레라 스페인어 성경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시대, 어느 언어의 정통 번역에서도 '다시 채우다'라는 의미를 본문에 집어넣지 않았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의 구절들도 마찬가지이다. 그 문맥 안에서 읽을 때 간극 이론과 연결될 여지는 전혀 없다. 이사야서 24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미래 심판을 말한다. 예레미야서 4장은 유다를 향한 임박한 심판을 묘사한다.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을 배경으로 사탄의 타락을 언급하지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선사 시대적 멸망과는 무관하다. 각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문맥은 분명하며, 간극 이론이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그때 있던 세상'도 루시퍼의 홍수를 가리키지 않는다. 본문은 명백히 노아의 홍수를 말한다. 신약 성경에서 카타클뤼스모스(kataklysmós)는 네 번 사용되었는데, 모두 노아의 홍수를 가리킨다. 예수님께서도 심판의 역사적 선례로 오직 노아의 홍수만을 언급하셨다. 성경은 두 개의 전 지구적 홍수를 말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한다. 이 선언은 그 이전에 수억 년의 간극이 존재했다는 해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다. 만일 인류가 장구한 창조 역사가 모두 끝난 뒤에야 등장했다면, 그들을 '창조의 시작부터 지으셨다고 하신 말씀'은 성립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현재의 하늘과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부른다. '처음'이라는 표현은 현재의 하늘과 땅이 두 번째 창조가 아니라 최초의 창조임을 분명히 한다. 간극 이론이 옳다면 현재 세계는 재창조의 결과여야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첫 번째 창조라고 부른다.

본문을 그 자체의 문법과 문맥과 역사적 용례에 따라 읽을 때, 간극 이론이 세운 성경적 기둥들은 하나씩 무너졌다. 이 이론은 성경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산물이 아니라, 이론을 먼저 세워 놓고 그에 맞는 구절을 끌어다 배치한 구조에 가까웠다. 한마디로 성경은 재창조 간극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복음이 걸린 문제

3부에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다루었다. 간극 이론은 단순한 창세기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이론은 복음의 구조 전체와 충돌한다.

이 이론은 아담의 범죄 이전, 수억 년의 간극 기간에 이미 죽음과 질병과 멸절이 존재하였다고 전제한다. 루시퍼의 반역과 우주적 심판이 있었고, 그 결과 땅이 황폐해졌으며, 그 이전 시대의 생명체들이 죽어 화석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선언한다. 성경의 논리는 분명하다.

만일 죄 이전에 이미 사망이 존재하였다면, 사망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처음부터 포함된 요소가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되돌리는 것인가? 속죄는 무엇을 회복하는 것인가?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인가? 이처럼 죄가 오기 전부터 죽음이 정상적인 질서였다면, 복음의 논리적 토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계를 보시고 "그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선언이 루시퍼의 반역과 우주적 심판, 수억 년의 죽음과 멸절 위에 세워진 세계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는가? 피와 파괴의 역사가 이미 깊이 쌓인 세계를 향해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간극 이론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고 선언한다. 이 말씀은 죽음이 죄에 대한 대가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죽음은 도덕적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판결이다. 그런데 죄가 없던 시대에 이미 수억 년의 죽음이 있었다면,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 세계를 운영하는 기본 도구가 된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죗값을 치르는 대속이라는 속죄론의 구조가 근본에서 흔들린다.

로마서 8장 22절은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 신음과 고통은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때 성경 전체의 흐름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간극 이론에 따르면, 이 신음과 고통은 아담의 범죄 이전 수억 년 전부터 이미 존재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회복하려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처음부터 죽음과 고통이 정상적 질서였던 세계로의 회복인가?

간극 이론이 옳다면, 복음의 기초가 흔들린다. 그리고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일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창조론 논쟁이 아니라, 복음이 걸린 문제이다.

우리가 함께 돌아가야 할 곳

이 모든 논증을 마치고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하나이다. 재창조 간극 이론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 이론은 세속 과학의 압력 속에서 등장한 타협의 산물이었고, 언어학적으로는 히브리어 문법과 17세기 영어의 실제 용례 앞에서 성립하지 않으며, 신학적으로는 죄와 사망과 속죄와 새 창조에 관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이 이론을 성경 해석의 전제로 삼는 것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오해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 결론을 말하는 마음에는 어떤 승리감도 없다. 오히려 안타까움이 있다. 간극 이론을 붙들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열심으로 이 이론을 받아들였음을 알기 때문이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열심은 귀하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그 권위를 지키려는 마음도 귀하다. 문제는 그 열심 자체가 아니라, 그 열심이 향하는 방향이다.

한 사람의 추론이 성경 전체의 전제가 될 수는 없다. 한 학교의 체계가 성경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한 번역의 오해가 성경 해석의 출발점이 될 수는 없다. 어떤 교사가 가르쳤다고 해서, 어떤 도표에 그려져 있다고 해서, 어떤 각주에 실려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경의 가르침이 되지는 않는다.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성경 본문 자체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그 확인의 과정이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과정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세야말로 진정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길이다.

간극 이론 때문에 갈라선 형제들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성경 신자의 기준이 '특정 이론의 수용 여부'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 이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경 신자가 아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등의 말을 들어야 했던 분들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이론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들에게 상처를 준 분들도, 이 책을 통해 그 아픔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란다.

분열과 서로를 배척하고 공격하는 악순환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도서관을 채운 재창조 이론서들이 내려지고, 그 자리에 성경 본문을 깊이 파

고드는 주해와 연구 서적들이 채워지기를 바란다. 성경 어디를 펴도 특정 이론의 렌즈가 먼저 앞세워지지 않고, 본문 자체의 목소리가 먼저 들리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성경은 간극 이론 없이도 충분히 아름답고 완전하다. 오히려 그 이론을 내려놓을 때 창조의 장엄함과 복음의 단순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매우 좋았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왔다.

창조에서 타락으로, 타락에서 구속으로, 구속에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이 단순하고 장엄한 복음의 서사는 재창조 같은 자의적 해석의 삽입 없이도 완전하고 아름답다. 그 위대한 진리 위에 함께 서기를 간곡히 청한다.

미국에서 반복되었던 상처와 분열의 길을 한국 교회가 다시 밟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 이 책을 마친다.

참고 문헌

1부: 간극 이론의 역사적 기원과 한계

1. 초기 제안 및 정교화

1. Thomas Chalmers 관련 자료
   19세기 초 창세기 1:1–2 사이 시간적 간격 가능성을 제안한 설교·강의
   2차 개관 자료:
   Answers in Genesis, "What About the Gap & Ruin–Reconstruction Theories?"
   https://answersingenesis.org/genesis/gap–theory/what–about–the–gap–and–ruin–reconstruction–theories/
   Evidence Unseen, "Gap Theory Interpretation"
   https://evidenceunseen.com/apologetics/science–and–scripture/gap–theory–interpretation/
2. George H. Pember, Earth's Earliest Age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876)
   루시퍼 타락, 선(先)아담 인류, 파멸–재창조 구조를 체계화한 고전 간극 이론 저작
   온라인 소개: NCSE, "Formless and Void: Gap Theory Creationism"
   https://ncse.ngo/formless–and–void–gap–theory–creationism
3. C. I. Scofield, Scofield Reference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09, 1917)
   창세기 1장 각주에서 간극 이론을 보급, 20세기 초 보수 복음주의의 사실상 표준 해석 역할
   온라인 열람(1917판): Internet Archive – Scofield Reference Bible
   https://archive.org/details/scofieldreferenc00unse
4. Clarence Larkin, Dispensational Truth (Philadelphia: Clarence Larkin, 1918)
   도표를 통해 "창조–파멸–재창조" 구조와 루시퍼 홍수 개념을 시각적으로 확산
   온라인 스캔본: https://archive.org/details/dispensationaltr00lark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https://archive.org/details/rightlydividingw00lark

2. 현대 창조과학의 비판

5. John C. Whitcomb & Henry M. Morris, The Genesis Flood (Philadelphia: Presbyterian & Reformed, 1961)
   홍수지질학 제시, 균일론·오래된 지구 전제 비판, 현대 창조과학 운동의 출발점
   관련 소개: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https://www.icr.org/article/closing–gap/1000
6. Henry M. Morris, "Why the Gap Theory Won't Work," Acts & Facts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1997)
   간극 이론의 히브리어·신학적 문제점 요약 비판

전문: https://www.icr.org/content/why-gap-theory-wont-work
7. John C. Whitcomb, The Early Earth, rev. ed. (Grand Rapids, MI: Baker, 1986)
창조-홍수-연대 문제 종합 정리, 간극 · day-age 이론에 대한 신학적 비판 포함
8. Henry M. Morris, Scientific Creationism, 2nd ed. (El Cajon, CA: Master Books, 1985)
젊은 지구 모델, 노아 홍수, 균일론 비판 정리; 간극 이론 비판 부분 포함
9. John C. Whitcomb, The World That Perished, rev. ed. (Grand Rapids, MI: Baker, 1988)
노아 홍수의 전 지구성, 심판의 신학적 의미를 상세 논의
10. Ken Ham et al., "What About the Gap & Ruin-Reconstruction Theories?" (Answers in Genesis, 2007)
간극 · 파괴-재창조 이론의 역사, 논거, 성경 · 언어학적 비판을 정리
https://answersingenesis.org/genesis/gap-theory/what-about-the-gap-and-ruin-reconstruction-theories/

3. 학술적 개관 및 분석

11. "Formless and Void: Gap Theory Creationism," Reports of the National Center for Science Education 24, no. 1 (2004)
'ruin-restoration' 모델로서 간극 이론의 역사 · 신학 · 지질학적 맥락 정리
https://ncse.ngo/formless-and-void-gap-theory-creationism
12. "Gap Creationism," Wikipedia
간극 창조론의 정의, Chalmers-Pember-Scofield-Larkin-Ruckman 라인 개관
https://en.wikipedia.org/wiki/Gap_creationism
13. "Young Earth or Old? Gap Creation Explained," Armstrong Institute of Biblical Archaeology (2025)
간극/갭-창조론 소개 및 비판, Fields 저작 언급 포함
14. "Ruin Reconstruction Theory," Creation Research Society Quarterly (2026)
'파멸-재구성' 이론이 창세기 1:31의 "심히 좋았더라"와 죄 · 사망 교리와 충돌함을 지적
15. "Ken Ham's Alternative History of Creationism," BioLogos (2017)
20세기 미국 보수 진영에서 간극 · day-age · 점진적 창조가 어떻게 표준이 되었는지 역사 개관

2부: 성경적 근거 검토

4. 히브리어 문법 및 언어학

16. Weston W. Fields, Unformed and Unfilled: A Critique of the Gap Theory (Collinsville, IL: Burgener Enterprises, 1976)
히브리어 문법, 창세기 1:2의 명사절/이접절 구조, 'hayah = became' 주장 비판의 고전
창세기 1:2가 상태를 묘사하는 명사절임을 문법적으로 증명
17. Bruce K. Waltke &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와우 연속법/분리적 와우, 명사절 · 동사절 구분 등 창세기 1:2 분석에 필수적인 구문론

18. Paul Jo on &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ev. ed.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2006)
이접절, 상태 서술, 서술적 와우 구조에 대한 표준 문법
19. Francis Brown, S. R. Driver, & C.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BDB)
hayah, male, tohu, bohu 등의 용례·의미 범위 확인용
20. Ludwig Koehler & Walter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HALOT)
창세기 1:2 "tohu wabohu", 이사야서 45:18, 예레미야서 4장 등 관련 어휘의 정밀 분석

5. 영어 replenish 및 17세기 용례

21. "What does 'replenish the earth' mean?", Creation Ministries International
KJV의 replenish가 17세기에는 단순히 "채우다" 의미였음을 사전·용례로 입증
https://creation.com/what-does-replenish-the-earth-mean
22. Arthur C. Custance, Without Form and Void (1970)
간극 이론 옹호 입장; 히브리어·영어 replenish 분석
비판을 위한 2차 자료로 유용

6. 창조 본문 주석 및 해석

23. "The Gap Theory (Part A, Part B)," Answers in Genesis
간극 이론의 역사, 지지 논거, 젊은 지구 창조론 관점에서의 비판
Part A: https://answersingenesis.org/genesis/gap-theory/the-gap-theory-part-a/
Part B: https://answersingenesis.org/genesis/gap-theory/the-gap-theory-part-b/
24. "Closing the Gap,"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Whitcomb & Morris, Fields 등 간극 이론 비판 저작 개관
https://www.icr.org/article/closing-gap/1000

3부: 신학적 문제

7. 죄와 사망 교리

25. Ken Ham, The Lie: Evolution/Millions of Years (Green Forest, AR: Master Books, 1987, rev. 2012)
"죽음은 죄 이후"라는 복음의 구조와, 아담 이전 수억 년 사망을 전제하는 간극 이론의 모순 지적
26. Henry M. Morris, "The Gap Theory," in The Bible and Modern Science (Chicago: Moody, 1951)
로마서 5:12,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8장 등과 아담 이전 사망·홍수 전 지질 시대의 신학적 모순 정리
27. Jonathan D. Sarfati, Refuting Compromise (Green Forest, AR: Master Books, 2004)
오래된 지구·타협 이론 전반(간극, day-age, 진화적 창조 등) 비판

8. 젊은 지구 창조론 종합

28. "Young-Earth Creationist View Summarized and Defended," Answers in Genesis (2011)
젊은 지구 관점과 복음(창세기 1-3, 로마서 5, 고린도전서 15)의 연결 구조를 요약
https://answersingenesis.org/creationism/young-earth/young-earth-creationist-view-summarized-and-defended/
29. "Don't Call Us Young-Earth Creationists" Answers in Genesis (2011)
'젊은 지구'라는 명칭의 오해와 성경적 창조 관점의 본질 설명
https://answersingenesis.org/creationism/young-earth/young-earth-creationists/

9. 간극 이론 대안 비판

30. "The Gap Theory - Not Biblical," Science Pastor
간극 이론의 성경적 근거 부재와 복음 교리와의 충돌 요약

King James Bible 1611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륜)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깁,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흠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해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잭슨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묵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제,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베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흠정역
한영대역/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흠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터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깁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깁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 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헌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뵈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웅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자!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넬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 (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윌밍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윌밍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디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성경바로보기

요한계시록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03230

값 8,000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 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 출애굽기 20장 11절 –

재창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간극?

성경 신자들 간의 오랜 논쟁, 이제는 끝냅시다

간극 이론(Gap Theory)을 팩트로 주장했던 피터 럭크만도 이것이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유추한 내용이라고 직접 인정했다. 그런데 그 추론이 "재창조는 팩트다", "이것을 모르면 성경 신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으로 변질되었다.

재창조 간극 이론을 받아들였던 많은 분들의 출발점이 "성경을 더 잘 믿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싶다."라는 선한 열심이었음을 안다. 그래서 더욱 간곡히 부탁드린다. 성경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한 사람의 추론, 한 학파의 체계, 한 학교의 노선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

성경은 재창조 간극 이론 없이도 충분히 아름답고 완전하다. 아니, 그 이론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창조의 장엄함과 복음의 단순함이 더욱 선명하게 빛난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뒤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이론의 도움 없이도 우리 마음에 그대로 들어온다. 그 단순하고 위대한 진리를 함께 회복하기를 바란다. 미국에서 반복되었던 상처와 분열의 길을 한국 교회가 다시 밟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으로 이 책을 쓴다. – 저자 서문 중에서 요약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킹제임스 성경
무료 PDF와 앱

정동수 목사
주요 설교·강해

창조론

값 12,000원